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2009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기공모 지원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경기문화재단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제 출 문

경기문화재단 귀하

2009년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기공모 지원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0년 2월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책임자】

노명우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 전공교수)

【공동연구원】

이주연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스포츠레저학 전공교수)

【연구조원】

이정수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응용사회학 전공 석사과정)

신유현 (아주대학교 사회과학 대학 사회학 전공 학사과정)

차 례

제1부 2009년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기공모 지원사업 개요	
1. 2009년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기공모 지원사업 개요	3
2. 2009년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기공모 지원사업 절차	5
3. 정기공모 지원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보고서 체계	6
제2부 2009년 정기공모 지원사업 심사(사전평가)에 대한 검토	
1. 사전평가 검토 조사방법	11
2. 2009년 정기공모 지원사업 심사(사전평가) 개요	13
3. 정기공모 지원사업 심사(사전평가)에 대한 메타 평가	20
제3부 2009년 정기공모 지원사업 집행(모니터링)에 대한 평가	
1. 모니터링 평가 방법	29
2. 집행평가(모니터링) 개관	31
3. 집행평가(모니터링)에 대한 메타 평가	62
제4부 정기공모 지원사업 모니터링 발전을 위한 제언	
1. 사전평가, 집행평가, 사후평가의 유기적 관련 제고를 위한 방안	89
2. 집행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방안	90
부 록	
1. 2009년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기공모 지원사업 심사평(요약)	97
2. 모니터링 대상 정기공모 지원사업 개관	109
3. 모니터 요원 모집 공고	127
4. 모니터 요원 간담회 및 심층 인터뷰 회의록	129
4. 1 시민 모니터 간담회	129
4. 2 전문가 모니터 간담회	133



표 차 례

표 1-01	2009년 문화예술진흥지원금 공모지원사업 개요	3
표 1-02	2009년 공모지원사업 지원분야의 변화	4
표 1-03	2009년 공모지원사업 이관 시·군	4
표 1-04	공모지원사업 진행과정	5
표 1-05	공모지원사업 진행 주체 및 역할	6
표 1-06	공모지원사업의 평가 체계	7
표 2-01	전체 평가 단계에서 심사과정의 위치	11
표 2-02	정기공모 지원사업별 비교	14
표 2-03	2009년 정기공모 지원사업 접수건수 대비 선정건수	14
표 2-04	지원사업 분야별 2008년 2009년 접수건수 비교	15
표 2-05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 행정심사 평가표	16
표 2-06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 심사표	17
표 2-07	우수작품 창작지원사업 심사표	19
표 2-08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사업 평가표	20
표 2-09	2009년 지역문화 예술활동 심사위원	22
표 2-10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 심사위원 1인당 심사건수	23
표 2-11	우수작품 지원사업 심사위원 1인당 심사건수	24
표 2-12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 심사위원 1인당 심사건수	24
표 2-13	우수창작발표활동/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 추천 심사위원 수	24
표 2-14	심사분야 별 선정 심사위원수	25
표 3-01	전체 평가 단계에서 집행평가의 위치	29
표 3-02	모니터링 대상 및 모니터링 방법 개요	31
표 3-03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별 모니터링 대상 사업 수	33
표 3-04	시민 모니터링 사업 장르	35
표 3-05	시민 모니터링 사업의 시작 월	36
표 3-06	시민모니터링 사업 기간	37
표 3-07	시민 모니터링 사업 장소	39
표 3-08	시민 모니터링사업 총사업비 규모	41



표 차례

표 3-09	시민 모니터링 사업 지원비 규모	42
표 3-10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 장르	44
표 3-11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 시작 월	45
표 3-12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 기간	46
표 3-13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장소	48
표 3-14	전문가 모니터링 총 사업비	50
표 3-15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지원비	51
표 3-16	분야별 모니터 구성 인원	52
표 3-17	모니터 구성 방법	52
표 3-18	시민모니터의 모니터링 횟수	62
표 3-19	시민 모니터링 동일 파트너 빈도	64
표 3-20	전문가 모니터의 모니터링 횟수	64
표 3-21	시민 모니터 성별 분포	67
표 3-22	시민 모니터 연령 분포	67
표 3-23	시민모니터 거주지역	68
표 3-24	시민모니터 직업	68
표 3-25	시민모니터링 활동 경력	69
표 3-26	전문 모니터 성별 분포	70
표 3-27	전문가 연령	70
표 3-28	전문가 모니터 거주지역	71
표 3-29	전문가 모니터 활동 분야	72
표 3-30	전문가 모니터 활동경력	72
표 3-31	시민모니터 교육 참여 실태	73
표 3-32	전문가 모니터 교육 참여	74
표 3-33	모니터링 평가 조사 대상 사업 수	76
표 3-34	모니터링 완료 현황	77
표 3-35	시민 모니터 평가표 항목 분석 결과	79
표 3-36	관련분야 종사자 평가표 항목 분석 결과	81
표 3-37	비평가 평가표 항목 분석 결과	83
표 3-38	'예술적 우수성'에 대한 전문가 집단 평균 점수 비교	85



그림 차례

그림 3-01	시민 모니터링 사업 장르	35
그림 3-02	시민 모니터링 사업의 시작 월	36
그림 3-03	시민모니터링 사업 기간	38
그림 3-04	시민 모니터링 사업 장소	40
그림 3-05	시민 모니터링사업 총사업비 규모	41
그림 3-06	시민 모니터링 사업 지원비 규모	42
그림 3-07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 장르	44
그림 3-08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 시작 월	45
그림 3-09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 기간	47
그림 3-10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장소	49
그림 3-11	전문가 모니터링 총 사업비	50
그림 3-12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지원비	51
그림 3-13	시민 모니터링 평가표 총점 분포	80
그림 3-14	관련분야 종사자 모니터링 평가표 총점 분포	82
그림 3-15	비평가 모니터링 평가표 총점 분포	84



제1부 2009년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기공모 지원사업 개요



1. 2009년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기공모 지원사업 개요
2. 2009년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기공모 지원사업 절차
3. 정기공모 지원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보고서 체계



1. 2009년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기공모 지원사업 개요¹⁾

경기문화재단은 1997년 설립 이래 경기도의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왔다. 문화예술진흥 지원금 공모지원 사업은 각 시군별 자생적인 문화예술저변을 확대시키고 문화예술의 생활화를 목표로 삼는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 장르별로 수준 높은 작품의 창작 발표 활동의 지원을 통해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우수작품 창작발표활동 지원사업 그리고 공연예술 제작활동 지원을 통해 창작 활성화 및 도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목표로 하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으로 크게 분류된다(자세한 내용의 비교는 아래의 표를 참조).

지원 사업종류	지원 신청 자격	지원 대상 사업	지원 금액	집행 평가	비고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최근 1년 이상 경기도 소재 문화예술 단체	단체 소재지에서 추진되는 모든 문화예술관련 활동 - 기초예술분야의 출판, 전시, 공연 등 발표사업 - 사업주체별·목적별 문화 예술 사업	20억	시민 모니터링	부천, 안산, 의정부, 하남시는 해당 재단 또는 문예회관에서 직접 추진
우수작품 창작발표 활동 지원사업	경기도문화예술 단체/예술인 - 최근 1년 이상 경기도 거주 -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서 활동한 전문 예술인 - 최근 1년 이상 경기도에서 활동한 전문 예술인 단체	해당분야에서 경기도를 대표할만한 우수한 문화예술 활동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등 전문예술 활동	10억	전문가 모니터링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사업	경기도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국내의 공연단체(공연장 운영자 포함) 및 공연기획사	- 공연예술분야(연극, 무용, 음악, 국악 등)의 작품 - 2009년도에 국내에서 제작·공연이 가능한 작품	9억	전문가 모니터링	지원금 분할 지급 →공연 전 1차 지원금(70%) + 공연 후 현장 평가결과 반영한 2차 지원금(30%)

<표 1-1> 2009년 문화예술진흥지원금 공모지원사업 개요

1) 공모지원사업 심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자료의 마지막 [부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09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기공모 지원사업_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009년도의 문화예술진흥지원금 공모지원 사업은 2008년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사항이 변경되었다. 2008년도까지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정기공모)과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작은 축제 지원, 다문화활동 지원,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으로 세분되어 있던 기획공모사업이 모두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으로 통합되어 실시되었다.

2008년 지원분야		2009년 지원분야	
정기공모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정기공모 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기획공모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작은축제 지원		
	다문화활동 지원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			
2008년 지원분야		2009년 지원분야	
정기공모	우수작품창작·발표활동 지원	정기공모 지원사업	우수작품창작·발표활동 지원
기획공모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우수공연작품 다년간지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

<표 1-2> 2009년 공모지원사업 지원분야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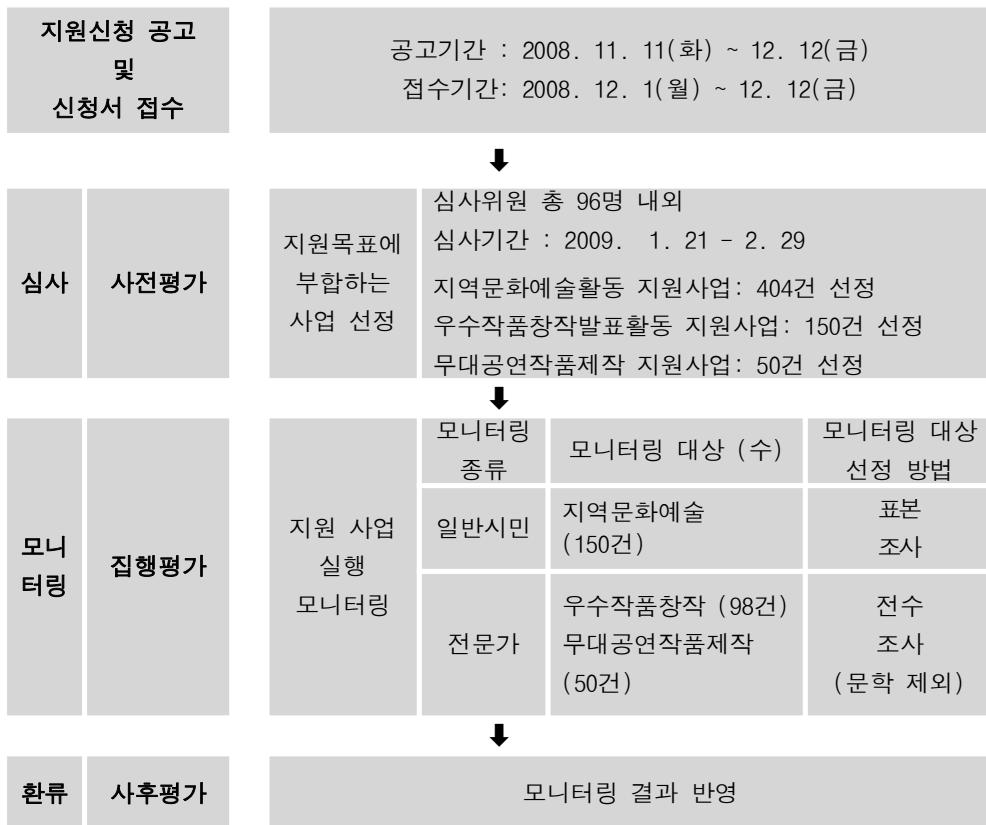
또한 31개 시군 중 부천시, 안산시, 의정부시, 하남시 등의 4개 지자체의 경우 지원사업이 이관되어 해당 시군은 경기문화재단이 아닌 해당 문화예술관련 문화재단에서 직접 지원사업을 운영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의 경우 2009년부터 사후지원제도를 도입하여 평가기능을 강화하도록 변경되었다.

시·군	해당기관	홈페이지	연락처
부천시	부천문화재단	www.bcf.or.kr	032-320-6300
안산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www.ansanart.com	031-481-4022~7
의정부시	의정부예술의전당	www.uac.or.kr	031-828-5841~2
하남시	하남문화예술회관	www.hnart.co.kr	031-790-7979

<표 1-3> 2009년 공모지원사업 이관 시·군

2. 2009년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공모지원 사업 절차

2009년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공모지원사업은 위와 같은 개요에 따라 ① 공고 및 접수 ② 심사 ③ 모니터링 ④ 모니터링 결과 분석 등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2008년 11월 11일부터 12월 12일에 걸쳐 2009년 공모지원 사업의 중요 내용들이 공고되었고 2008년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공모지원 신청이 접수되었고, 2009년 1월 21일부터 2월 29일에 걸쳐 지원사업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다. 지원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시민 및 전문가 그룹이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2010년 1월까지 진행하였고, 2010년 1월부터 2월에 걸쳐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분석과 더불어 2009년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공모지원 사업은 종료되기에 이르렀다.



<표 1-4> 공모지원사업 진행과정

2009년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지원금 공모지원사업의 공고 및 심사는 지원기관인 경기문화재단의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푸른경기 21은 모니터 요원의 선발 및 교육 그리고 모니터링 진행을 주관했고, 모니터링 결과를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연구팀이 분석을 맡았다.

주체	경기문화재단	푸른경기 21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업무 및 역할	- 지원사업 공고 - 지원사업 심사	- 모니터 선발 및 교육 - 모니터링 집행	- 모니터링 평가 및 분석

<표 1-5> 공모지원사업 진행 주체 및 역할

3. 공모지원 사업 모니터링평가 및 보고서 체계

본 보고서는 공모지원사업의 흐름에 따라서 사전평가, 집행평가, 사후평가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단계에서는 각 단계의 목적에 비추어 해당 과정이 전체 사업평가 체계 과정 속에서 선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했다.

사전평가는 공모지원사업의 심사과정에 대한 평가이며, 공모지원사업의 심사 과정에 대한 평가는 세부적으로 지원목표의 적절성, 지원액 배분의 적절성 및 심사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평가와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진행 등을 검토하는 집행평가 그리고 결과의 특이성들을 다루는 사후평가로 세분된다. 본 보고서의 2부는 사전평가에 대한 검토로 구성된다.

평가대상	지원목표 지원목표에 따른 의사결정(심사)			모니터링 제도 평가 모니터 요원 평가			산출평가 영향평가
평가단계	사전평가			집행평가			사후평가
	심사			모니터링			환류
평가 소단계	사전평가	집행평가	사후 평가 심사 결과 의 특 이성	사전평가	집행평가	사후평가	환류가능성, 가능한 환류방법
세부 평가대상	지원목표 적절성 지원액 배분 심사기준 표	심사위원 선정 심사 진행		평가지표 모니터 선발 및 교육	모니터링 진행과정	모니터링 결과 특이성	

<표 1-6> 공모지원사업의 평가 체계

지원결정된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평가가 모니터링으로 이 보고서의 핵심을 이룬다. 모니터링에 대한 평가는 평가지표 및 모니터 선발 및 교육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전평가와 모니터링 진행과정을 검토하는 집행평가 그리고 모니터링 결과의 특이성을 검토하는 사후평가로 세분된다. 본 보고서의 3부는 모니터링의 집행평가를 다룬다.

사후평가는 환류의 가능성 및 가능한 환류 방법 등을 평가하는 단계로, 2009년도의 사후평가가 2010년도의 사전평가로 이어지는 흐름을 감안하여 평가했고, 사후평가는 제4부에서 모니터링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 형식으로 수록되었다.

제2부 2009년 공모지원사업 심사(사전평가)에 대한 검토



1. 사전평가 검토 조사방법
2. 2009년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심사(사전평가) 개요
3. 공모지원사업 심사(사전평가)에 대한 메타 평가



1. 사전평가 검토 조사방법

2009년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의 첫 번째 단계는 심사 단계이다. 심사는 입구 평가에 해당되며, 입구 평가의 타당성에 따라 집행평가인 모니터링 평가의 성패가 달려 있다할 수 있다. 즉 입구 평가가 타당성을 지니지 못하면 집행 평가에 해당되는 모니터링 평가가 결과 평가, 즉 환류로 이어질 수 있는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입구평가는 본격적인 집행평가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지원목표에 따른 의사결정(심사)	모니터링 제도 평가 모니터 요원 평가	산출평가 영향평가
사전평가(1)	집행평가(2)	사후평가
심사	모니터링	환류

<표 2-1> 전체 평가 단계에서 심사과정의 위치

사전평가를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 시민 및 전문가 모니터 그룹 간담회 및 집단 인터뷰 및 경기문화재단, 푸른 경기21, 아주대학교 연구진의 검토회의를 실시했으며, 또한 공모 지원사업 관련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 공모 지원사업 사전평가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조사기간: 2009년 9월 19일-10월 15일
- 조사방법: 설문지 조사
- 조사참여 전문가:

성명	직책
강윤주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심보선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김규상	경기도 문화관광국 문화정책과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 책임연구원
박승현	성남문화재단

□ 시민모니터 그룹 간담회 및 인터뷰²⁾

- 조사일시: 2009년 9월 21일
- 조사방법: 간담회 및 심층 인터뷰
- 조사 참여 시민 모니터 요원: 총 15명

□ 비평가 및 관련분야 종사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³⁾

- 조사일시: 2009년 11월 25일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조사방법: 집단 인터뷰 및 설문조사
- 조사 참여 비평가 및 관련분야 종사자 :

분류	이름	활동분야
비평가	김최은영	e-미술마을 컬럼리스트
	박은주	자유기고 및 평론, 전시기획
	우미옥	명지대 박사과정
	김영아	그림연극 배우
	허명진	무용평론가
	장인종	음악평론가
	이나리메	작곡가 및 평론가
	염혜원	공연관련 분야 자유기고가
관련분야 종사자	김동영	성남문화재단
	이은미	백석예술대 교수
	강재선	안양문예회관
	김진원	화성시청
	임옥경	관련분야종사자

□ 평가위원회

- 경기문화재단(지원기관), 푸른경기 21(모니터 요원 선발 및 모니터링 운영 기관), 아주대학교(모니터링 결과 평가 연구진)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

2)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조.

3)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을 참조.

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위원회에서 모니터링 관련 중요 의제를 평가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함

□ 문헌조사

- 사전심사에 사용되는 심사기준표를 연구진이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함
- 경기문화재단이 제공한 심사결과의 결과통계를 검토함

2. 2009년 정기공모 지원사업 심사(사전평가) 개요

2. 1 사전평가 개요

2009년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기금 정기공모지원사업은 아래의 표와 같이 3개의 지원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문화 예술활동	우수작품 창작활동	무대공연 작품지원
심사과정	행정심사 - 서류심사	행정심사 - 서류심사 - 인터뷰심사	예비심사 - 본심사
지원목적	각 시군별로 자생적인 문화예술저변을 확대 문화예술의 다양화 생활화를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각 장르별로 수준 높은 작품의 창작 발표 활동의 지원을 통해 예술가의 창조역량을 강화	공연예술제작 활동을 통한 창작 활성화 도모 및 도민의 문화향수권 신장
신청자격	경기도에 최근 1년 이상 소재하고 문화예술을 활동 하는 단체	경기도의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경기도에서 공연을 희망하는 국내의 공연단체 (공연장 운영자 포함) 및 공연기획사, 공연단체나

■ 2009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기공모 지원사업_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공연기획사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경기문화재단에 신청
지원대상사업	기초예술분야의 출판 전시 공연 등 발표사업 사업주체별(창작자, 매개자, 향유자, 아마추어 등) 문화예술 사업 목적별(문화예술교육, 작은 축제, 다문화활동, 청소년문화예술 활동 등) 문화예술 사업 기타 지역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문화 예술사업	해당분야에서 경기도를 대표할만한 우수한 문화 예술활동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등 공연예술분야의 작품

<표 2-2> 정기공모 지원사업별 비교

2009년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은 2008년 1월 21에서 2월 29일 사이에 심사가 이루어졌다.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 사업은 총 938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404건이 선정되어 선정비율은 43%이다. 우수작품 창작발표 활동지원은 총 795건 접수건수 중에서 135건이 채택되어 선정비율은 17%이다.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사업은 314건 중 50건을 선정하여 선정비율은 15%이다.

지원 사업 구분	접수 건수	선정 건수	선정 비율	비고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938	404	43%	자체심사시군(4곳) 272건 포함
우수작품 창작발표 활동 지원	795	135	17%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	314	50	15%	
합계	2,066	589	28.5%	

<표 2-3> - 2009년 정기공모 지원사업 접수건수 대비 선정건수
(※ 2009년 실제 심사건수 : 1793건으로 선정비율은 더 높을 수 있음)

2008년과 비교할 때 전 분야에서 접수건수가 증가했다. 지역문화예술활동은 2008년 618건 대비 2009년 938건으로 총 320건이 증가했고, 우수작품 창작활동 지원사업은 2008년 738건 대비 2009년 795건으로 57건 증가, 무대공연 제작지원 은 2008년 274건 대비 314건으로 40건이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창작지원사업이 지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신청건수가 2008년과 비교할 때 증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신청건수의 증대는 2008년 지원율 상향(60%)에 따라 진입장벽이 낮아진 결과로 해석된다.

사업명	접수건수		증감	비고
	2008	2009		
지역문화예술활동	618	938	▲320	자체심사시군포함
우수작품 창작활동	738	795	▲57	
무대공연 작품제작	274	314	▲40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		19		08년 추천제로 실시
계	1,630	2,068		

<표 2-4> 지원사업 분야별 2008년 2009년 접수건수 비교

분야별 선정율은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이 가장 높다.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건수의 43%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반면 우수작품 창작발표 활동지원 과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사업은 각각 17%, 15%로 지역문화예술활동에 비해 선정율이 낮는데, 이는 지원목적에 고려하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문화예술활동과 달리 예술적으로 우수한 활동을 지원하는게 목적인 우수작품 창작활동 및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선정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원사업 접수건수에 대한 심사과정은 ① 신청자격 및 지원제한 사업을 선별 하여 심사대상을 선정하는 자격심사 단계(경기도단체 여부, 거주기간, 활동실

적, 신청액 상한, 신청자격, 제출자료 미비 등을 검토) ② 본 심사 단계 ③ 예비 선정 단계 ④ 최종 선정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심사 단계에서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신청사업과 직접 관련된 심사위원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고 심사시 관련단체 및 사업 발견 시는 관련여부 명기하고 배점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였다. 선정사업자가 심사결과 발표 1개월 이내 사업 포기 시 차순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예비후보 2-3단체씩 선정하고 이 단계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였다.

2. 2 지원사업 유형별 사전평가

2. 2.1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① 공고문 신청자격기준에 따라 담당자가 신청자격 유무 결정하는 행정심사와 ② 심사위원들이 선정기준 및 배점표에 따라 득점 순으로 각 심사분야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서류심사로 이원화되어 있다. 행정심사는 아래와 같은 행정심사 평가표에 따라 지원사업 담당자가 신청자격 유무를 판단한다. 행정심사를 통과한 사업은 서류심사 단계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게 된다.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① 동일 시·군에 1년 이상 소재하였는가?
	② 어느 시·군에 거주하는 회원들로 구성되었는가?
	③ 신청제한 단체 또는 신청제한 사업은 아닌가?
	④ 기타 신청자격 결격사유는 없는가?
시·군 분류	⑤ 어느 시·군 단체의 사업인가?
사업영역 분류	⑥ 어느 장르(영역)의 사업인가?

<표 2-5>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 행정심사 평가표

서류심사를 통하여 지원사업 및 지원규모(적당한 지원대상이 없어, 시·군별 배

정금 잔액이 생길 경우 재단 내부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추가사업 선정함)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으며, 심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참조되었다.

- o 기초예술 출판, 전시, 공연 등 발표사업 우선지원
- o 2009년 통합된 개별 기획사업 우선 지원
(문화예술교육, 다문화, 작은 축제, 청소년 문예활동)
- o 다양한 장르의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문학, 시각, 공연, 전통예술, 교육, 작은 축제 등)
- o 다양한 주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창작자, 매개자, 향유자 등)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은 문화예술적 우수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기대가치, 및 추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위원들이 평가하였으며,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 선정에 사용된 심사표는 아래와 같다.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 심사	
항목 (배점)	세부 내용
문화 예술적 우수성 (25)	· 작품의 예술성(작품수준)이 높은가? · 사업의 내용에 참신성·창의성·독창성이 있는가? · 작품의 완성도가 높은가?
사업계획의 충실성 (25)	· 추진계획이 사업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워졌는가? ·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수정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한가? · 총사업비 조달계획에 현실성이 있는가?
기대가치 (25)	· 지역문화예술진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가? · 주민의 문예향수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사업인가? ·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사업인가?
추진능력 (25)	· 참가자들 또는 사업주체의 역량이 뛰어난가? · 지역사회에서 추진한 활동실적이 있는가? ·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가(관계)를 얻고 있는가?

<표 2-6>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 심사표

2. 2. 2 우수작품창작·발표활동 지원사업 선정 심사 평가표

우수작품 창작활동 지원사업은 ① 공고문 신청자격기준에 따라 담당자가 신청 자격 유무 결정하는 행정심사와 ② 심사위원들이 선정기준 및 배점표에 따라 득 점 순으로 각 심사분야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는 서류 심사 ③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여부를 최종결정하는 인 터뷰 심사로 구성되어 있다.⁴⁾

행정심사는 아래와 같은 행정심사 평가표에 따라 지원사업 담당자가 신청자격 유무를 판단한다. 행정심사를 통과한 사업은 서류심사 단계에서 다시 한번 평가 를 받게 된다. 서류심사에서 공연예술분야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의 평 가기준에 따르며 문학, 시각예술분야는 아래와 같은 심사표에 따라 심사가 진행 되었다.

4) ○ 문학, 시각예술 : 서류심사로 사업선정(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인터뷰실시) ○ 공연예 술 : 서류심사, 인터뷰심사 실시 ○ 공연분야는 무대공연작품지원사업과 통합 운영 ○ 전년도 모니터링 결과 상위 5% 이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

우수작품 창작·발표활동 지원사업 평가	
구분 (배점)	내 용
문화 예술적 우수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예술성(작품수준)이 높은가? · 사업의 내용에 참신성·창의성·독창성이 있는가? · 작품의 완성도가 높은가?
사업계획의 총실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이 사업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세워졌는가? ·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수정 없는 사업추진이 가능한가? · 총사업비 조달계획에 현실성이 있는가?
기대가치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예술진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가? · 주민의 문예향수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사업인가? ·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사업인가?
추진능력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들 또는 사업주체의 역량이 뛰어난가? · 지역사회에서 추진한 활동실적이 있는가? ·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가(관계)를 얻고 있는가?

<표 2-7> 우수작품 창작지원사업 심사표

2. 2. 3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사업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사업은 ① 각 장르 별로 심사위원 합동으로 신청 및 지원제한 대상작품을 선별하는 예비심사와 ② 본 심사로 구성되어 있다. 2007-2008년 모니터링 결과 상위 5%를 우선지원하고, 하위 5%를 지원배제하는 심사방침을 세웠으며, 경기지역단체 선정비율을 금액대비 70% 이상으로 하고 경기도지역 신청이 저조한 다원예술분야는 사업질의 확보를 위해 50% 내외로 결정하였다. 또한 본 심사에서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이 개별로 작성한 심사 배점표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뺀 결과를 합산, 평균점수를 산출하고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최종선정 예상 금액을 기준으로 1.3배수 이내로 인터뷰 대상자 선정했다.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로 대학교수가 참여하는 사업은 창작 중심으로 심사토록 심사위원에게 권유하였다. 지원사업 심사에서 사용된 심사표는 아래와 같다.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사업 평가		
항목 (배점)	세부 내용	세부 배점
신청자 (15점)	사업수행능력	10점
	활동실적	5점
사업계획 (20점)	총실성	10점
	타당성	10점
작품 (30점)	작품성	10점
	예술성	10점
	발전성	10점
스텝, 출연진 (30점)	스텝진의 전문성	10점
	출연진의 기량	20점
홍보계획 (5점)	작품 기대 효과	5점

<표 2-8>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사업 평가표
 ※ 평점기준 : 우수 80점 이상, 보통 50점 이상, 미흡 50점 미만

본 심사 이후에는 ③ 심사위원 합동으로, 본심사에서 선정된 단체 대표자 및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인터뷰 심사를 진행했다. 인터뷰 심사 결과는 가부(○,×)로 결정되며, ④ 선정된 사업의 순위를 기준으로 심사위원들의 토론을 통해 지원사업, 지원금액 최종결정 하였다.

3. 공모지원사업 심사(사전평가)에 대한 메타 평가

심사(사전평가)의 적절성은 지원사업이 설정한 지원목표 대비 목표 달성에 적합한 수단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 또한 심사는 일종의 입구평가이지만, 입구평가의 타당도에 따라서 출구평가의 정당성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단계이다. 심사가 적절한 입구평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① 설정한 지원목표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②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의 적절

성에 대한 검토가 모두 요구된다.

3. 1 지원목표의 타당성

지원목표는 대체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전문가 조사, 모니터링 요원 면접을 통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문화 예술활동과 우수작품 창작지원 활동 사이의 지원 목표는 상호 배타적이라기보다 중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공모지원 사업이 3가지 분야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있기에, 지원목표의 타당성은 한편으로는 3가지 분야 구분이 서로 독립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가의 여부와도 관련이 있다. 목표 설정의 정확성을 위해 3가지 분야 사이의 지원목표가 배타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3. 2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의 적절성

3. 2. 1 심사과정의 적절성

문화예술의 평가에서 평가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평가자의 미학적 입장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도 상이한 평가가 내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심사과정의 적절성은 심사기준표의 적절성과 더불어 심사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공모지원사업의 경우 계획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위원의 안목에 대한 신뢰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은 50 명의 심사위원이 10개 권역별로 분배되어 심사를 맡고 있다. 50 명의 심사위원이 10개 권역으로 분배될 때 지역문화예술 관련기관(단체)이 추천한 인사 중에서 공모지원 신청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사 중 사업 유형 및 영역(장르)를 고려하여 다양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점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 2009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기공모 지원사업_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이름	소속	이름	소속
길영배	수원시 문화관광과	윤진구	과천시 문화체육과
김신	민예총 경기지회 사무처장	이계영	평택시 문화체육과
김건중	문인협회 부이사장	이광열	군포시 문화체육과
김규상	경기도 학예연구관	이만재	의왕시 문화예술진흥과
김기수	오산시 문화공보담당관실	이백래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장
김상열	안양시 문화관광팀	이병찬	포천예술인동우회 회장
김성호	광주시 문화체육과	이선우	양평 야외공연축제 예술감독
김영우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원철	안양문화회관 관장
김용직	구리시 문화예술과	이유병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
김종근	경기도 문화정책과	이진희	화성시 문화홍보과
김현복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	임기석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
노재천	오산문화예술회관 공연기획팀	임상철	안성문화원 사무국장
도경일	양주시 문화체육과	장호철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회
박명기	시흥시 문화교육과	장화자	동두천시 문화체육과
박병안	연천군 문화체육과	정은영	화성문화재단 문화정책팀
박영화	가평군 문화관광과	정채영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
박희자	이천시 문화관광과	제갈현	용인시립예술단 예술감독
백승대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	조기상	살기좋은마을만들기시민연대
신재춘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	조성수	용인여성문화회관
안동희	여주 의제21 추진협의회	주용수	한국재활복지대학 교수
우해덕	남양주 문화관광과	전광빈	안성시 문화체육관광과
원정희	예총 동두천 지부	최점숙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
유영근	경기도의회 문화공보위원	한덕수	고양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윤숙지	광명시 문화관광과	한수	양평 문화원
김현숙	오산문화예술회관 공연기획팀	한남득	예총 사무처장

<표 2-9> 2009년 지역문화 예술활동 심사위원

하지만 지역 추천 심사위원이 도의회, 시군청, 문예회관 등 특정인사로 집중되어 있는 것은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이라는 지원의 목표에 비추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 지원사업의 목적이 지역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인 만큼 지역민들의 의견이 심사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면 지원목적 달성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심사위원 대비 1인당 심사건수는 대체적으로 적절하나, 권역별로 1인당 심사건수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점 또한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사위원의 풀을 확대, 심사위원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권역	심사대상	1인당 심사건수
1권역(수원)	81	16.2
2권역(화성, 오산)	44	8.8
3권역(평택, 안성)	57	11.4
4권역(성남, 광주)	77	15.4
5권역(여주, 이천, 용인)	72	14.4
6권역(안양, 군포, 의왕)	80	16
7권역(고양, 양주, 포천)	78	15.6
8권역(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65	13
9권역(양평, 구리, 가평, 남양주)	57	11.4
10권역(시흥, 광명, 과천)	48	9.6

<표 2-10>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 심사위원 1인당 심사건수

우수창작 발표활동 지원사업과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사업의 심사위원은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과 달리 각 장르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과는 구별되는 지원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합한 선택이라 볼 수 있다. 우수창작 발표활동 지원사업과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사업의 심사위원은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의 전문예술분야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전문가들과 재단 내 심사분야 관련업무 종사자가 추천한 전문가 풀을 활용하여 문학, 시각예술 분야는 장르별 3명이 공연분야는 5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였다.

지원분야	심사대상	1인당 심사건수
문학 운문	137	45.66
문학 산문	138	46
시각 평면예술	177	59.33
시각 조형 공예	138	46
시각 그룹전 이론	80	26.66
공연 연극	32	6.4
공연 무용	24	4.8
공연 음악	31	6.2
공연 국악	38	7.6

<표 2-11> 우수작품 지원사업 심사위원 1인당 심사건수

분야별 1인당 심사건수는 장르별로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장르별 1인당 심사건수가 균형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 심사위원 풀을 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표 참조).

지원분야	지원대상	1인당 심사건수
연극	97	19.4
무용	57	11.6
음악	63	12.6
국악	60	12
다원	36	7.2

<표 2-12>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 심사위원 1인당 심사건수

문학 (운문)	문학 (산문)	시각1	시각2	시각3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다원	계
12	17	9	9	9	16	13	17	17	13	132

<표 2-13> 우수창작발표활동/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사업 추천 심사위원 수

심사분야	심사위원수
문학(운문)	3
문학(산문)	3
시각 1	3
시각 2	3
시각 3	3
연극	5
무용	5
국악	5
다원예술	4

<표 2-14> 심사분야 별 선정 심사위원수

3. 2. 2 심사표의 타당성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과 우수작품 창작발표 지원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심사 채점표가 동일한데, 지원사업의 목표 자체가 상이하기에 지원 목표에 부합하는 심사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기도 하였다.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과 우수작품 창작발표 지원사업에서 문화예술적 우수성 항목이 모두 25점으로 배점되어 있는데, 지원사업의 목표에 따라 문화예술적 우수성 항목에 대한 배점을 조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적 우수성은 심사단계 뿐만 아니라 집행단계에서도 평가되고 있는데(참고 3부), 입구에서의 심사와 집행단계에서의 심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입구 심사 단계의 평가항목과 집행 단계의 평가항목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면 심사표의 타당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심사표 중에서 기대가치에 대한 평가는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의견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이기에 객관적 지표화를 통해 심사표의 타당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의 필요성이 전문가 그리고 모니터링 요원 심층 면접을 통해 제기되었다.

3. 3 집행평가와 심사평가의 연계 강화

입구심사는 집행평가(모니터링)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지원사업 전 과정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입구심사 단계부터 집행평가와의 유기적 관련을 염두에 두고 입구심사가 설계되면 지원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서류심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심사표를 집행평가(모니터링)의 심사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수정 보완하여 입구평가에서 평가된 항목이 집행평가에서 다시 중복 평가되는 일을 방지하여 지원사업의 전과정에 대한 권위를 획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입구 단계와 집행 단계에서 중복되는 평가 항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피심사자는 집행평가를 불필요한 관료제적 과정이라 여겨 집행평가의 정당성 자체를 의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전평가, 집행평가 그리고 사후평가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지원사업의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다. 한편으로 사전평가, 집행평가 그리고 사후평가의 유기적 연관성의 제고는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선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사람을 매개로 한 유기적 연관성 제고도 효과적인 수단이다. 예를 들어 집행 및 출구 평가 담당자가 입구평가에 관여하고, 입구평가자가 집행 및 출구 평가에도 개입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사전평가와 집행평가 사이의 연관성을 높이는 방법 등을 검토해볼 수 있다. 또한 집행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모니터링 요원들이 그 다음 해의 사전평가에 참여한다면 사람을 매개로 한 사전평가, 집행평가 그리고 사후평가의 유기적 연관성은 높아질 것이다.

제3부 2009년 정기공모 지원사업 집행(모니터링)에 대한 평가



1. 모니터링 평가 방법
2. 집행평가(모니터링) 개관
3. 집행(모니터링) 평가에 대한 메타 평가



III 정기공모 지원사업 집행(모니터링)에 대한 평가

지원목표 지원목표 에 따른 의사결정 (심사)		모니터링 제도 평가		산출평가 영향평가
심사		모니터링		환류
사전평가		집행평가		사후 평가
		평가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대상 사업 특성 - 모니터 선발 및 구성 - 모니터 관리 및 운영 방법 - 모니터링 평가표 항목 적절성 - 모니터링 평가표 결과 및 반영유무 	

<표 3-1> 전체 평가 단계에서 집행평가의 위치

1. 모니터링 평가 방법

1. 1 전문가 델파이 조사

- 조사시간: 2009년 9월 19일 - 10월 15일
- 조사방법: 설문지 조사
- 조사참여 전문가:

성명	직책
강윤주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심보선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김규상	경기도 문화관광국 문화정책과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 책임연구원
박승현	성남문화재단

1. 2 시민모니터 그룹 간담회 및 인터뷰

- 조사일시: 2009년 9월 21일
- 조사방법: 간담회 및 심층 인터뷰
- 조사 참여 시민 모니터 요원: 총 15명

1. 3 비평가 및 관련분야 종사자 인터뷰 및 설문조사

- 조사일시: 2009년 11월 25일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조사방법: 집단 인터뷰 및 설문조사
- 조사 참여 비평가 및 관련분야 종사자 명단:

분류	이름	활동분야
비평가	김최은영	e-미술마을 컬럼리스트
	박은주	자유기고 및 평론, 전시기획
	우미옥	명지대 박사과정
	김영아	그림연극 배우
	허명진	무용평론가
	장인종	음악평론가
	이나리메	작곡가 및 평론가
	염혜원	공연관련 분야 자유기고가
관련분야 종사자	김동영	성남문화재단
	이은미	백석예술대 교수
	강재선	안양문화회관
	김진원	화성시청
	임옥경	관련분야종사자

1. 4 평가위원회

- 경기문화재단(지원기관), 푸른경기 21(모니터 요원 선발 및 모니터링 운영기관), 아주대학교(모니터링 결과 평가 연구진)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 위원회를 구성
- 평가위원회에서 모니터링 관련 중요 의제를 평가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함

2. 집행평가(모니터링) 개관

2. 1 모니터링 대상 및 모니터링 방법 개요

구분	지원 사업 수	모니터링 대상 사업 수	모니터링 방법	모니터 구성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	404	150 ⁵⁾	현장방문 평가표기입 참관기 작성	일반시민 (46명) 사업 1건당, 모니터 2명 파견
우수작품 창작발표활동 지원사업	135	98 (문학 37건제외) (시각75, 연극5, 무용4, 음악7, 국악7)	현장방문 평가표기입	① 비평가 (30명) ② 관련 종사자 (27명) 사업1건당,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사업	50	50 (연극13, 무용11, 음악11, 국악7, 다원8)	비평문 작성	비평가 1명과 관련분야 종사자 1명 파견

<표 3-2> 모니터링 대상 및 모니터링 방법 개요

2. 2 모니터링 사업 선정 방법 및 사업 특성

(1)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 시민 모니터링 사업(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선정 방법

○ 시민 모니터링 대상 사업 선정은 표본 추출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 경기지역 내(부천, 하남, 의정부, 안산 제외)에서 시행되는 공모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원사업은 총 404건인데, 그 중 문학작품과 지원액이 300 만원 미만인 사업을 제외하니 총 248건이었으며 또, 그 중, 지원액의 상하 비중을 고려

5) 모니터링 대상사업자 사업규모비용별 나눈 후 랜덤 추출하여 선정.

■ 2009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기공모 지원사업_모니터링 결과보고서

하여 150건을 랜덤으로 추출하였다. 모니터링 사업 대상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III 정기공모 지원사업 집행(모니터링)에 대한 평가

기초자치단체명칭	지원사업 총 수	추출비율	모니터링 대상 사업 수
가평	3	0.6	2
고양	20	0.6	12
과천	2	0.6	1
광명	5	0.6	3
광주	6	0.6	4
구리	5	0.6	3
군포	11	0.6	7
김포	8	0.6	5
남양주	7	0.6	4
동두천	7	0.6	4
성남	26	0.6	16
수원	34	0.6	20
시흥	5	0.6	3
안성	7	0.6	4
안양	15	0.6	9
양주	5	0.6	3
양평	7	0.6	4
여주	5	0.6	3
연천	3	0.6	2
오산	6	0.6	4
용인	8	0.6	5
의왕	4	0.6	3
이천	7	0.6	4
파주	10	0.6	6
평택	17	0.6	10
포천	6	0.6	4
화성	9	0.6	5
총 27개 시군	248개		150개

<표 3-3>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별 모니터링 대상 사업 수

□ 시민 모니터링 사업 특성

○ 시민 모니터링 사업의 장르

시민모니터링사업 중 약 40%가 음악(국악포함)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 시각전시분야(23.5%)이다.

○ 시민 모니터링 사업 시기

대부분 9월 이후에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시민 모니터 모집 이전에 시작한 사업들(1월-4월 시작한 사업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향후 모니터 모집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에 국한하여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 시민 모니터링 사업 기간

약 49%의 사업이 1일 행사에 해당하였으나 100일 이상의 사업도 16.5%에 해당하였다.

○ 시민 모니터링 사업 개최 장소

시민 모니터링 사업은 2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개최되었으며 이 중 수원(15.7%), 성남(10.4%), 고양(8.7%), 군포(6.1%) 순으로 가장 많이 개최되었다.

○ 시민 모니터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

시민 모니터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를 살펴보면 1300만원 미만의 경우가 62.7%에 해당하고 있으며 2300만원 이상의 사업은 14.8%에 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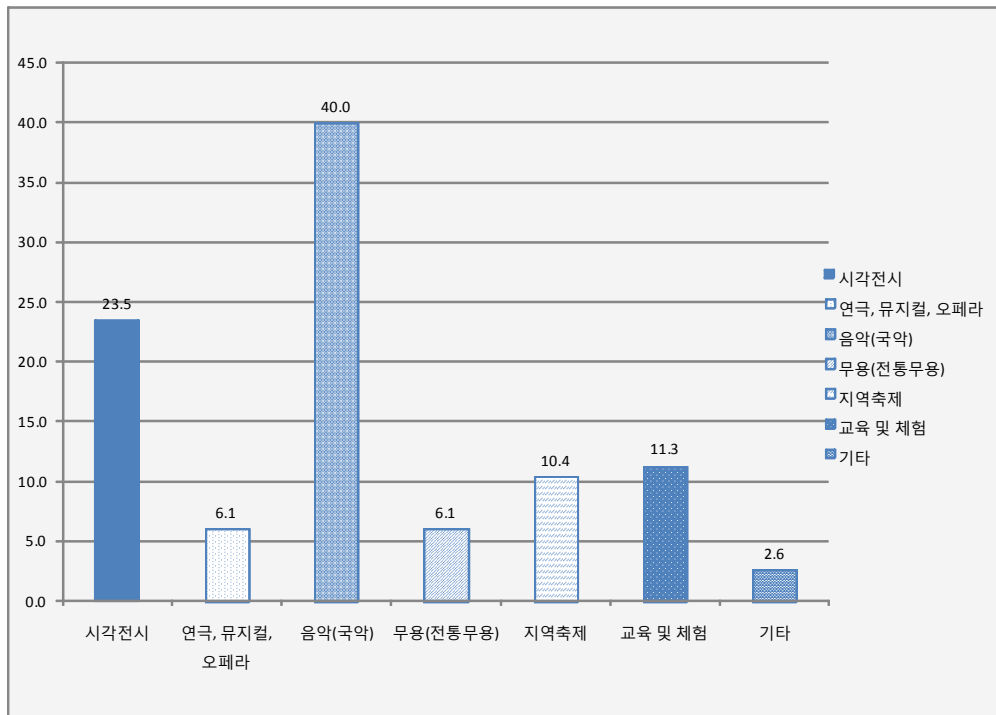
○ 시민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지원비 규모

경기문화재단에서 제공하는 지원비 규모를 살펴보면 500만원 이하가 약 7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정기공모 지원사업 집행(모니터링)에 대한 평가

시민모니터링 사업 장르	빈도	비율(%)
시각전시	27	23.5
연극, 뮤지컬, 오페라	7	6.1
음악(국악)	46	40.0
무용(전통무용)	7	6.1
지역축제	12	10.4
교육 및 체험	13	11.3
기타	3	2.6
합계	1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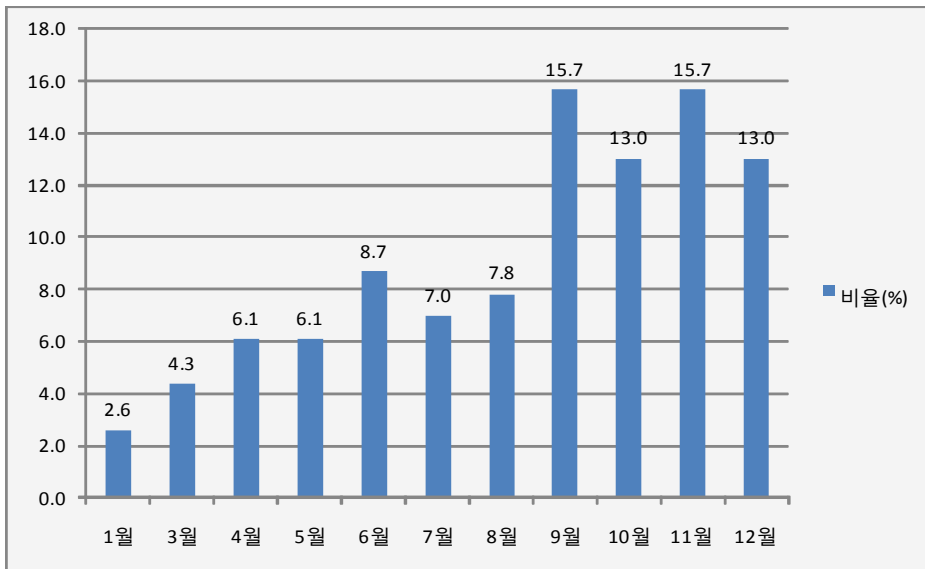
<표 3-4> 시민 모니터링 사업 장르



<그림 3-1> 시민 모니터링 사업 장르 (단위: %)

시민모니터링 사업 시작 월	빈도	비율(%)
1월	3	2.6
3월	5	4.3
4월	7	6.1
5월	7	6.1
6월	10	8.7
7월	8	7.0
8월	9	7.8
9월	18	15.7
10월	15	13.0
11월	18	15.7
12월	15	13.0
합계	115	100.0

<표 3-5> 시민 모니터링 사업의 시작 월



<그림 3-2> 시민 모니터링 사업의 시작 월

III 정기공모 지원사업 집행(모니터링)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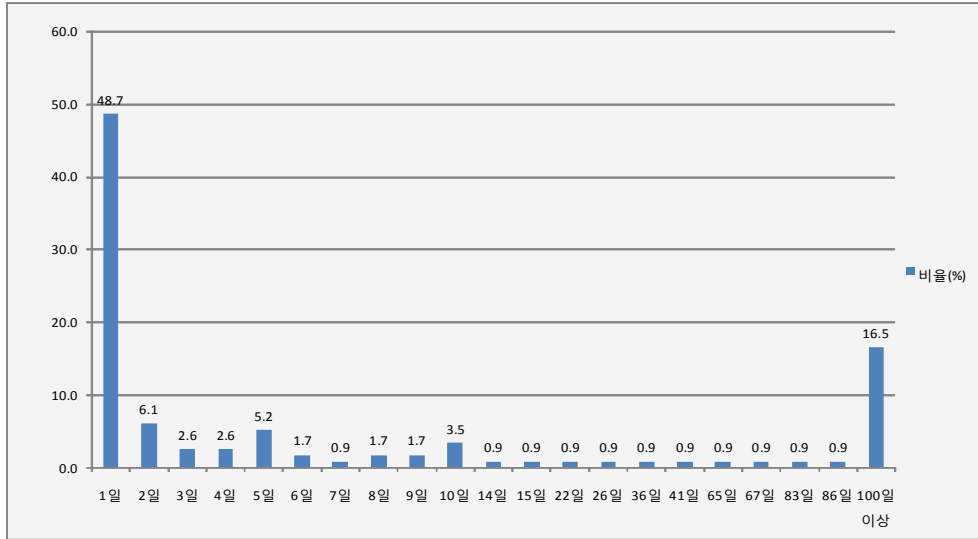
(단위 : 일)

시민모니터링 사업 기간	빈도	비율(%)
1일	56	48.7
2일	7	6.1
3일	3	2.6
4일	3	2.6
5일	6	5.2
6일	2	1.7
7일	1	0.9
8일	2	1.7
9일	2	1.7
10일	4	3.5
14일	1	0.9
15일	1	0.9
22일	1	0.9
26일	1	0.9
36일	1	0.9
41일	1	0.9
65일	1	0.9
67일	1	0.9
83일	1	0.9
86일	1	0.9
100일 이상	19	16.5
합계	115	100.0

<표 3-6> 시민모니터링 사업 기간



■ 2009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기공모 지원사업_모니터링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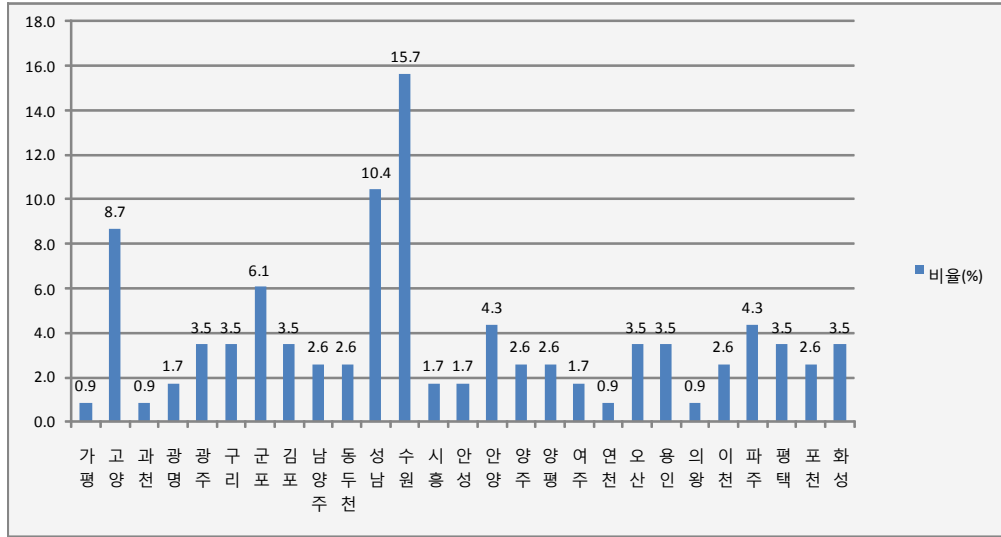
<그림 3-3> 시민모니터링 사업 기간

III 정기공모 지원사업 집행(모니터링)에 대한 평가

시민 모니터링 사업 장소	빈도	비율(%)
가평	1	0.9
고양	10	8.7
과천	1	0.9
광명	2	1.7
광주	4	3.5
구리	4	3.5
군포	7	6.1
김포	4	3.5
남양주	3	2.6
동두천	3	2.6
성남	12	10.4
수원	18	15.7
시흥	2	1.7
안성	2	1.7
안양	5	4.3
양주	3	2.6
양평	3	2.6
여주	2	1.7
연천	1	0.9
오산	4	3.5
용인	4	3.5
의왕	1	0.9
이천	3	2.6
파주	5	4.3
평택	4	3.5
포천	3	2.6
화성	4	3.5
합계	115	100.0

<표 3-7> 시민 모니터링 사업 장소

■ 2009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기공모 지원사업_모니터링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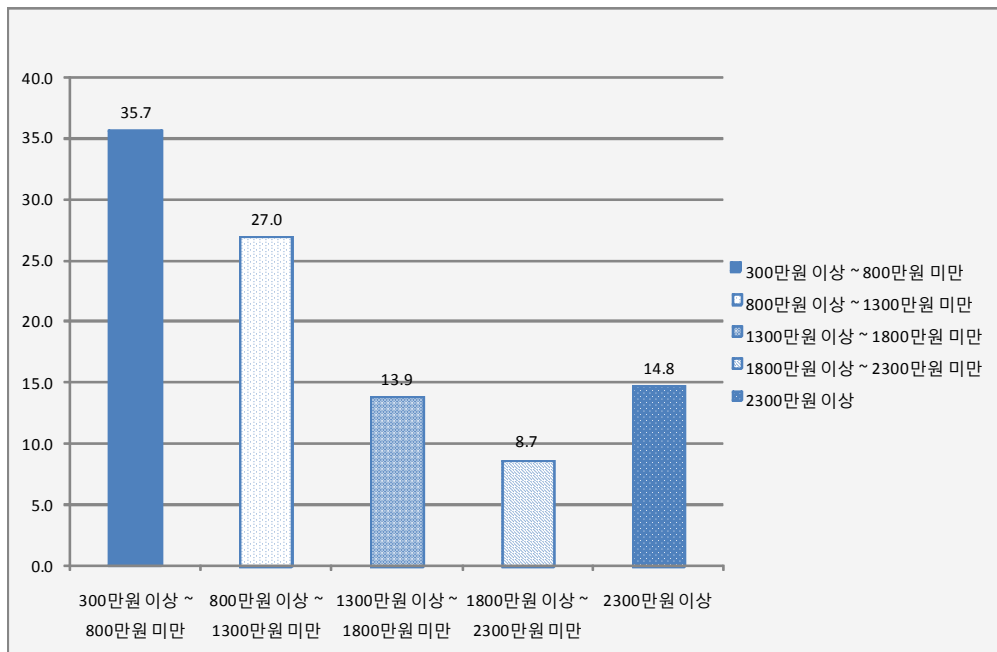


<그림 3-4> 시민 모니터링 사업장소

III 정기공모 지원사업 집행(모니터링)에 대한 평가

시민 모니터링사업 총사업비	빈도	비율(%)
3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41	35.7
8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31	27.0
1300만원 이상 ~ 1800만원 미만	16	13.9
1800만원 이상 ~ 2300만원 미만	10	8.7
2300만원 이상	17	14.8
합계	11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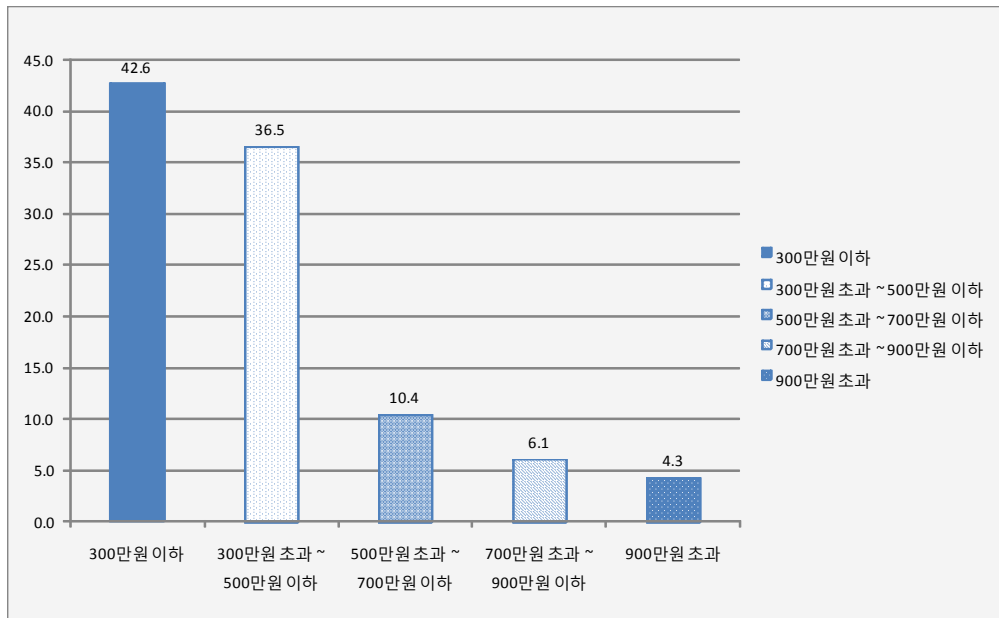
<표 3-8> 시민 모니터링사업 총사업비 규모



<그림 3-5> 시민 모니터링사업 총사업비 규모 (단위: %)

시민 모니터링 사업 지원비	빈도	비율(%)
300만원 이하	49	42.6
3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42	36.5
500만원 초과 ~ 700만원 이하	12	10.4
700만원 초과 ~ 900만원 이하	7	6.1
900만원 초과	5	4.3
합계	115	100.0

<표 3-9> 시민 모니터링 사업 지원비 규모



<그림 3-6> 시민 모니터링 사업 지원비 규모 (단위: %)

(2) 우수작품창작발표활동 지원사업 및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사업

□ 전수조사 실시

- 우수작품창작발표활동 지원사업 : 문학작품 제외한 98건 사업 모니터링 계획하였다.
-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사업: 전체 50건 사업 모니터링 계획하였다.

□ 전문가 모니터 사업 특성

○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의 장르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 중 약 42%가 시각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 연극 (14.3%), 무용(14.3%), 음악(13.4%) 순으로 나타났다.

○ 시민 모니터링 사업 시기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은 4월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56.2%의 사업이 10월 이후에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전문가 모니터 활동 이전에 시작한 사업들(4월-5월에 시작한 사업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모니터 모집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에 국한하여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 기간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 기간은 1일 행사(23.2%)가 가장 많았으며 2일 행사(16.1%), 7일 행사(14.3%), 14일 행사(6.3%) 순으로 나타났다.

○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 개최 장소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은 서울(37.1%)에서 가장 많이 개최되었으며, 고양(9.5%), 성남(8.0%) 순으로 나타났다.

○ 시민 모니터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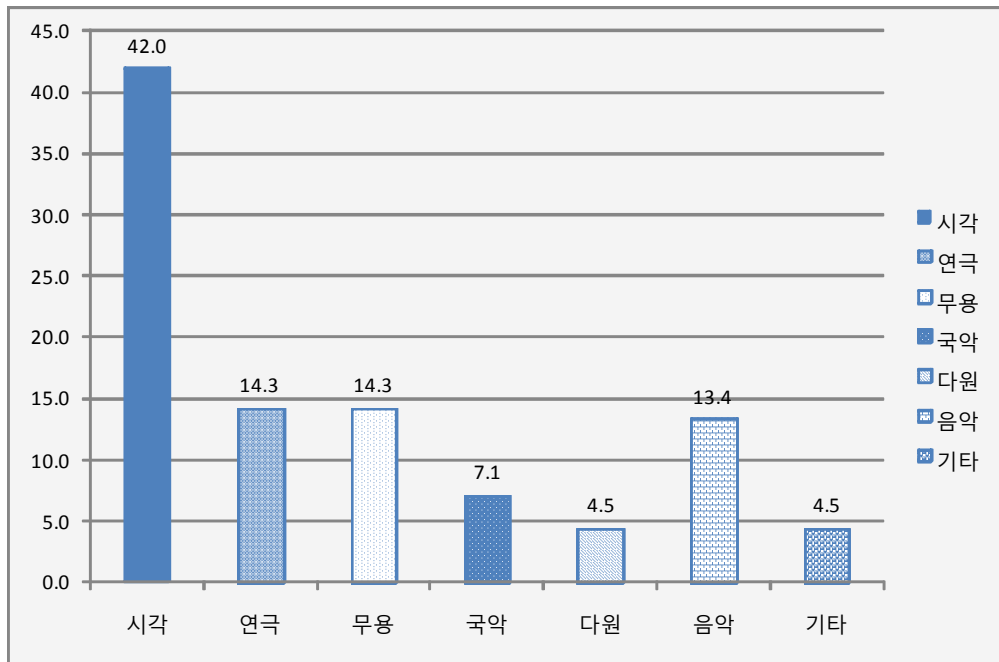
시민 모니터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를 살펴보면 2500만원 미만의 경우가 53.67%에 해당하며, 4500만원 이상의 사업이 20.5%에 해당하였다.

○ 시민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지원비 규모

경기문화재단에서 제공하는 지원비 규모를 살펴보면 1200만원 이하가 약 6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 장르	빈도	비율(%)
시각	47	42.0
연극	16	14.3
무용	16	14.3
국악	8	7.1
다원	5	4.5
음악	15	13.4
기타(영상, 전통예술, 미디어)	5	4.5
합계	112	100.0

<표 3-10>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 장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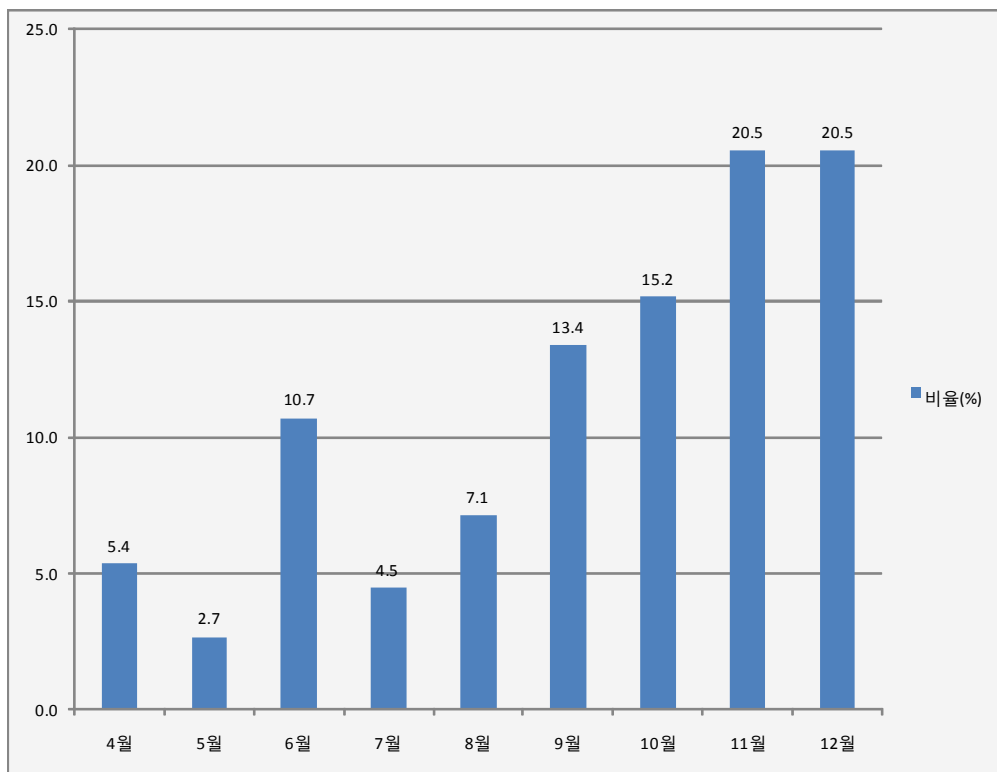


<그림 3-7>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 장르 (단위: %)

III 정기공모 지원사업 집행(모니터링)에 대한 평가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 시작 월	빈도	비율(%)
4월	6	5.4
5월	3	2.7
6월	12	10.7
7월	5	4.5
8월	8	7.1
9월	15	13.4
10월	17	15.2
11월	23	20.5
12월	23	20.5
합계	112	100.0

<표 3-11>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 시작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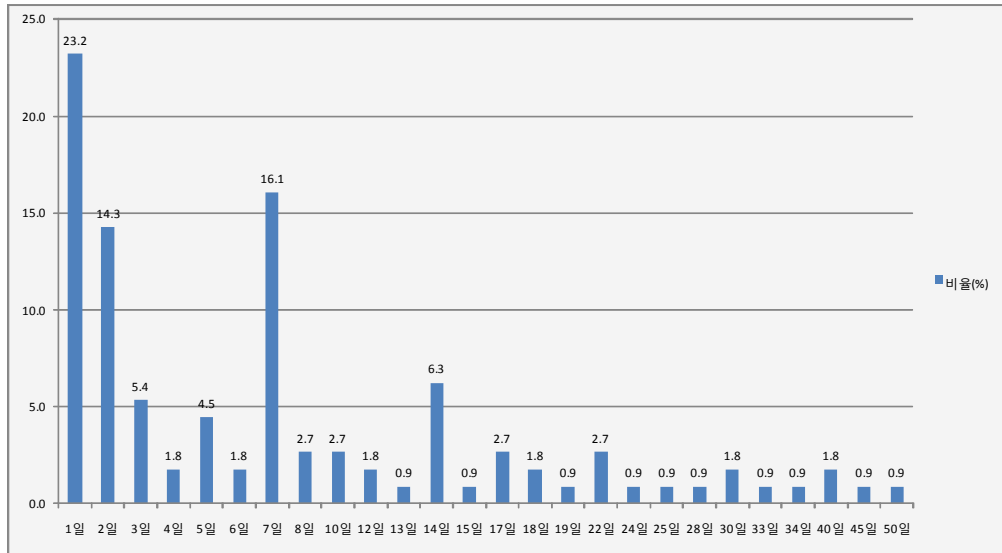
<그림 3-8>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 시작 월

■ 2009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기공모 지원사업_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 기간	빈도	비율(%)
1일	26	23.2
2일	16	14.3
3일	6	5.4
4일	2	1.8
5일	5	4.5
6일	2	1.8
7일	18	16.1
8일	3	2.7
10일	3	2.7
12일	2	1.8
13일	1	0.9
14일	7	6.3
15일	1	0.9
17일	3	2.7
18일	2	1.8
19일	1	0.9
22일	3	2.7
24일	1	0.9
25일	1	0.9
28일	1	0.9
30일	2	1.8
33일	1	0.9
34일	1	0.9
40일	2	1.8
45일	1	0.9
50일	1	0.9
합계	112	100.0

<표 3-12>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 기간

III 정기공모 지원사업 집행(모니터링)에 대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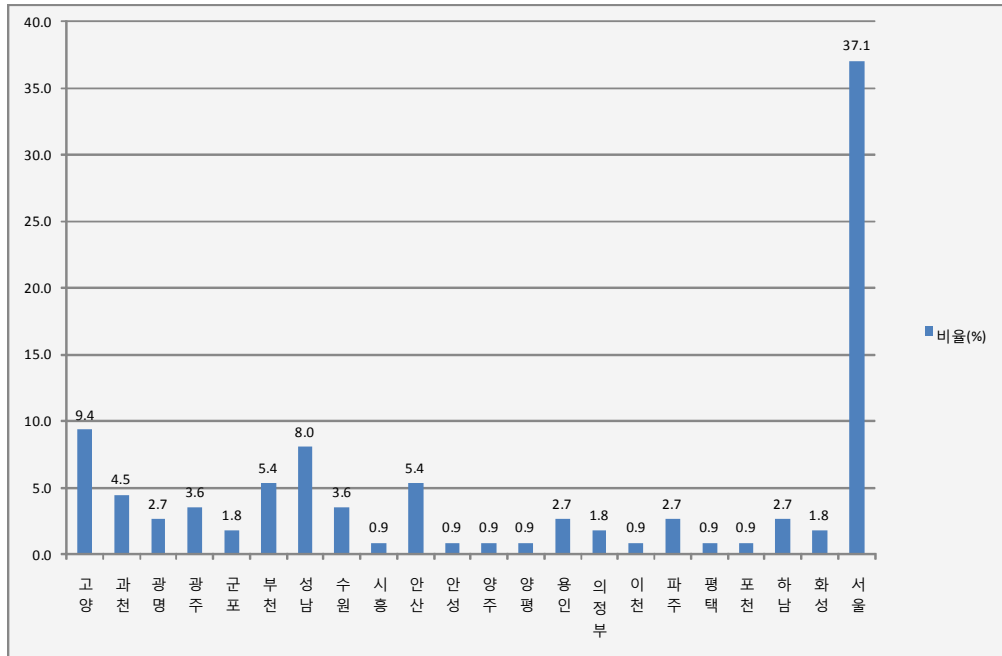
<그림 3-9>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 기간

■ 2009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기공모 지원사업_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장소	빈도	비율(%)
고양	11	9.4
과천	5	4.5
광명	3	2.7
광주	4	3.6
군포	2	1.8
부천	6	5.4
성남	9	8.0
수원	4	3.6
시흥	1	0.9
안산	6	5.4
안성	1	0.9
양주	1	0.9
양평	1	0.9
용인	3	2.7
의정부	2	1.8
이천	1	0.9
파주	3	2.7
평택	1	0.9
포천	1	0.9
하남	3	2.7
화성	2	1.8
서울	41	37.1
합계	111	99.1
결측값	1	0.9
총합	112	100.0

<표 3-13>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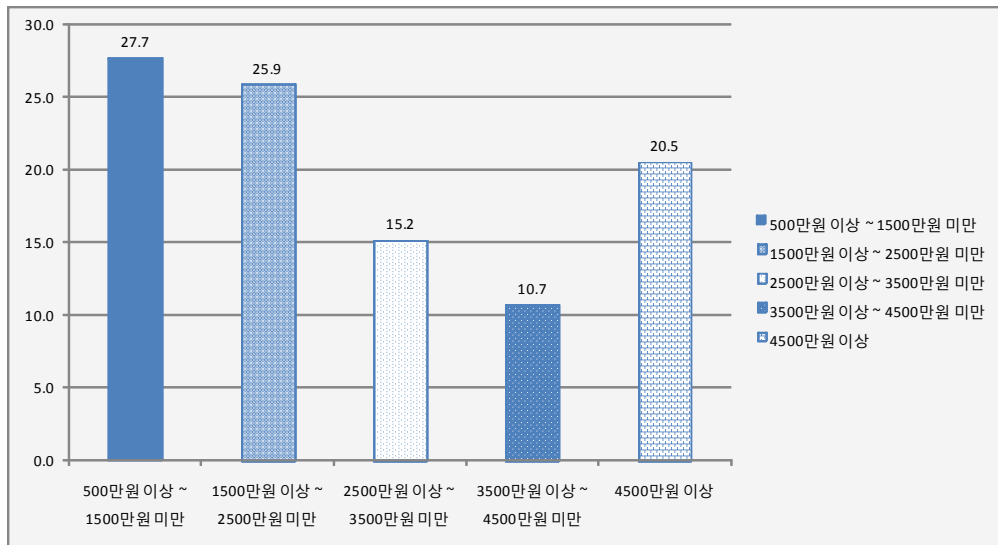
III 정기공모 지원사업 집행(모니터링)에 대한 평가



<그림 3-10>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장소

전문가 모니터링 총 사업비	빈도	비율(%)
5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31	27.7
15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29	25.9
25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	17	15.2
3500만원 이상 ~ 4500만원 미만	12	10.7
4500만원 이상	23	20.5
합계	112	100.0

<표 3-14> 전문가 모니터링 총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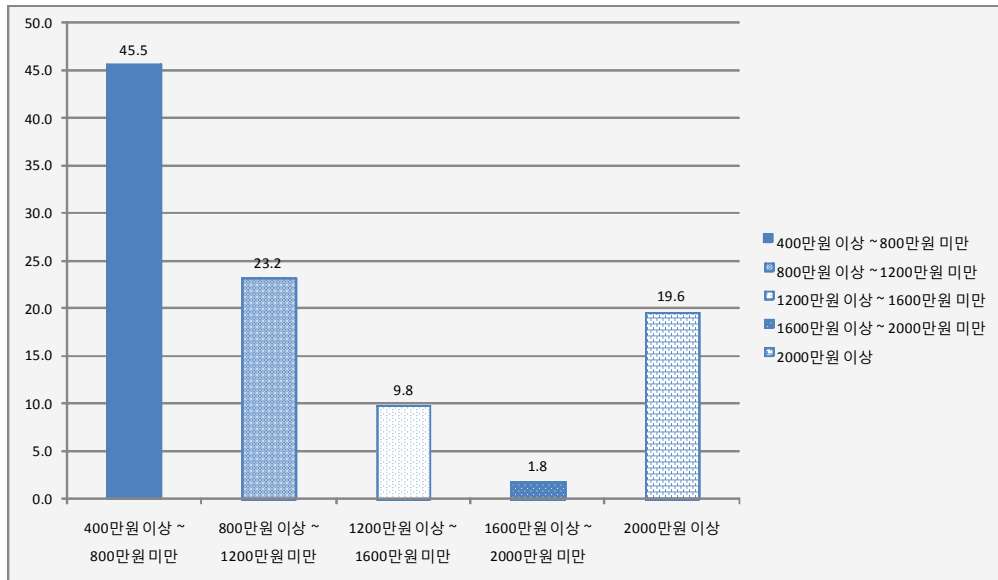


<그림 3-11> 전문가 모니터링 총 사업비 (단위: %)

III 정기공모 지원사업 집행(모니터링)에 대한 평가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지원비	빈도	비율(%)
4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51	45.5
8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26	23.2
1200만원 이상 ~ 1600만원 미만	11	9.8
16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2	1.8
2000만원 이상	22	19.6
합계	112	100.0

<표 3-15>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지원비



<그림 3-12>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지원비 (단위: %)

2. 3 모니터(평가자) 구성

(1) 분야별 모니터 구성 인원

전문가 모니터											시민 모니터	계
비평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각	연극	음악	무용	국악	기타	계	시각	공연	기타	계	46명	103명
13	5	5	2	1	4	30	13	10	4	27		

<표 3-16> 분야별 모니터 구성 인원

(2) 모니터 구성 방법

평가그룹	인력풀	선발 방법
시민그룹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인력풀 활용 9개 기초의제를 통해 공개모집으로 구성
전문가 그룹	① 비평가 ② 관련분야 종사자 (문예회관, 기초자치단체, 지역신문의 문화예술관련 종사자)	경기문화재단 인력풀 활용 공개 모집이 아님

<표 3-17> 모니터 구성 방법

□ 시민 모니터

- 시민 모니터 자격과 요건
 - 도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시민
 - 시민모니터링 활동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세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
 - 지역 내 문화예술활동에 대해 향유자 입장의 현장관찰과 인터뷰를 통한 객관적 평가를 수행.

III 정기공모 지원사업 집행(모니터링)에 대한 평가

- 선정된 모니터 요원은 반드시 모니터링 교육 및 워크숍에 참석
- 거주지역에서 실시되는 대상사업(지역별로 건수는 다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책임감 있게 실시하고 1주일 내에 모니터링 결과물 제출

○ 시민 모니터 공개모집 및 활동 기간

- 시민 모니터 모집기간: 2009년 4월 15일(수) ~ 4월 23일(목)
- 시민 모니터 선정일: 2009년 4월 28일(화)
- 시민 모니터 활동기간: 2009년 5월 ~ 12월 (8개월)

□ 전문가 모니터

○ 전문가 모니터 자격

- 관련 모니터링 유경험자
- 예술학, 미학, 미술사학, 지역연구 등의 연구 경험자
- 미술, 음악, 문학 등 비평매체에 기고 경험이 있거나 관련 블로그 운영자
- 문화예술관련 기관 종사자

○ 전문가 모니터 모집 및 활동기간

- 모집기간: 2009년 5월 21일(목) ~ 5월 26일(화)
- 활동기간: 2009년 6월 ~ 12월 (7개월)

(3) 모니터 관리 및 운영

□ 모니터 교육

○ 시민 모니터 대상 워크숍 1회

- ◆ 일 시 : 2009. 5. 26(화) 14시~16시
- ◆ 장 소 : 경기문화재단 3층 강의실
- ◆ 내 용 :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안내
모니터링의 이해

■ 2009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기공모 지원사업_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모니터링 목적, 의의, 경과, 기대효과, 모니터링 방법)
 지표 설명 및 모니터링 결과의 환류 방안
 모니터링 운영체계(구성요소, 보고서 제출, 소통 방법)

◆ 참석자 : 이송이, 이해안, 김남신, 김성이, 오일순, 김병규, 이희경, 이향승, 송성화, 이예원, 고준자, 공복순, 맹인경, 이정현, 이혜영, 이미자, 조미란, 김홍환, 한 용, 백승희, 이정희, 홍민자, 안미애, 조지연, 신미라, 오세형, 노명우, 박연희, 양진희, 우경자 등 30명

◆ 일정표 : (진행: 푸른경기21, 우경자)

시간	내용	담당	비고
13:40~14:10	접수	푸른경기	양진희
14:10~14:20	개회_인사, 푸른경기21 소개	푸른경기	박연희
14:20~14:50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안내	재단	오세형
14:50~15:20	모니터링의 이해	재단	신미라
15:20~15:30	지표설명 및 환류 방향	아주대	노명우
15:30~15:45	모니터링 운영체계	푸른경기	우경자
15:45~16:00	질의응답	푸른경기	우경자
16:00~16:20	정리	푸른경기, 재단	

o 전문가 모니터 대상 워크숍 1회

◆ 일 시 : 2009. 5. 26(화) 17시 30분~19시

◆ 장 소 : 경기문화재단 3층 연습실

◆ 내 용 :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안내(개요 및 평가 방법)
 지표 설명 및 모니터링 결과의 환류 방안
 모니터링 운영체계 (구성요소, 보고서 제출, 소통 방법)

◆ 참석자 : 비평가-박은주, 박성혜, 엄현희, 장인중, 이진수
 관련분야종사자-소홍삼, 이진희, 민재홍, 김동영, 윤송이, 이원호,



III 정기공모 지원사업 집행(모니터링)에 대한 평가

이은미, 최인호, 임옥경, 황우자, 왕우리, 조지연, 오세형, 노명우, 우경자 등 20명


◆ 일정표 : (진행: 푸른경기21, 우경자)

시간	내용	담당	비고
17:20~17:40	접수	푸른경기	우경자
17:40~17:50	개회_인사나누기	참석자	
17:50~18:00	지표설명 및 환류 방안	아주대	노명우
18:00~18:30	경기문화재단 공모지원사업 개요 및 평가	재단	오세형, 조지연
18:30~19:00	모니터링 운영체계 및 질의응답	푸른경기	우경자

<기타 논의사항>

- 노명우 교수: 평가지표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최대한 단순화하였지만, 평가는 엄격하게(지역, 사람 관계에 영향 받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
- 박연희 국장: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지표에 항목에 대한 구체적 설명 등 재작업 요구, 재단에서 보완하여 아주대와 협의하기로 함.
- 참관기 작성 시 평가지표에 담기 어려운 부분(현장스케치, 인터뷰 내용 등)을 꼭 넣을 수 있도록 안내 공지 필요
- 전문가 모니터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상사업 리스트를 비평가(혹은 관련분야 종사자까지)에게 메일로 발송하여 모니터링 희망의사를 수렴하여 배정하기로 함.

o 시민 및 전문가 모니터 합동 간담회 1회

 2009-0717 경기문화재단 모니터 간담회 회의록			
작성자	우경자	사무처장	신윤관
일시	2009년 7월 17일 14시 ~ 17시30분	장소	고양 어울림누리 별파기배움터 제6강의실
참석자 (16)	시민모니터: 고준자(수원), 김병규(수원), 최은심(수원), 박인경(성남), 채창희(성남), 맹인경(고양), 김순환(고양), 김옥석(고양), 김세희(파주), 조미란(김포), 최성남(안산), 공복순(안양) 전문가모니터: 김영아(연극), 김성혜(무용), 임옥경(관련분야종사자)		

	우경자 (푸른경기21)			
안 건	1. 2009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공모지원사업 모니터링 활동평가 및 제안			
첨부자료	1. 회의자료			
주요 회의 결과	1. 모니터링 경과보고 [모니터 현황 보고]			
	지역 문화예술 활동	교부신청서 접수	모니터링 시행	준비 및 진행 중
	150건	50건	16건	34건
	우수작품 창작 발표 활동	교부신청서 접수	모니터링 시행	준비 및 진행 중
	98건	20건	14건	6건
	무대제작 지원사업	교부신청서 접수	모니터링 시행	준비 및 진행 중
	50건	19건	16건	3건
	2. 모니터링 활동보고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밌게 열심히 하고 있다. · 보람 있고 지역문화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자긍심이 생긴다. · 이전에는 일부 분야에 편중된 문화예술 체험을 했으나 모니터링에 참여하면서 모든 분야를 향유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다년에 걸쳐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 내용의 변화 및 발전 정도를 비교할 수 있어 의미가 있는 것 같다. · 사업 지원금 이외에 다양한 부문-홍보, 장소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재단 측에서 직접 혹은 행사장(지역 재단 및 문예회관 등)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관료로 사업비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역의 좋은 행사장을 소개해주고 연결해 주는 것이 좋겠다. · 지역의 많은 이들이 지역문화의 증진을 위해 애쓰고 모습을 보였고, 수준 있고 다양한 예술 활동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 · 사업비 쓰임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며, 대부분 인쇄비와 대관료로 지원금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평가하기가 힘들었다. · 지원 사업을 선정할 때 신중하고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며 나눠주기식의 지원은 지양되어야 하고, 이후 사업보고서를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p>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 요원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타지역을 골고루 모니터 하여 지역별 문화활동에 대한 분위기와 경향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그래야 좀 더 객관적이 평가도 가능한 것 같다. · 종종 부잣집 잔치에 참관하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어렵고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업자에게 기회가 더 많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성을 다해 모니터링에 임하고 있다. 현장평가 내용이 이후 재단의 사업 방향 및 진행 과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한 공개와 공유가 필요하다. 내가 하고 있는 모니터링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얼마 만큼의 효과를 발휘하는지 알고 싶다. · 사업기간이 긴 사업의 경우 2명의 모니터가 따로따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사업내용을 더 세밀히 평가할 수 있다. · 평가자료가 사업자에게 공개되지 말아야 한다. 평가 시 의식하게 되어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 · 지원사업자가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 사업의 내용과 완성도에 비해 관객이 적어 아쉬움이 많다. · 평가결과의 반영과 환류 정도 비약. · 무대제작사업의 경우 30% 후지원으로 인해 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평가하게 된다. 형식적인 평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수도권이라는 특수 환경이지만 지역출신의 전문비평가 양성이 필요하다. 그 지역의 특징을 알고 현안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 · 교부신청서 제출 시 서류에 사업 일자 뿐 아니라 시간도 명기해야 하며, 사업일자 및 사업명(내용)을 변경하는 사업자는 차후 지원 시 고려해야 한다. · 모니터링 대상사업 관련자료(사업계획서)에 사업단체(자)의 연혁 등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 사업자와의 인터뷰는 사업자와 모니터와 재단 간의 소통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업자가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 무리해서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
<p>기타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기 모임에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문화 관련 주제를 정해 포럼이나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해 보자. · 모니터들이 경기문화재단 평가사업의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 모니터 관리 및 운영

○ 커뮤니티 운영

- 인터넷 블로그 커뮤니티 운영 (<http://blogcafe.ggcf.or.kr/ggag>)

2008년에 개설한 경기문화재단 블로그를 커뮤니티로 이용

○ 1개 사업당 모니터링 파견 방법

- 시민 모니터의 경우:

- 2008년 기존 사항: 권역별로 구분하여 도내 31개 시군에 2 ~ 5명을 선별하여 구성하고, 권역별로 팀장이 사업별 모니터를 지정함.
- 2009년 변화 사항: 지역구분 없이 모니터 요원이 모니터링이 가능한 인접 지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함. 모니터 지정 및 관리를 푸른경기21에서 운영함

- 지역문화예술: 모니터 대상 사업 1개당 시민 모니터 2인 파견

- 우수작품 및 무대공연: 모니터 대상 사업 1개당 비평가 1인 및 관련분야 종사자 1인 파견

□ 모니터링 절차

- ① 사업자가 재단에 교부신청서를 제출
- ② 운영자가 사업일정 및 내용을 “블까페”에 올림
- ③ 모니터는 수시로 블까페에 접속하여 사업내용 확인 후 모니터링 희망 의사를 댓글로 올림
- ④ 운영자는 지역과 모니터링 실적에 근거하여 사업별 모니터를 확정
- ⑤ 모니터링을 배정 받은 모니터는 사업자와 통화하여 사업장소 및 일정에 변경이 없는지, 모니터는 언제 할건지, 인터뷰는 언제 가능한지 등을 확인
- ⑥ 현장에서 모니터링 수행
- ⑦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참관기, 평가지표)를 작성하여 1주일 내로 제출하여야 하며 참관기(또는 비평문 2~3장)을 포함하여 A4 1.5~2쪽 분량으로 작성하여 블까페에 올리고 평가지표는 푸른경기21 메일로 발송

(4) 모니터링 평가표 구성

□ 평가표 항목

○ 평가표 항목 변화(2008년도 대비)

- 시민 모니터 요원, 관련 분야 종사자, 비평가의 평가표를 특화함
- 평가지표 항목 축소
- 평가자의 전문성을 고려한 평가표의 개선
- 정량적 평가가 불가능한 서술형 의견 대폭 축소

○ 평가표 종류 3가지

III 정기공모 지원사업 집행(모니터링)에 대한 평가

시민 모니터용 현장 평가표				
항목 (배점)	세부 내용	배점	구분	배점 구분
계획대비 실현정도 (20)	사업신청서 사업내용, 규모의 실현정도	10	탁월	10/9
			우수	8/7
			보통	6/5
			미흡	4/3
	교부신청서 지원금신청내역의 활용정도	10	매우미흡	2/1
			탁월	10/9
			우수	8/7
			보통	6/5
관객 만족도 (40)	프로그램, 작품에 대한 만족도	10	미흡	4/3
			매우미흡	2/1
			탁월	10/9
			우수	8/7
	행사진행 만족도	10	보통	6/5
			미흡	4/3
			매우미흡	2/1
			탁월	10/9
	행사장 시설만족도(편의시설 등)	10	우수	8/7
			보통	6/5
			미흡	4/3
			매우미흡	2/1
	홍보 및 정보 취득 만족도	10	탁월	10/9
			우수	8/7
			보통	6/5
			미흡	4/3
기대효과 (40)	지역문화발전효과	10	매우미흡	2/1
			탁월	10/9
			우수	8/7
			보통	6/5
	지역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 제고/ 지역주민 참여가능성 제고	20	미흡	4/3
			매우미흡	4/2
			탁월	20/18
			우수	16/14
	지역민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효과	10	보통	12/10
			미흡	8/6
			탁월	10/9
			우수	8/7
배점				100만점
총평				

관련분야 종사자용 현장 평가표			배점	구분	배점 구분
항목 (배점)	세부 내용				
계획 실현 정도 (20)	사업신청서 사업내용, 규모의 실현정도		10	탁월	10/9
				우수	8/7
				보통	6/5
				미흡	4/3
	교부신청서 지원금 신청내역의 활용정도		10	매우미흡	2/1
				탁월	10/9
				우수	8/7
				보통	6/5
기획 홍보성 (30)	기획의 참신성과 독창성		15	미흡	4/3
				매우미흡	2/1
				탁월	15/13
				우수	12/10
	홍보 방법 및 노력의 적절성		15	보통	9/7
				미흡	6/5
				매우미흡	3/1
				탁월	15/13
우수성 (30)	의도 평 가	작품 주제/구성의 탁월성	10	탁월	10/9
				우수	8/7
				보통	6/5
				미흡	4/3
				매우미흡	2/1
	결과물의 우수성 평가	작품의 완성도 (작품 및 출연자의 테크닉적 완성도 및 작품 및 출연자 표현의 완성도 등)	10	탁월	10/9
				우수	8/7
				보통	6/5
				미흡	4/3
	종합평가	작품의 예술적 성취 (예술적 혁신 및 참신성 등)	10	매우미흡	2/1
				탁월	10/9
				우수	8/7
보통				6/5	
기대 효과 (20)	비예술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효과	20	미흡	4/3	
			매우미흡	2/1	
			탁월	20/18	
			우수	16/14	
			보통	12/10	
총점					100만점
총평					

III 정기공모 지원사업 집행(모니터링)에 대한 평가

비평가용 현장 평가표			배점	구분	배점 구분
항목 (배점)	평가 내용				
계획 실현 정도 (20)	사업신청서 사업내용, 규모의 현장 실현여부		10	탁월	10/9
				우수	8/7
				보통	6/5
				미흡	4/3
	교부신청서 지원금 신청내역의 활용정도		10	매우미흡	2/1
				탁월	10/9
				우수	8/7
				보통	6/5
예술적 우수성 (60)	의도평가	작품 구성/주제의 탁월성	20	미흡	4/3
				매우미흡	2/1
				탁월	20/18
				우수	16/14
	결과물의 우수성 평가	작품의 완성도 (작품 및 출연자의 테크닉적 완성도 및 작 품 및 출연자 표현의 완성도 등)	20	보통	12/10
				미흡	8/6
				매우미흡	4/2
				탁월	20/18
	종합평가	작품의 예술적 성취 (예술적 혁신 및 참신성 등)	20	우수	16/14
				보통	12/10
				미흡	8/6
				매우미흡	4/2
기대 효과 (20)	예술계로의 파급효과 (지속가능성, 발전가능성, 예술발전기여도 등)		20	탁월	20/18
				우수	16/14
				보통	12/10
				미흡	8/6
				매우미흡	4/2
합계					100만점
총평					

3. 집행(모니터링) 평가에 대한 메타 평가

3. 1. 모니터 1명당 모니터링 사업 건수

□ 시민 모니터

- 시민모니터 총 46명 중 43명이 활동하였다.
- 시민모니터 43명이 총 115개 사업을 모니터하여 모니터 1명당 평균 2.7건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시민모니터 중 3건 이상 모니터 한 경우 무려 86%에 해당하며, 10회 이상 한 경우도 47.4%에 이르렀다.
- 시민모니터의 경우 동일한 파트너와 모니터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파트너와 4회 이상 모니터를 한 경우 53.9%에 해당하였다.

구분	이름	모니터 평가표 수	비율(%)
모니터링 1회만 한 경우	김순환	1	0.4
	문복남	1	0.4
	박경미	1	0.4
	오민정	1	0.4
	이기원	1	0.4
	이송이	1	0.4
	이희전	1	0.4
	장웅기	1	0.4
	전효순	1	0.4
	한정순	1	0.4
황성환	1	0.4	
소계	11명	11개	4.8
모니터링 2회-5회한 경우	안미애	2	0.9
	오은주	2	0.9
	최성님	2	0.9

III 정기공모 지원사업 집행(모니터링)에 대한 평가

	김흥환	3	1.3
	박주연	3	1.3
	이근영	3	1.3
	이항승	3	1.3
	홍민자	3	1.3
	김남신	4	1.7
	송성화	4	1.7
	양애리	4	1.7
	임현숙	4	1.7
	김성이	5	2.2
	김세희	5	2.2
	박인경	5	2.2
	이영숙	5	2.2
	이해안	5	2.2
	이희경	5	2.2
	한미희	5	2.2
소계	19명	72	31.3
모니터링 6회-10회한 경우	맹인경	6	2.6
	이미자	6	2.6
	오일순	7	3.0
	김옥석	9	3.9
	김병규	10	4.3
소계	5명	38개	16.5
모니터링 10회 이상 한 경우	한웅	11	4.8
	고준자	12	5.2
	채창희	12	5.2
	최은심	12	5.2
	공복순	13	5.7
	조미란	13	5.7
	이정희	17	7.4
	이혜영	19	8.3
소계	8명	109개	47.4
총계	43명	230개	100.0

<표 3-18> 시민모니터의 모니터링 횟수

동일 파트너 구성	빈도	비율(%)
동일 파트너 4회 미만인 경우	53	46.1
이정희-최은심	4	3.5
김세희-김옥석	4	3.5
김남산-이해안	4	3.5
김옥석-맹인경	4	3.5
박인경-채창희	5	4.3
김성이-이영숙	5	4.3
오일순-이미자	6	5.2
고준자-김병규	8	7.0
이정희-이혜영	11	9.6
조미란-한웅	11	9.6
합계	115	100.0

<표 3-19> 시민 모니터링 동일 파트너 빈도

□ 전문가 모니터

- 전문가 모니터 57명 중 46명이 실제 모니터를 하였다.
- 전문가 모니터 46(비평가 23명, 관련분야 종사자 23명)이 총 112개 사업을 모니터를 한 것을 나타나 모니터 1명당 평균 4.9건을 모니터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문가 모니터의 경우 모니터 1명당 5건이 넘는 경우가 56.7%에 해당하여 전문가 1명당 모니터를 해야하는 사업이 과다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남 (특정인의 경우 20건을 하기도 함)

구분	이름	모니터 평가표 수	비율(%)
1회-5회 모니터링 한 경우	엄국천	1	0.4
	이명임	1	0.4
	이재옥	1	0.4
	전민정	1	0.4

III 정기공모 지원사업 집행(모니터링)에 대한 평가

	서정민갑	2	0.9
	엄현희	2	0.9
	이진수	2	0.9
	전효순	2	0.9
	홍지석	2	0.9
	박만진	3	1.3
	유정아	3	1.3
	한은주	3	1.3
	현혜연	3	1.3
	강재선	4	1.8
	민재홍	4	1.8
	소홍삼	4	1.8
	왕우리	4	1.8
	우미옥	4	1.8
	이은미	4	1.8
	이진희	4	1.8
	전지영	4	1.8
	홍원의	4	1.8
	김동영	5	2.2
	김영란	5	2.2
	김영아	5	2.2
	염혜원	5	2.2
	윤송이	5	2.2
	장인종	5	2.2
	현지연	5	2.2
소계	30명	97	43.3
6회-10회 모니터링 한 경우	김최은영	6	2.7
	류현정	6	2.7
	류혜진	6	2.7
	이원호	6	2.7
	최민호	6	2.7

	김진원	7	3.1
	박성혜	7	3.1
	유희경	7	3.1
	이나리메	7	3.1
	박은주	8	3.6
	이선영	8	3.6
	정상희	8	3.6
	허명진	8	3.6
	황우자	8	3.6
	김동규	9	4.0
소계	15명	107	47.8
11회 이상	임옥경	20	8.9
총계	46명	224	100.0

<표 3-20> 전문가 모니터의 모니터링 횟수

3. 2 모니터 요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시민모니터

- 성별 편중, 연령별 편중, 거주지역별, 직업 편중이 심하게 나타났다.
 - 성별: 여자 모니터가 86.5%로 나타났다.
 - 연령별: 40대(55.7%), 50대(30.8%), 60대(8.2%), 20-30대(4.3%) 순으로 나타났다.
 - 거주 지역별: 수원(31%), 김포(10%), 구리(9.6%), 성남(7.8%), 고양(7.8%) 순으로 나타났다.
 - 직업별: 문화예술종사자 (43.9%), 전업주부(28.7%), 비문화예술종사자(19.6%) 순으로 나타났다.
- 현재 시민 모니터 요원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경기도의 문화예술 향유자의 대표성을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기도 일반 문화예술향유자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 모니터 요원 선발 과정에 대한 재설계가 요구된다.
- 시민 모니터 경력자 분포

III 정기공모 지원사업 집행(모니터링)에 대한 평가

시민 모니터들 중 11.3%만이 처음 모니터를 하는 사람들이며 대부분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경력 모니터를 대상으로 한 충성심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전문 모니터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성별	빈도(모니터 평가표 수)	비율(%)
여자	199	86.5
남자	29	12.6
합계	228	99.1
결측값	2	0.9
총합	230	100.0

<표 3-21> 시민 모니터 성별 분포

연령	빈도 (모니터 평가표 수)	비율(%)
20-30대	10	4.3
40대	128	55.7
50대	71	30.8
60대	19	8.2
결측값	2	0.9
총합	230	100.0

<표 3-22> 시민 모니터 연령 분포

시민모니터 거주지역	빈도(모니터 평가표 수)	비율(%)
고양	18	7.8
과천	12	5.2
광명	4	1.7
광주	5	2.2
구리	22	9.6
군포	2	0.9
김포	23	10.0
동두천	7	3.0
성남	18	7.8
수원	71	30.9
안산	2	0.9
안양	13	5.7
연천	1	0.4
의정부	1	0.4
이천	8	3.5
파주	5	2.2
평택	2	0.9
포천	14	6.1
합계	228	99.1
결측값	2	0.9
총합	230	100.0

<표 3-23> 시민모니터 거주지역

구분	빈도(모니터 평가표 수)	비율(%)
문화예술종사자	101	43.9
비문화예술종사자	45	19.6
전업주부	66	28.7
미기재	16	7.0
합계	228	99.1
시스템 결측값	2	0.9
총합	230	100.0

<표 3-24> 시민모니터 직업

III 정기공모 지원사업 집행(모니터링)에 대한 평가

시민모니터링 활동 경력	빈도(모니터 평가표 수)	비율(%)
1년(2009년부터 활동)	26	11.3
2년(2008년부터 활동)	137	59.6
3년(2007년부터 활동)	65	28.3
합계	228	99.1
결측값	2	0.9
총합	230	100.0

<표 3-25> 시민모니터링 활동 경력

□ 전문가 모니터

○ 전문가 모니터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성별: 여자 모니터가 67.4%로 남자 모니터보다 다소 많다.
- 연령별: 30대(45.2%), 40대(43.7%), 50대(10.2%) 순으로 나타났다.
- 거주 지역별: 서울(45.1%), 부천(11.6%), 의정부(8.9%), 고양(7.1%) 순으로 나타났다.
- 직업별: ‘비평가’ 중에서는 시각비평(23.7%), 음악비평(9.4%) 순으로 나타났으며 ‘관련분야 종사자’ 중에서는 문화시설 근무자(15.6%), 문예협회(11.6%), 기초자치단체 문화예술과(11.6%) 순으로 나타났다.

○ 전문가 모니터 경력자 분포

전문가 모니터들 중 약 1/3에 해당하는 32.1%의 모니터들이 처음 모니터를 하는 사람들이며 대부분 2년의 경력자가 26.8%, 3년 이상 경력자가 40.2%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신입 모니터와 경력 모니터를 구분하여 모니터링 교육 및 워크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2009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기공모 지원사업_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성별	빈도 (모니터 평가표 수)	비율(%)
여자	151	67.4
남자	71	31.7
합계	222	99.1
결측값	2	0.9
총합	224	100.0

<표 3-26> 전문 모니터 성별 분포

연령	빈도 (모니터 평가표 수)	퍼센트
30대	101	45.2
40대	98	43.7
50대	23	10.2
결측값	2	0.9
총합	224	100.0

<표 3-27> 전문가 연령

III 정기공모 지원사업 집행(모니터링)에 대한 평가

거주지역	빈도 (모니터 평가표 수)	비율(%)
고양	16	7.1
과천	2	0.9
구리	6	2.7
부천	26	11.6
성남	11	4.9
수원	8	3.6
시흥	5	2.2
안산	7	3.1
안성	4	1.8
안양	4	1.8
용인	12	5.4
의정부	20	8.9
서울	101	45.1
합계	222	99.1
결측값	2	0.9
총합	224	100.0

<표 3-28> 전문가 모니터 거주지역

전문가 모니터 활동 분야		빈도 (모니터 평가표 수)	비율(%)
비평가	시각비평	53	23.7
	연극비평	12	5.4
	무용비평	7	3.1
	국악비평	4	1.8
	다원비평	14	6.3
	음악비평	21	9.4
	기타비평(영상, 전통예술, 미디어)	2	0.9
	소계	113	50.6
관련분야 종사자	지역재단	17	7.6
	문화시설(예술의전당/art센터)	35	15.6
	문예협회(조직, 연합회 모임)	26	11.6
	시군구청지자체(문화예술과)	26	11.6
	대학	4	1.8
	소계	108	48.2
합계		221	98.7
결측값		3	1.3
총합		224	100.0

<표 3-29> 전문가 모니터 활동 분야

	빈도 (모니터 평가표 수)	비율(%)
1년(2009년부터 활동)	72	32.1
2년(2008년부터 활동)	60	26.8
3년(2007년부터 활동)	90	40.2
합계	222	99.1
결측값	2	0.9
총합	224	100.0

<표 3-30> 전문가 모니터 활동경력

3. 3 모니터 교육 및 관리/운영

□ 교육 참여 실태

- 시민 모니터의 경우 전문가의 경우보다 워크숍 및 간담회 참여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전문가 모니터의 참여 비율이 저조한 이유
 - 워크숍의 경우 시민 모니터와 전문가 모니터와 구분하여 진행하였는데 비해 간담회의 경우 시민 모니터와 전문가 모니터 구분없이 진행하였다. 간담회의 경우 전문가의 참여가 2.2%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민 및 전문가 모니터 교육에서 경력자 모니터와 신입 모니터를 구분한 교육 개발이 필요하며 경력자 모니터의 경우 ‘충성도’ 높은 모니터로 육성하여 지역사회 인적자원으로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교육 참여	빈도 (모니터 평가표 수)	비율(%)
워크숍 & 간담회 모두 참가	48	20.9
워크숍만 참가	100	43.5
간담회만 참가	52	22.6
둘 다 불참	28	12.2
합계	228	99.1
시스템 결측값	2	0.9
총계	230	100.0

<표 3-31> 시민모니터 교육 참여 실태

교육 참여	빈도 (모니터 평가표 수)	비율(%)
워크숍&간담회 모두참가	27	12.1
워크숍만 참가	63	28.1
간담회만 참가	5	2.2
둘 다 불참	127	56.7
합계	222	99.1
결측값	2	0.9
총합	224	100.0

<표 3-32> 전문가 모니터 교육 참여

□ 모니터의 교육 및 관리/운영 문제점

○ 모니터링 교육 프로그램(워크숍)의 개선 필요

- 현재 모니터링 워크숍은 2009년 5월 26일 1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 무경험/유경험자 구분, 시민/전문가 구분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
- 워크숍 교육 내용을 강화 필요한데, 특히 평가항목의 구체적 관찰 대상이 무엇인지 소개할 필요가 있다.

○ 시민 집단과 전문가 집단의 모니터 참여 동기 및 기대 수준의 차이 고려

- 각 집단의 참여동기에 부합하는 모니터 집단 교육 및 관리가 필요하다.
- 모니터 그룹의 특성에 맞는 관리 및 운영 체계 필요하다.
- 양 모니터 그룹은 공히 행정적 관리보다는 모니터 그룹 간의 수평적 연계 및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현재의 모니터 그룹 운영체계는 단순한 행정적 체계에 가까운데 이를 지역문화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지역 네트워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 시민모니터 - 현재 운영 형태 지속하되 인터넷 커뮤니티 활성화 필요

： 전문가 - 전문가 모니터 협의체 구성 필요

- 모니터 활동 자긍심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과정 및 절차 부족
 - 시민 및 전문가 모니터들이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이유는 경제적 동기가 아니다.
 - 경제적 보상이 아니라 지역문화예술활동 진흥 이바지에 기여한다는 목적 의식이 강하다.
 - 모니터 요원 교육, 모니터 진행과정, 모니터 사후결과 등이 모니터 요원들에게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무기력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4 (계량)평가표 분석

□ 모니터링 완료 상황

- 모니터링 대상 사업에 대해 모니터링이 전부 완료되지 못했다.
- 모니터링 완료되지 못한 경우
 - 사업 주체의 상황으로 사업 취소 또는 포기된 경우 모니터링이 불가능했다.
 - 사업 주체가 사업일정을 변경한 경우 모니터링이 불가능했다.
 - 모니터들의 평가표 미제출인 경우 모니터링이 완료되지 못하였다. (모니터들은 현장 방문 후 1주일 이내에 평가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 2009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기공모 지원사업_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구분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우수작품창작 발표활동지원	무대공연 제작지원
모니터링 사업 수(계획)	총 150 건	총 98 건	총 50 건
사업자 상황으로 탈락한 사업 수	23건	17건	3 건
모니터 요원 사정으로 탈락된 사업 수	13건	9건	6건
조사 대상 사업 수	115건 (76%)	71건 (72%)	41건 (82%)

<표 3-33> 모니터링 평가 조사 대상 사업 수

III 정기공모 지원사업 집행(모니터링)에 대한 평가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우수작품창작 발표활동지원	무대공연 제작지원
모니터링 대상 사업 수(계획)	150 건	98 건	50 건
탈락 사업 수 및 탈락 사유	13 건 - 12/18일까지 교부신청 하지 않은 사업 - 모니터링 이전에 사업완료됨 - 출판물 사업 - 사업 포기	16 건 - 출판물 사업 8건 - 모니터링활동 이전에 진행됨	2 건 - 사업 포기
교부신청한 사업 수	137 건	82 건	48 건
교부 신청 후 모니터링에서 탈락		1 건 - 2010년도 1월 사업진행으로 모니터링 대상 사업에서 제외	
실행 완료된 사업 수	137 건	81 건	48 건
실시된 사업 중 모니터링 못한 사업	10 건 모니토요원선정 못함 사업자가 일정 변경 사업자의 사업 축소	1 건 부산에서 전시하여 모니터링 못함	1 건 모니터링 이전에 사업완료
모니터링 완료 사업 수 ⁶⁾ (1월 8일기준)	127 건	80 건	47 건
모니터링 완료 사업 중 제외된 사업 수	13 건 시민모니터 1명만 제출한 경우	9 건	6 건
		관련분야 종사자 혹은 비평가만 평가지표를 제출한 경우	
조사 대상 사업 수	115 건	71 건	41 건

<표 3-34> 모니터링 완료 현황

6) 모니터 2인 중에 1인이라도 모니터링 실시 한 경우는 “모니터링 완료”로 분류

□ 시민모니터 평가표

-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 평가 평균 점수: **75.44점(100점 만점)**
 - 세부항목에서 점수를 가장 높게 준 항목: “문화예술향수 확대 효과”
 - 세부항목에서 점수를 가장 낮게 준 항목: “정보 취득 홍보 만족도”
(시민모니터 간담회에서 지원비 대신 홍보 컨설팅 지원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과 이 결과는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같은 사업에 대한 모니터 2명간의 점수 차이가 큰 항목:
“문화예술향수 기회 확대” 및 “행사장 시설 만족도”로 나타났다.

- 시민모니터 평가 문항 내용
 - 올해 평가 지표의 간편성 및 효율성 지적
 - 평가 세부 항목의 추상성 수준을 일관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특히 “문화예술향수 기회 확대”와 같은 항목은 추상 수준이 높아서 평가 기준이 불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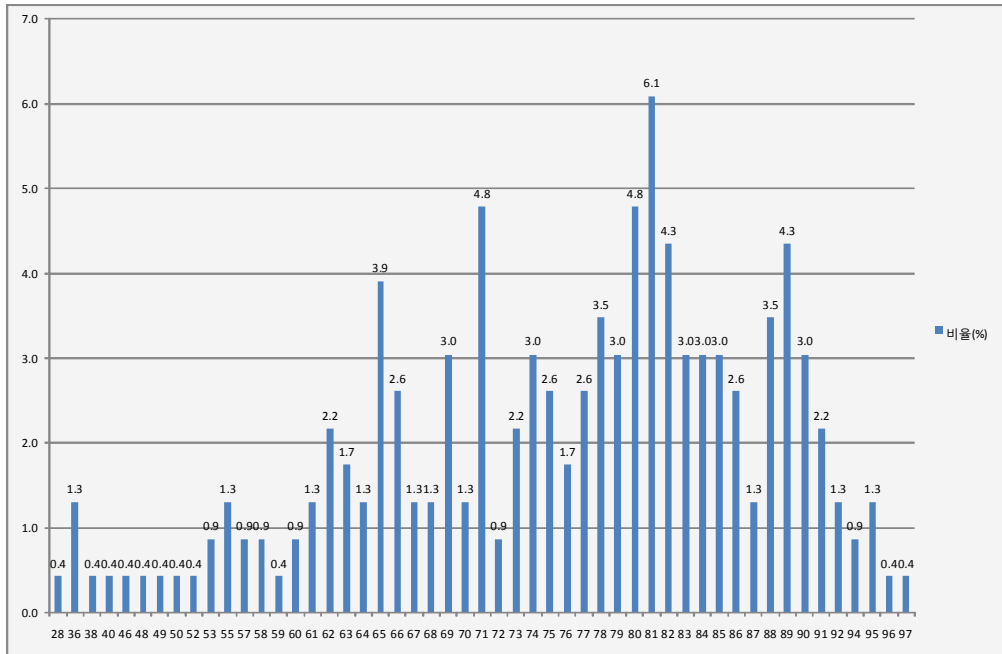
- 시민 모니터 2인 1조 평가 방식의 문제점
 - 시민 모니터 그룹의 경우 보통 2인이 1조를 이루어 모니터를 진행하는데, 동일한 2명의 모니터들이 반복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경우 평가자 사이의 점수 차이가 적게 나타나거나 비슷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 이런 경우, 1개의 사업에 2명의 모니터 점수의 평균값을 사업에 대한 평가 점수로 신뢰하기가 어렵다.
 - 보완방안
 - (1) 1개 사업에 대한 모니터의 수를 5명 이상 늘리는 방법
 - (2) 1개 사업에 대한 평가자가 모니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만족도 평가”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III 정기공모 지원사업 집행(모니터링)에 대한 평가

시민모니터용 평가표 항목	배점	평가표 갯수	최소 값	최대 값	평균	100점 환산 평균	표준편차
(1) 사업 내용 실현 정도	10점	230	2	10	7.55	75.5	1.714
사업 내용 실현 정도 차이값 ⁷⁾		230	0	6	1.28		1.230
(2) 지원금 신청 내역 활용 정도	10점	230	2	10	7.63	76.3	1.723
지원금 신청 내역 활용 정도 차이값		230	0	5	1.48		1.162
(3) 프로그램 만족도	10점	230	2	10	7.72	77.2	1.646
프로그램 만족도 차이값		230	0	5	1.20		1.091
(4) 행사 진행 만족도	10점	230	1	10	7.46	74.6	1.673
행사 진행 만족도 차이값		230	0	9	1.07		1.245
(5) 행사장 시설 만족도	10점	230	3	10	7.81	78.1	1.697
행사장 시설 만족도 차이값		230	0	6	1.23		1.249
(6) 정보 취득 홍보 만족도	10점	230	1	10	6.70	67.0	1.864
정보 취득 홍보 만족도 차이값		230	0	7	1.22		1.202
(7) 지역 문화 발전 효과	10점	230	2	10	7.86	78.6	1.516
지역 문화 발전 효과 차이값		230	0	4	1.08		0.907
(8) 참여 가능성 및 관심 제고	20점	230	4	20	14.85	74.3	3.421
참여 가능성 및 관심 제고 차이값		230	0	11	2.58		2.525
(9)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효과	10점	230	2	10	7.87	78.7	1.402
문화예술 향수기회 확대 효과 차이값		230	0	10	1.15		1.343
총점	100점	230	28	97	75.44	75.44	12.486
총점 차이값		230	0	42	7.88		7.268

<표 3-35> 시민 모니터 평가표 항목 분석 결과

7)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모니터링에서는 1개 사업에 두 명의 시민 모니터가 참여한다. 여기서 각 항목에 대한 '차이값' 은 두 명의 시민 모니터들의 점수 차이를 의미한다.



<그림 3-13> 시민 모니터링 평가표 총점 분포

□ 전문가 모니터 평가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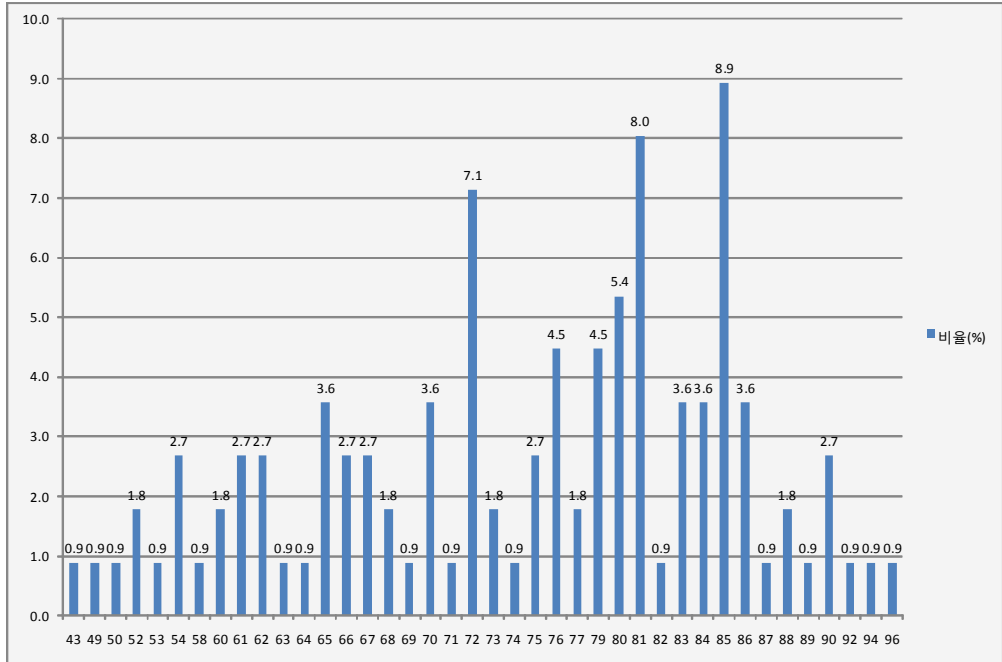
○ 관련분야 종사자 평가표

- 관련분야 종사자 모니터 평가점수의 평균: **74.62점**(100점 만점)
- 세부항목에서 점수를 가장 높게 준 항목: “결과물 우수성”
- 세부항목에서 점수를 가장 낮게 준 항목: “홍보방법 노력” (시민 모니터 평가항목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이 ‘정보 취득 홍보 만족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공모지원사업에서 사업주체의 홍보 노력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III 정기공모 지원사업 집행(모니터링)에 대한 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표 갯수	최소 값	최대값	평균값	100점 환산 평균값	표준 편차
사업내용실현	10점	112	4	10	7.87	78.66	1.37
지원금신청활용	10점	112	3	10	7.65	76.52	1.53
기획참신성독창성	15점	112	4	15	11.41	76.07	2.33
홍보방법노력	15점	112	5	15	9.63	64.23	2.45
의도평가	10점	112	4	10	7.87	78.66	1.50
결과물우수성	10점	112	4	10	7.90	79.02	1.40
예술종합평가	10점	112	4	10	7.71	77.14	1.47
기대효과	20점	112	3	20	14.48	72.41	3.48
평가총점	100점	112	43	96	74.62	74.62	11.05

<표 3-36> 관련분야 종사자 평가표 항목 분석 결과



<그림 3-14> 관련분야 종사자 모니터링 평가표 총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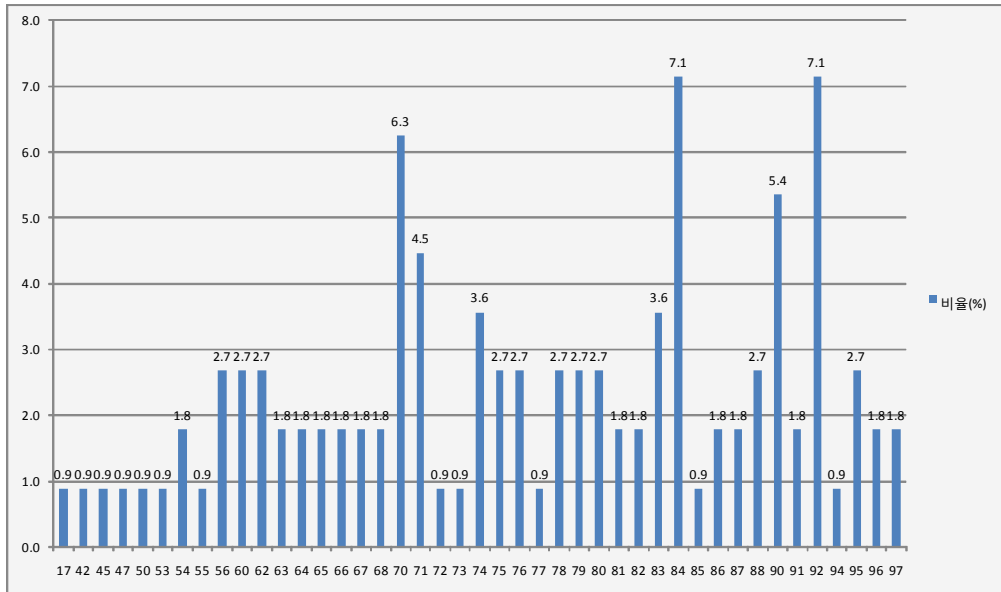
III 정기공모 지원사업 집행(모니터링)에 대한 평가

o 비평가 평가표

- 비평가 모니터 평가점수의 평균: **76.00점** (관련분야 종사자보다 높음)
- 세부항목에서 가장 점수를 높게 준 항목: “지원금 신청 활용”
- 세부항목에서 가장 점수를 낮게 준 항목: “예술 종합 평가”

평가항목	배점	평가표 갯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값	100점 환산 평균값	표준편차
사업내용실현	10점	112	2	10	7.79	77.95	1.54
지원금신청활용	10점	112	4	10	7.95	79.46	1.42
의도평가	20점	112	4	20	15.29	76.47	3.11
결과물우수성	20점	112	2	20	15.30	76.52	3.29
예술종합평가	20점	112	1	20	14.65	73.26	3.73
기대효과	20점	112	2	20	15.04	75.18	3.33
평가총점	100점	112	17	97	76.00	76.00	14.09

<표 3-37> 비평가 평가표 항목 분석 결과



<그림 3-15> 비평가 모니터링 평가표 총점 분포

o ‘예술적 우수성’에 대한 두 전문가 집단의 평가 비교

관련분야 종사자와 비평가 평가표를 살펴보면, 예술적 우수성은 세 개의 항목(‘의도평가’, ‘결과물 우수성’ 및 ‘예술적 종합평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점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평가하고 있다. 같은 항목에 대해 관련분야 종사자와 비평가 집단별로 100점 환산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관련분야 종사자의 평균 점수가 세 개 항목 모두 비평가 집단의 평균 점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평가 집단이 ‘예술적 우수성’에 대해 관련분야 종사자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정기공모 지원사업 집행(모니터링)에 대한 평가

구분	세부항목	평가내용	관련분야 종사자 (100점 환산 평균)	비평가 (100점 환산 평균)
예술적 우수성	의도평가	작품 주제/구성의 탁월성	78.66	76.47
	결과물의 우수성 평가	작품의 완성도 (작품 및 출연자의 테크닉적 완성도 및 작품 및 출연자 표현의 완성도 등)	79.02	76.52
	종합평가	작품의 예술적 성취 (예술적 혁신 및 참신성 등)	77.14	73.26

<표 3-38> '예술적 우수성' 에 대한 전문가 집단 평균 점수 비교

- o 전문가 모니터의 경우 비계량적 평가물(비평문 및 참관기의 평가) 반영 및 환류 방안에 대한 문제가 전문가 간담회에서 지적되었다.

제4부 공모지원 사업 모니터링 발전을 위한 제언



1. 사전평가, 집행평가, 사후평가의 유기적 관련 제고를 위한 방안
2. 집행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방안



1. 사전평가, 집행평가, 사후평가의 유기적 관련 제고를 위한 방안

공모지원 사업 모니터링 제도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모지원 사업 모니터링(집행평가)이 이전 단계인 사전평가(공모지원 심사)와 이후 단계인 사후평가(환류)와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 있도록 자리매김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공모지원 모니터링 사업은 그 동안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이제는 안정적인 제도에 올랐다고 총괄적으로 평가되지만, 공모지원 모니터링 사업이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요소 또한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사전평가(공모지원 심사)와 집행평가(모니터링 평가) 사이의 유기적인 연관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경기문화재단에서 사전평가 담당 부서와 집행평가(모니터링) 담당 부서가 분리되어 있는 점은 심사의 독립성 그리고 집행평가의 타당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겠으나, 사전평가와 집행평가 사이의 적절한 피드백이 이뤄지지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사전평가와 집행평가가 원활하게 상호 피드백 될 수 있도록 사전평가 일정과 집행평가 일정의 중복을 제거하는 방안이다. 2009년도 집행평가가 완료된 후 2010년도 공모지원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체 일정을 목적성 있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사전평가와 집행평가의 유기적 관련은 제도 정비를 통한 유기적 흐름을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람을 매개로 사전평가와 집행평가가 연관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사전평가와 집행평가 사이의 유기적 관련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셋째로, 집행평가에 2009년도는 경기문화재단, 푸른 경기 21,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가 역할 분담에 따라 관여하고 있는데, 3주체 간 협력이 더욱더 긴밀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집행평가가 사전평가 사후평가와 유기적 관련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집행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방안

경기문화재단의 집행평가(모니터링)는 제도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총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2009년도에 실시된 모니터링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집행평가의 목적은 관료적 통제가 아니라 공모지원 사업이 애초에 목적으로 삼고 있는 지원목표에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자극제일 것이다. 따라서 모니터링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관료제적 통제장치로 기법화하지 말고, 공모지원 사업의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인가의 여부를 점검하고 부족한 요소들을 채워가는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모니터링 사업의 발전을 위해 2009년도에 실시된 모니터링 사업에서 발견된 개선되어야 할 점들을 목적 대비 수단의 적절성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되어야 할 점들 ① 모니터링 수단 ② 모니터링 주체 ③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2. 1 모니터링 수단(평가지표)의 개선을 위한 제안

모니터링 수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가지표이다. 2009년도에 사용된 평가지표는 이전의 평가지표에 비해 단순화되었고, 다소 불필요한 지표 항목들이 제거되고 불명확한 표현들이 개선되었다. 2009년도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9년도에 사용되었던 지표 항목 중에서 모니터 요원 간 측정점수의 편차가 과도하게 나타나, 주관적인 견해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표항목들을 단순화,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시민모니터링 현장평가표의 경우, ‘문화예술향수 기회 확대’ 항목에서 모니터들간의 점수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항목이 다소 추상적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기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모니터링 평가 항목의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모니터링 평가가 심사단계에서 평가되었던 항목을 이중적으로 평가하는

관료제적 과정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단계의 평가항목과 심사단계의 평가항목의 중복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행정심사를 통해서 평가되어야 할 항목들이 모니터링 단계에서 중복 평가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모니터링 평가표에서 행정평가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제외 하는 방향으로 평가지표를 변경하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할만하다.

2. 2 평가주체(모니터 요원) 관련 개선을 위한 제언

집행평가는 모니터 요원에 의한 간접평가이기에 집행평가의 성과 여부는 평가 과정의 설계의 타당성,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더불어 신뢰할 수 있는 평가주체 (모니터 요원)의 확보에 의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평가주체는 집행평가 전체의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현행 모니터링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모니터 요원은 일반 도민과 전문가 그룹으로 대별된다. 일반 도민과 전문가 그룹은 모니터 과정에 참여하는 동기부터 모니터링 제도 참여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주는 집단이다.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지원목적이 지역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기에 일반 도민이 모니터링 요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또한 우수작품 창작발표 활동지원 사업이나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지원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일반 도민이 아니라 전문가 그룹이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역할 분담은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행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은 1개 사업에 2명의 모니터 요원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1개 사업에 2명이 모니터 요원이 평가하는 방식은 모니터 요원 개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기에 이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① 현재 1개 사업에 2명의 모니터 요원 평가방식에서 벗어나 최소 5명 이상의 모니터 요원이 평가하는 방법 ②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의 목적에 맞추어 모니터 요원의 간접 평가 방식이 아니라 관람객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도

고려해볼만 하다.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에 모니터링 요원으로 참여하는 도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경기도민의 사회경제적 특성 대비 성별, 연령별 편중이 매우 크다. 따라서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의 모니터링의 질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도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모니터링 그룹을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단위 조직과의 결합 뿐만 아니라 도내 대학생들을 모니터 요원으로 적극 영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간접평가 방식으로 모니터링이 이뤄지기에 모니터 요원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2009년도에 실시된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교육은 매우 부족했는데,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교육을 현재의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워크숍 형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 요원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모니터 요원들이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의 부족,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모니터 요원들에게 피드백 부족도 모니터링 제도의 개선을 위해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니터링 요원과 우수작품 창작발표 활동지원사업,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가 모니터링 요원의 특성에 부합하는 모니터링 요원 운영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전문가 집단의 경우 사전평가-집행평가-사후평가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집단의 특성을 배려한 모니터링 운영이 2009년도에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전문가 모니터집단의 경우 시민단체인 푸른경기 21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경력 모니터들을 중심으로 자치 조직을 형성하여 전문 모니터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3 평가결과의 활용

모니터링의 결과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공모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는 관료적인 절차로 전락하고 만다. 따라서 모니터링 결과가 공모지원사업

에 피드백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공모지원사업과 공모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의 정당성을 좌지우지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모니터링의 결과의 활용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분야 역시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 방안이다. 모니터링 결과를 다음 해 지원사업에서 이익과 불이익을 부여할 집단을 확정하려는 상벌적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모니터링을 통해 지원사업이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공개되고 공유됨으로써 공모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단체와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매해 공모지원사업이 공고되는 단계에서 그 이전 해의 집행평가를 통해 나타난 지난 해 공모지원사업의 성과를 공모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에게 공유되어 참조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공모지원사업의 질을 전체적으로 높이는 수단을 확보하는 것도 방안이다. 또한 모니터링에 참여한 도민 및 전문가 그룹과 해당 년도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모니터링에 참여한 도민들에게는 자부심을 그리고 전문가 그룹에게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흐름을 포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사후 제도와 절차를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부 록



1. 2009년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기공모 지원사업 심사평(요약)
2. 모니터링 대상 정기공모 지원사업 개관
3. 모니터 요원 모집 공고
4. 모니터 요원 간담회 및 심층 인터뷰 회의록
 4. 1 시민 모니터 간담회
 4. 2 전문가 모니터 간담회



1. 2009년 경기문화재단 정기공모지원사업 심사평(요약)

1. 1 문학분야(운문) 분야

박찬일(시인), 엄경희(숭실대학교 교수), 정수자(아주대학교 교수)

이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은 작품의 독창성, 참신성이었다. 따라서 내용을 진부하게 만드는 표현의 상투성이나 시대착오적 발상이 두드러진 작품은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주로 개성적 표현과 깊이 있는 내용이 잘 조화를 이룬 작품을 선정하고자 노력했다.

현대시, 현대시조, 동시 등 장르에 대한 안배는 일부러 고려하지 않았다. 장르와 관계없이 작품의 수준이 탁월한 경우면 선정하는 것으로 심사위원들이 합의했다. 표현과 내용이 모두 탁월한 작품도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상투적 서정이 반복재생산 되고 있다는 인상을 저버릴 수 없었다.

우리의 서정시 전통이 주로 자연표상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본다면 이 같은 현상은 전통의 재생산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을 고스란히 답습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낡음'이 될 위험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자연서정은 시대적 감수성과 조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통은 자신의 삶 속에 체화되고 갱신될 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다소 실험적 문법을 보여주었던 작품들의 경우 보다 도발적이고 과감한 표현이 요구되기도 했다. 모든 실험시에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해야 하는 필연적 이유가 요구된다. 표현과 정신이 하나로 결합되지 않은 언어들은 알팍한 기교에 머물게 된다. 실험적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은 표현을 견인해가는 정신의 힘이 결핍되어 있다는 점이다.

1. 2 문학분야(산문) 분야

최인석(소설가), 신수정(명지대학교 교수), 원종찬(인하대 교수)

전체 138명의 지원자 가운데 올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14명이다. 우선적으로 심사위원들이 고려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일단, 무엇보다도 작품의 수월성 여부를 가장 중시했다. 예술은 그 자체 탁월한 성취력을 기준으로 판단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이다. 둘째, 지원사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전업으로 작품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 셋째, 그 가운데 다른 지원사업을 수혜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가급적 중복수혜를 막으려고 노력했다. 지원사업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이력을 참조하는 것은 필수적인 심사과정이라고 보여진다. 넷째, 지원자 수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자 수 사이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었다. 지원자가 많은 장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다른 장르와 선정을 둘러싼 안배를 행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처에 해당되었다.

작년에 비해 지원자 수에 있어서나 지원사업 규모에 있어서나 남다른 성장을 보여준 올해의 지원사업은 문단 안팎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문학의 미래와 관련, 그 나름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보여진다. 무엇보다도 문학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본격문학에 대한 지원이 제도적으로 정착됨으로써 시장의 논리와 무관하게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많은 순수 문학인들에게 작은 위안과 격려를 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다만 보다 나은 지원사업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좋은 작품들을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규모가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램과 특화된 장르에 보다 과감한 지원을 하는 것도 지원사업의 특색을 강화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제안해 본다.

수혜자들에게는 축하를, 아쉽게 탈락한 사람들에게는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본 제도가 한국문학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1. 3 시각예술분야

김선두(중앙대학교 교수), 김영호(중앙대학교 교수), 김학량(동덕여대 교수)
양화선(작가), 유근택(성신여대 교수), 이윤희(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2009년 경기문화재단 시각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은 총395건으로 개인 영역의 사진·영상, 공예, 이론, 입체, 평면, 그리고 단체의 기획전 형태가 접수되었다. 심사를 통해 75건의 지원을 결정하였으며, 약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심사방법은 심사위원들이 1차로 선정한 자료를 대상으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심사기준은 개인전의 경우 작품의 창의성과 예술성에 중점을 두었고, 단체전의 경우는 기획의도의 신선도와 파급효과에 무게를 두었다. 또한 동시대 예술의 문맥과의 소통 여부, 서술의 진정성, 기획 내용의 구체성과 실천 가능성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따라서 단순한 동문전이나 단체의 연례행사 성격을 갖는 전시계획서는 되도록 배제시켰다. 또한 전시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새롭고 실험적인 작업을 시도하는 개인과 단체에 주목했고, 미술시장에서 이미 주목받는 작가나 안정된 직업을 가진 중견이상의 작가는 선정 대상에서 가능한 제외시켰다. 기금지원사업에서 늘상 논쟁거리가 되지만, '확실한' 기획에 몰아주느냐, 좀 더 널리 도울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확실한 기획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심사위원들은 적정한 수준에서 선정하기로 하였다.

전체를 개관하자면, 신선한 기획이나 작품들이 일부 보이긴 하였으나, 절반 이상의 기획안이 너무나 안이하고, 피상적이고 명목적인 어휘와 수사를 동원하여 불성실한 태도로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이 작가 스스로 작성한 것이었는데, 작가가 무슨 글쟁이냐고 반문하면 할 말은 없지만, 자신이 예술가로서 어떤 작업을 어떻게 왜 하는지를 타인에게 설득하려는 최소한의 성심을 읽기가 어

려왔다. 미술계에서 작업의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분들도 이제는 기왕의 작업 관행을 자료로 잔뜩 '제출'하는 태도보다는, 이번 해에 어떤 작업을 하겠노라는 계획을 좀 더 성실하고 밀도 있게 구상해서 내렸으면 좋겠다. 반면, 역량에 비해 제도의 인정을 받지 못한 젊은 작가들이 소상하게 써낸 기획안 몇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개인전의 경우, 선정기준에 따라 전업작가 위주로 선정하였고, 지명도 있는 중견 이상의 작가들의 경우는 되도록 배제하였으며, 타예술단체나 기업 등에 의해 후원을 받고 있는 작가보다는 지원금 수혜 기회가 적은 작가들을 배려하였다. 이번 심사대상으로 올라온 자료들 중 입체 분야의 작품들이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는데 반해 지원대상의 수는 제한되어 선정에 어려움과 아쉬움이 있었다. 개인전은 앞으로 상업성에 치중하기보다는 삶과 미술의 관계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드러내는 작품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해본다. 이론분야의 경우 개인에세이집의 출간 등 보다는 본격적인 학술연구작업과 학술번역작업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박사논문의 출간비 등도 배제하였다.

단체 기획전의 경우 전시의 내용이 매년 비슷한 경우가 많아 기준에 발표된 바 없는 신선한 기획을 우선으로 선정하였고, 야외미술전 등과 같이 작품제작비가 필요하고 비상업적인 전시에 지원금을 배정하였다. 연차적인 전시를 하는 단체들은 금년에는 새로운 내용의 전시를 보여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내용은 자신의 작업에 대한 자료정리의 방식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단이 정한 신청서 양식을 채우는 일은 물론이고 자신의 작품세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제작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심사는 결국 작품의 원본이 아니라 자료화된 사진 이미지나 서류를 통해 진행되기 때문이다. 2010년에는 보다 진정성 있는 기획과 창의적인 작업을 성취하는 작가들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1. 4 연극분야

이병훈(연출가, 전 용인대 교수), 임수택(연출가, 과천한마당축제 감독),
허순자(평론가, 서울예대교수), 최용훈(연출가 아르코예술극장 극장장),
이진아(평론가, 숙명여대 교수)

2009년도 경기문화재단 우수작품창작발표활동(공연분야) 지원 및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지원에 선정된 작품들에 대한 심사위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작극과 신작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예술가들의 창작 의욕을 진작시키고 새로운 작품에 대한 창의적 실험을 고무하기 위해서는 창작극 및 신작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응모된 많은 작품들 중 상당수가 재공연이거나 기존에 공연하여 성공했던 희곡 작품에 대한 공연인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경우에도 새로운 시도나 해석을 하려는 의도보다는 다소 간 안일한 태도로 작품에 임하려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예술가들이 새로운 실험과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여겨져 창작극과 신작 공연에 대한 지원에 우선권을 두게 된 것이다.

둘째, 단체의 수행 능력 및 지나온 작업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였다. 서류상 아무리 훌륭한 제작 의도와 연출 방향이 설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가 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나온 작업들에 대한 평가를 고려하는 동시에, 인터뷰를 통해 제작하려는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 단체의 수행 능력을 평가, 반영하였다.

셋째, 작품 및 단체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 및 완성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창작자가 현재의 위치에 머무르지 않고 그 스스로와 자신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 진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실천 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특히 고려하여 선정 작품 결정에 반영하였다.

넷째, 지원 단체의 지역문화 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였다. 예술작품의

미적, 예술사적 기여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작품과 관객과의 소통 및 사회적 공공성일 것이다. 단체의 작품이 예술적 완성도의 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사회의 문화적 토양과 구성원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하다면, 이러한 점 또한 높이 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위에서 설명한 네 가지 선정 기준을 고려하여 장고와 토론을 거듭한 결과, 우수작품창작발표활동 지원 분야에서는 총 5개의 작품이,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사업에서는 총 13작품이 선정되었다. 이 중, 작품의 미적 완성도 뿐 아니라 해당 작품과 단체의 예술적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실험과 노력이 엿보이는 1개 단체(예술무대 산), 또 최근 왕성한 창작 의욕을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신작을 발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실험을 통해 무대 언어와 무대적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1개 단체(4관객프로덕션)에 대해서는 올해 다소간의 집중 지원을 결정하였다.

선정된 단체 모두에게 축하와 함께, 어려운 공연예술계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현장 작업을 해나가는 예술적 투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좋은 작품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1. 5 무용분야

김기인(안무가 서울예대 교수), 안성수(안무가), 전미숙(안무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문 영(국민대 무용과 학장), 박성혜(무용평론가)

전반적으로 지원 대상 작품들의 기획 의도와 실질적인 진행 상황의 여부, 해당 단체의 활동 상황과 내용, 예술적 성취 정도를 선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여기에 기존 중진 이상의 무용가들보다는 젊은 안무가들 및 단체에게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도 추가되었다. 또한 경기 지역에서의 공헌도와 단체와 개인의 향후 가능성, 지역과의 유기적 연계 등도 적극 검토되었으며 우수한 작품을 적극 소개, 경지지역의 전반적인 문화 향수권 향상도 고려하였다.

하지만 지원 단체들 중 상당수가 모호한 기획과 과장된 예산 편성, 작품 설명에 있어 주관적 개념 난발, 고민없이 진행하는 일괄적이면서도 개성 없는 형식의 반복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예를 들어 대중성에 대한 주관적 판단과 근거로 자신의 작업에 대한 경제성, 기여도, 접근성 등을 추상적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모호한 접근은 작품 기획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단초가 되기도 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특징은 한국무용의 저조였다. 전반적으로 지원 신청수가 타 장르에 비해 절대적으로 저조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이 재공연인 경우가 많았고 혹은 단순한 전통춤 공연과 같이, 지원 성격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 등이 많았다.

따라서 작업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도와 독특한 작업 방식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추구하는가와 적극적인 관객개발 가능성과 적용 여부, 경지 지역의 전반적인 문화 수준 향상에 이바지 하는 정도를 주요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양평 바탕골예술관의 <양평은 춤춘다>의 경우, 미술관과 연계되어 있는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일반 대중의 접근의 용이함을 높인다는 점과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작품들을 제공한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서울발레시어터와 유니버설발레단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인 공헌도와 경기 지역에서의 양질의 작품으로 경기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수권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외에도 해외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우수한 성과와 평을 얻은 작품(댄스컴퍼니 무이의 <네가지 빗깔>), 지역 문화의 활성화를 꾀하는 기획 프로그램(한국미래춤학회) 등 역시 긍정적인 경우로 꼽을 수 있겠다.

몇몇의 우수 단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올해의 경우 지원 사업 신청내용이 저조했을 뿐 아니라 기획 및 작품의 참신성이 부각되는 사업이 적어 전체 심사에 다소 어려움 있었다. 따라서 보다 도전적인 실험과 모험이 따르는 작업과 적극적인 예술성 함양을 위해 무용인들의 진취적인 시도와 노력이 함께

진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1. 6 음악분야

황성호(지휘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민인기(수업시립합창단 지휘자),
왕치선(음악평론가), 이나리메(작곡, 음악평론가)

공연의 완성도, 작품의 예술적 수월성, 예산 수립의 합리성 및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선정기준으로 삼았으며, 동일한 조건인 경우 경기지역의 단체가 성장 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자생력이 있다고 사료되는 일부단체는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중점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심사자료 제출의 충실도, 공연장 대관 확정 여부, 공연 레퍼토리(프로그램) 및 신작 창작곡에 경우에 악보 등 이었다. 이를 통하여 준비하고 있는 공연에 대한 계획 및 진행 상황을 검토하였으나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전체 계획이 부실하거나 제출 자료가 미비하여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계획 수립 시 공공기금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 만큼 지원 단체나 개인은 공적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 의식에 대한 재고를 바라며 차후에는 이러한 점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1. 7 국악분야

임진옥(수원대교수, 대금), 송혜진(숙명여대 교수, 이론), 현경채(국악평론가),
주재연(전통연희, 난장컬처스 대표), 전지영(국악평론가, 국악방송)

2009 경기문화재단 우수작품창작·발표활동 국악분야에는 전년도에 비해 8건이 줄어든 38건의 개인 및 단체가 지원했으며,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는 전년

도에 비해 19건이 늘어난 60건의 개인 및 단체가 신청했다. 언제나 그렇듯이 신청단체는 많고 지원금액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을 통한 객관적인 심사가 요구되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2단계 심사과정을 거쳤다.

우수작품창작·발표활동에는 서류심사에서 8건의 개인 및 단체를 선발했으며, 심사는 재연공연보다는 창작물로서의 가능성 및 작품의 우수성에 초점을 맞추어 심사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역시 서류심사에서 8개 단체가 선발되었는데, 우수작품창작·발표활동과 달리 창작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무대공연 작품으로서 얼마만큼 완성도를 갖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인터뷰를 통해 최종적으로 14작품을 선정하였다.

심사시 항상 고려되는 사항인 지역배분 또는 지역안배라는 부분은 이번심사에서 특별히 고려 하지는 않았다. 이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실시한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금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보았고, 전문예술 또는 창작활동이라는 본래 취지에 지원을 집중하자고 심사위원들은 의견을 모았다.

<우수작품창작·발표활동> 인터뷰심사에 응한 8건의 개인 및 단체에는 공연과 음반제작 등이 혼재되어 있었다. 특히 고양 들소리 보존회의 ‘제2회 도깁대감 지신놀이’ 공연이나 경기도 도당굿 보존회의 ‘경기도 성주굿의 음악’의 경우 전통의 무대공연화 라는 취지에서 기대를 모았고, 다만 ‘안옥선의 두 번째 소리 현(絃)’의 경우 공연내용과 완성도에 대한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최종 선정에서 아쉽게 탈락되었다. 따라서 총 7건의 단체 및 개인에게 지원 금액을 배정하였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흡족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경기지역 전통음악 저변확대를 위해 효율적인 쓰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에 응한 8건의 개인 및 단체 중에서 실버트레인의 ‘인당수’의 경우 기획된 내용은 좋았으나 기획사와 연주단체간의 사전 기획 및 공감대 형성이 불성실하여 아쉽게 탈락했다. 경기청소년국악단의 기획창극시리즈 ‘놀부와 놀다’는 경기도내 악단으로서의 전문성과 작품완성도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진 국악인에 대한 사기를 북돋워 활성화를 기대해보기로 하였다. 따라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도 총 7건의 개인

및 단체가 최종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었다. 우수작품창작·발표활동에 비하면 비교적 많은 지원금을 지원하였으며,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집중지원의 성격이 어느 정도 있었다.

한편 면접심사에 있어서 지원금 신청서에 명기된 단체 대표나 사무담당자가 오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부득이한 경우도 물론 있었지만 가능하면 대표가 직접 인터뷰에 응하려는 의지의 부족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전반적으로 2009 경기문화재단 우수작품창작·발표활동 및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에는 지역안배 측면보다는 작품성과 공연물로서의 가능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으며, 나열식 공연을 지향해온 사업들이 대거 탈락하고 그동안의 활동력과 음악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개인 및 단체들 위주로 선정되었다. 그렇다보니 공연장소 역시 경기도 외곽지역이 아닌 서울 외곽의 신도시들이 많았으며, 이는 역으로 경기도 외곽지역 국악단체들의 변신과 자기계발 노력에 대한 요구 및 그 지역 국악저변을 위한 또 다른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 8 다원분야

조동희(과천한마당축제 기획실장), 김소연(연극평론가, 다원예술 소위원회),
김남수(무용평론가, 백남준 아트센터), 이대범(미술평론가)

2009년 무대공연제작지원사업 다원예술분야 지원사업의 면면에서 예술가들의 폭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다원예술’에 대한 창작자들의 자기 고민이 좀더 진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다원예술의 개념 등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혼란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도리어 자신의 작업에 대한 분명한 인식, 다원예술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원 심사는 지원서라는 텍스트에 기반한다. 따라서 자신의 작업을 언어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상적 어휘로 가득한 작품 설명은 오히려 스스로에게 독이 될 수 있다. 물론 복잡한 구조를 가진 작업을 몇 단어로 요약하여 제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악이 나오면 전통이고, 거리로 나가면 대중과의 소통이라는 식의 논리는 자신의 작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몇몇 주목할 만한 지각변동이 엿보이기도 하였다. 다원적 개념주의라고 해야 할까, 단순히 몇 개의 장르나 매체를 결합시키는 기계적 방법이 아니라 그 결합된 동심원의 파문이 사회적 울림으로 확장될 듯한 방법이 나타났다.

심사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있었다. 우선 단순한 장르의 혼합으로 다원예술에 접근한 사례가 다수 있었는데 상이한 장르의 나열이나 기존 장르예술의 (단순한) 상업적 대중적 변형에 머무는 경우는 선정작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그간 일정한 활동과 성취를 보여준 경우에도 기존 작업의 관성을 넘어서고 있는가도 심의에서 주요하게 살폈던 기준의 하나다.

최종 결정에서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제시한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다원예술 분야의 목적이나 특성을 감안하여 젊고 새로운 작업에 주목했으며,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한 실험적인 작업, 공간의 사용이나 관객과의 매개방식이 독특한 작업 등을 주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특정 장르의 경향이 짙은 사업은 가급적 배제하고자 했다.

<‘오감’ 북경반점>(고충길)은 다장르 퍼포먼스 작업이다. 기존의 작업들에서 보여준 시도가 이번 작업을 통해 좀 더 진전되기를 바란다. <2009 가족마임 콘서트 12월의 푸른 밤>(강용구)는 ‘마임’이라는 특정 장르 사업이지만 광명 지역 커뮤니티와의 다양한 작업, ‘몸으로 하는 연주’ 등 비전문인들의 참여 등에 대한 기획을 주목하기로 했다. <원형 Archetype>(공연예술치료연구회)는 전문공연자와 아마추어의 협업, 공연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시도 등으로 주목받았던 단체이다. 그러나 좀더 진전된 시도를 보여주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이번 작업에서 기존 작업의 관성을 극복하길 바란다. <시퍼포먼스 '늑대의 옷'>(비주얼써어터컴퍼니 꽃)은 기존 작업을 정리하면서 그간 ‘극장’ 밖 공간에 대한 탐색에서 ‘극장’에 대한 탐색으로 전환하는 작업이다. 공간의 탐색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는 논란이 있었다.

<Hello 0>(서현석)은 지난 해 이 분야 지원사업 중 가장 주목되는 성과를 보여준 <F.A.T. Show <삼겹살>>(홍성민 컴퍼니)의 연출자의 작업이다. 이번 작업에서도 의미있는 성취를 이루길 바란다. <소녀이야기3 - 두번째 세계>(창작집단 Inter gate)는 미디어 퍼포먼스 작업이다. 스토리텔링과 인터랙티브 테크놀로지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최근 일련의 미디어 퍼포먼스와 궤를 같이 한다. 신생팀이지만 테크놀로지에 대한 경도를 경계하고 아날로그적인 감수성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는 점 등이 주목되었다. <야외극 '다시 돌아오다 - come back again'>(극단 몸풀)은 거리를 변형하는 대규모 퍼레이드형 거리극으로 국내 창작팀으로서 최초의 시도라는 점을 주목했다. <소통을 위한 매개 퍼포먼스 '투명한 고통'>(임민옥)은 일련의 다큐멘터리작업에서 보여준 문제의식을 퍼포먼스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지원사업을 경기도 지역과 일반 지역으로 구분했을 때, 각각의 지원사업들의 경향에서 적잖은 차이가 있었다. 경기 지역의 지원작들의 경우 우선 지원사업 신청이 서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가 단순한 장르나 열에 머물거나 기존의 사업들에서 진전된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사업들이 다수 있었다. 공모사업의 특성상 사업들의 경쟁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반면, 여러 가지 관점이 고려되는 관계로 지원작품을 선정하기가 만만치 않았다.

예술이 좀 더 불안스런 대위법으로 현실과 마주치는 것, 예술의 결과물을 배설물 다루듯 해석하기보다 하나의 요동 운동이 발생되기까지 실재적 과정을 실행하는 것, 그것이 다원예술의 실험성이 아닐까. 올해 경기문화재단 다원예술 지원자들의 작품에서 그런 다원예술의 새 국면이 펼쳐지기를 자못 기대한다.

2. 모니터링 대상 공모지원사업 개관

구분	지원사업 수	모니터링 대상 사업 건 수	연구대상 사업 건수
지역문화 예술활동 지원사업	404	150	115
우수작품 창작발표활동 지원사업	135	98	71
무대공연 작품제작 지원사업	50	50	41

2. 1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공모지원사업의 총건수는 404건이며 그 중 모니터링 대상 건수는 150건, 실시 완료된 사업은 출판사업 또는 사업자 측 상황으로 탈락된 23건을 제외하여 127건이다. 이 127건 중 모니터 요원 평가표 미제출(모니터 2인 중에 1인이라도 모니터링 실시 한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로 인해 12건이 제외되어 115건이 연구대상사업건수에 해당한다. 모니터링 대상사업기준에서 누락된 35건의 누락 사유는 아래 표의 비고란에 기호로 별도 표기하였다. (기호설명 - ① : 사업일정변경 및 사업취소 ② : 모니터링활동 이전에 진행 ③ : 모니터요원 미선정 ④ : 모니터요원평가표 미제출 ⑤ : 출판사업 ⑥ : 기타)

번호	시군	사업명	일정	장소	단체명	지원모니터		비고
1	가평	제5회 화악산도자기축제 -화악리마을한마당	10.31~11.1	현대도예 문화원	현대도예문화원	이정현	이예원	③
2	가평	그음공간	3~11	실악면 위곡리	그음공간	조미란	한웅	
3	고양	다문화, "모두 다 우리"	10.21~12.23	어린이도서 관 책놀이터	어린이도서관 책놀이터	맹인경	김옥석	

■ 2009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기공모 지원사업_모니터링 결과보고서

4	고양	제2회 애니골 통기타 축제	8.29~30	어울림누리	고양클래식기타 합주단	이희전	김순환	
5	고양	생명의 터 - 2009 아트그룹 자유로의 화두 '장항습지'	7.1~7.15	롯데 아트 갤러리	아트그룹 자유로	김성이	이영숙	
6	고양	10주년기념 "리틀아철편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8.11	고양어울림 누리	리틀아철편 오케스트라	맹인경	김옥석	
7	고양	FUN 뻘한 댄스 교육 및 실천 프로그램진행	7.21~10.30	고양어울림 누리	수레바퀴재활문 화진흥회 경기지부	김성이	이영숙	
8	고양	고양시 장애인 애니메이션 교육	3~12	장애인정보 화교육센터	경기도장애인정 보화협회 고양시지회	조미란	한웅	
9	고양	서울기타파르텟 happy concert	8.22~30	일산, 고양,성남	서울기타파르텟	맹인경	채창희	
10	고양	제2회 선공감 김감역 호상상여소리 발표회 "춘몽(春夢)"			선공감 김감역 호상상여소리 보존회			①
11	고양	소극장 상설공연 - 동동	6.20	풍물놀터 소극장	풍물 '놀터'	조미란	한웅	
12	고양	푸르미 창작공간에서 작가를 만나다 3	11.19~12.25	푸르미 창작공간 전시실	푸르미 창작공간	김옥석	김세희	
13	고양	헤덴의 생명나무 음악회	12.5	레드디메션	라이프트리	맹인경	김옥석	
14	고양	무명씨 콘서트 "루터 블리셋을 위한 비나리"	12.11~13	고양 아람누리새 라세극장	(사) 문화마을 들소리	맹인경	김옥석	
15	과천	재인칭춤판	6.19	과천 시민회관	우리춤연구회	공복순	김병규	
16	광명	제7회 빛이 머무는 곳 흑백(monotone) 사진전	12.9~13	광명 시민회관	포토클럽 "빛이 머무는 곳"	공복순	최은심	
17	광명	협주곡의 밤	7.22	광명 시민회관	광명 청소년 교향악단	이혜영	공복순	
18	광명	마음, 몸짓으로 통(通)하다!	10.27~29	광명문화원 하안극장	몸짓곳 STUDIO	최성님	공복순	④
19	광주	제3회 광주문화원 사진동우회 작품전시회	10.17~18	청석공원	광주문화원사진 동우회	홍민자	안미애	
20	광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전통문화 지킴이	8월	향림도예	향림도예	홍민자	안미애	
21	광주	2009 광주예술극장 연말기획공연 '연극, 그리고 Jazz & Rack'	12.5~12.30	광주 예술극장	광주예술극장	이미자	오일순	

22	광주	남한산성 여름밤 축제	8. 8	남한산성 남문주차장	산성리 새마을회	채창희	이정희	
23	구리	가족사랑 클래식 기타연주회	5. 31	인창 중앙공원	구리 기타양상블	이해안	김남신	
24	구리	구리시 여성 합창단 야외 음악회	9. 19	왕숙천 야외무대	구리시 여성합창단	오일순	이미자	
25	구리	고구려 온달 축제	10. 6	구리시고구 려대장간	고구려 온달보존회	오일순	이미자	
26	군포	가족과 함께하는 "교과서 음악여행"	11. 24	군포문예회 관 소공연장	(사)한국음악협 회 군포시지부	공복순	이혜영	
27	군포	수리시 낭송회	7. 9	군포 중앙도서관	수리시 낭송회	공복순	오은주	
28	군포	2009 군포 동네농악 발표회	10. 10	산본 중심지역 분수대광장	(사)한국국악협 회 군포지부	이정희	이혜영	
29	군포	YMCA 문화학교 "그린나래"	3~10	우만종합사 회복지관	군포YMCA	최은심	이혜영	
30	군포	제9회 디딤돌문화제	9. 12	군포문예회 관	(사)디딤돌문화 예술원	이희경	공복순	
31	군포	SK벤티움 상시 미술전시회 및 문화예술공연	1~12	SK벤티움	SK벤티움 입주자대표회의	고준자	공복순	
32	군포	제3회 수리 창작 뮤지컬 인큐베이팅 페스티벌	9. 3~5	군포 문예회관	(사)한국연극협 회 군포지부	이향승	송성화	
33	김포	09 노나메기 가을걷이 풍물마당	11. 15	월곶면 군하리 5일장터	풍물패 노나메기	김성이	이영숙	
34	김포	해설과 함께 하는 뮤지컬갈라쇼	8. 15	사우문화 체육광장	(사)한국연극협 회김포시지부	조미란	한웅	
35	김포	제4회 김포마을 공공미술 프로젝트-미술관 만들기	10. 23~29	신안2리 일대	(사)한국미술협 회 김포지부	이영숙	김성이	①
36	김포	김포신도시개발에 따른 사라져가는 자연과 모습들 전시회	11. 11~14	김포 시민회관	김포사진동우회	김성이	이영숙	
37	김포	제5회 김포농수로벚길축제	9. 12~13	사우동, 고촌면	김포농수로 축제위원회	김성이	이영숙	
38	남양 주	제20회 구남전	10. 27~11. 4	구리인창 도서관내 구리아트홀	구리남양주 미술교사회	오일순	이미자	
39	남양 주	책과 만나는 가을음악회	9. 4~10. 30	남양주시 진건도서관 외	스피릿양상블	이해안	김남신	

■ 2009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기공모 지원사업_모니터링 결과보고서

40	남양주	마을 미술인과 주민이 함께 디자인하는 공공의 터1	5~10	조안씨앗 도서관	북한강변 미술인모임	이해안	김남신	
41	남양주	제2회 바댕이 축제	8.29	와부 행정타운	바댕이용왕제 추진위원회	오일순	이미자	
42	동두천	2009 전통문화나들이 '낙양 동천 이화정'	10.17	차없는거리	동두천시 봉산탈춤회	박경미	조미란	
43	동두천	동두내 옛소리 제5회 정기공연 및 제17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대상수상 기념공연	10.18	소요산 야외음악당	동두내 옛소리 보존회	임현숙	박주연	
44	동두천	제10회 동두천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0.31	아름다운 문화센터	동두천청소년 오케스트라단	임현숙	박주연	④
45	동두천	제19회 동은서 도회전	10.9~22	동두천시 청사전시실	동은서도회	임현숙	박주연	
46	성남	제3회 2009 희망세상 열쑤!	9.20	남한산성놀이마당	터사랑 청년회	오일순	이미자	
47	성남	사진의 재발견 - 통(通)통(通) 튀는 아줌마들의 세상이야기	9.24~11.28	성남시 상대원동	성남미디어 공동체 놀봄	채창희	공복순	
48	성남	2009년 찾아가는 내 고장 역사문화교실	4.16~11.15	성남시 관내 학교	성남문화원	박인경	채창희	
49	성남	분당여성합창단 제16회정기연주회			분당여성합창단			①
50	성남	'영장 노인 문화학교'	3~11	태평4동 노인정	문화예술교육터 '꿈'	박인경	채창희	
51	성남	2009 풍물한마당 퓨전마당극 '두레열전'	10.25	울동공원 야외공연장	(사)한국농악 보존협회 성남지회	이혜영	홍민자	
52	성남	도시에 핀 들꽃전	6.6~6.15	성남 아트센터	들꽃미술가회	박인경	채창희	
53	성남	째즈와 사물놀이의 크로스 오버	11.8	수정구청 소년수련관	맹원식 째즈 빅밴드			③
54	성남	제11회 성남서예가총연합회전 - 書藝動向	11.18~26	성남아트센터 미술관	성남서예가 총연합회	이희경	채창희	
55	성남	코리아주니어빅밴드와 Jazz Comder t	12.6	성남아트센터 앙상블 씨어터	코리아주니어 빅밴드	채창희	박인경	
56	성남	장애인과 함께 하는 여름의 하모니	8.21	성남 아트센터	성남청소년 오케스트라	채창희	오일순	
57	성남	성남지역 독립운동사 재조명 학술회의	8.15	울동공원	성남 3.1운동 기념사업회	채창희	박인경	④

58	성남	"환경과 미술의 만남"전	6.4~9	성남여성 문화회관	자유 미술 그룹 in	박인경	채창희	
59	성남	We Love Seongnam 기념음악회			한국음악협회 성남지부			①
60	성남	2009 성남 국제 인큐베이팅 아트쇼	10.27~11.6	성남아트 센터 본관	분당미술제 운영위원회	송성화	이향승	
61	성남	후개념현장미술-시장전 <오!재美난 시장>	10.17	상대원 3동 상대원시장	바셀린 프로젝트	채창희	이정희	
62	수원	수원원 한가위 어울림 한마당	7.6~9.29	금호동 상촌초교	서수원공동육아 협동조합 외 1	이혜영	이정희	
63	수원	수원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클래식기타 대향연	8.8	장안 구민회관	수원기타 오케스트라	이희경	김흥환	④
64	수원	청풍 정기공연	11.8	장안 구민회관	청소년풍물단 청풍	이혜영	이정희	
65	수원	클래식 입문 청소년 음악회	11.21	수원청소년 문화센터	수원청소년 오케스트라	김병규	고준자	
66	수원	나혜석 생가거리 미술축제	6.30~7.5	수원행궁길	행궁길 발전위원회	김병규	고준자	
67	수원	수원시민과 함께하는 만들린 음악회	9.21	경기도 문화의전당	심우만돌린 오케스트라	공복순	최은심	
68	수원	제9회 종고제 판소리 공연	11.30	경기문화재 단 다산홀	한국종고제 판소리보존회	최은심	이혜영	
69	수원	카르디아스 플루트오케스트라 제 14회 정기연주회	10.24	경기도 문화의전당	카르디아스플루 트오케스트라	최은심	공복순	
70	수원	2009 재수원 음악인 연주회	6.8	경기도 문화의전당	(사)한국음악협 회 수원시지부	이정희	이혜영	
71	수원	황구지천 사진전 및 하천기록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	12.18~21,30	수원	수원환경 운동센터	이해안	김남신	
72	수원	청소년 거리문화 축제 'Youth Dream Festival'	4~11	수원시내	수원YMCA	조미란	고준자	
73	수원	도토리교실 생태 문화교실 운영	3~11	칠보산 도토리교실	칠보산 도토리교실	김병규	최은심	
74	수원	이제 영상으로 말하자! 우리 마을 이야기	4~10	수원시 관내 주민지원시설	수원시민영상 모임 '창빛'	고준자	김병규	
75	수원	장애우를 위한 수원시 어머니 합창단 자선음악회	12.21	수원청소년 문화센터	수원시어머니 합창단	이정희	최은심	
76	수원	겨울, 봄, 여름, 가을(사계절)	9.21	경기도문화 의전당	장정희 한국춤 연구회	이혜영	고준자	

■ 2009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기공모 지원사업_모니터링 결과보고서

77	수원	우만3단지의 행복 열매 맺는 문화 씨앗 키우기	1~12	우만종합 사회복지관	우만종합 사회복지관	최은심	양애리	
78	수원	수원시민과 함께하는 전통무용의 향연	8.27	경기도 문화의전당	서순경무용단	이정희	이혜영	
79	수원	수원청소년문화센터 공공예술프로젝트	10.31~11.7	수원청소년 문화센터	사)한국조각가 협회 수원지부	최성님	최은심	④
80	수원	2009 "사랑의 '孝' 가요무대"	10.22	수원청소년 문화센터	(사) 문화예술진흥회 수원지부	이혜영	이정희	
81	수원	제14회 수원화성백중제	8.29~30	수원제10아외 음악당, 삼호 아트센터	사단법인 전통예술원 우리소리	최은심	이정희	
82	시흥	내고장 전설을	4~12	시흥시	시흥YMCA	김병규	고준자	
83	시흥	희극 오페라 '마님이 된 하녀'	11.29	시흥시 아트센터	시흥오페라단	이혜영	이정희	
84	시흥	제15회 정기연주회 "시와 음악이 흐르는 가을이야기"	10.21	군자 중앙교회	밀레니엄심포니 오케스트라	이향승	송성화	①
85	안성	장애아와 함께하는 어깨동무 도예교실	5~8	안성 시민회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 부모회 안성지부	조미란	한웅	④
86	안성	함께 만들어요 평화의 조각보	5.1~10.30	각급 학교	대안미술공간 소나무	김병규	고준자	
87	안성	아름다운 공원 만들기	4~11	환경의날 행사장	푸른안성맞춤 21실천협의회	김병규	고준자	
88	안성	극단 서라벌 정기공연작 "뽕꾸기 둥지"			극단서라벌			⑥
89	안양	안양문화원 신축 기념 및 주부민속단 정기공연	10.17	안양문화원 공연장	주부민속단	최성님	이희경	
90	안양	미술을 통한 시민과의 만남전(제6회 소울음전)			장애인그림공간 소울음			①
91	안양	"애들아, 동화랑 놀자"	3~10	시립도서관	안양나눔여성회	양애리	공복순	④
92	안양	'재즈의 역사 100년'	5.30	평촌 아트홀	코윈스빅밴드	이승이	황성환	
93	안양	지역시민을 위한 창작극 '배웅'	12.16	대림대학교	극단 '무 아 몽'	오은주	양애리	
94	안양	방타 타악기앙상블 제 4회 정기연주회	11.29	평촌 아트홀	방타타악기 앙상블	송성화	이희경	
95	안양	만안교 오픈 페스티벌 -	3.30~8.31	만안교 외	스톤앤워터	조미란	한웅	④



96	안양	안양문화예술벨트 조성 4차선 삼덕공원_종이 FESTIVAL			문화예술발전소			①
97	안양	제 12회 추석맞이 국악한마당	9.24	안양평촌 아트홀	사단법인 한국경기소리 민요보존협회	송성화	이향승	
98	양주	제9회 양주지부회원전 및 테마전	9.10	양주문화원/ 신탄리역	(사) 한국미술협회 양주지부	김흥환	임현숙	
99	양주	제5회 (사)한국국악협회양주시지부	11.13	양주 문예회관	(사) 한국국악협회 양주시지부	김옥석	장웅기	
100	양주	제3회 양주들노래 정기공연	10.18	회천 3동 봉우공원	양주들노래 보존회	임현숙	박주연	
101	양평	맑은 물 사랑 22회 양평사진동우회전	11.14~20	맑은물사랑 미술관	양평사진동우회	공복순	한미희	
102	양평	제 4회 양평국악인의 날	10.24	양평주말장 터	(사) 한국국악협회 양평지부	한미희	이근영	
103	양평	우리면 친환경농산물자랑과 국악한마당	10.28	금왕리 한수문화원 및 양동면내	국악한수	조미란	한웅	
104	양평	경기소리의 향연	11.3	양평 군민회관	(사)한국경기 소리보존회 양평군지부	이정현	오일순	④
105	여주	아이랑 손에 손잡고 떠나는 문화탐방	6.24~7.29	여주관내 미술관 및 박물관	여주 원광 지역아동센터	이정희	이혜영	
106	여주	예술의 바깥마당 - 그냥 놀자 영구야!	8.8~8.9	금모래은모 래유원지	(사)한국민족 예술인총연합 여주지부	한미희	이선영	④
107	여주	다문화로 가는 징검다리 축제	9.24~27	여주도자기 엑스포 행사장	여주이주민 지원센터	조미란	한웅	
108	연천	그리고 문학회 동인지 '놀란흙' 11집 출간 및 시화전	10.13~11.13	그리고 문학회	연천 '그리고문학회'	박경미	조미란	①
109	연천	제10회 민통선예술제	9.11~12	석장리 조각공원, 백학면안보 교육관일대	민통선예술제 조직위원회	김흥환	한정순	
110	오산	"불휘" 창단공연	5.31	오산 문예회관	예술단 五山	전효순	이기원	
111	오산	이주민이 만드는 지역문화축제	12.13	오산남부중 합사회복지 관	오산이주노동자 센터	이정희	이혜영	

■ 2009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기공모 지원사업_모니터링 결과보고서

112	오산	브라보 시니어 페스티벌	11.18	한신대학교	한국국악협회 오산지부 민요분과	이정희	최은심	
113	오산	發光 터울지기 전통문화예술체험학교	3~12	터울림 예술단	(사)터울림 예술단	양애리	고준자	
114	용인	걸어서10분 작은 도서관 마을축제 '인형극, 그림자극, 영상그림동화'			용인시 작은도서관 협의회			①
115	용인	용인여성문화회 14집 발간 및 순회시화전	9.19~11.7	용인 시립도서관	용인여성문화회	최은심	한미희	
116	용인	피그마리온의 조각들	6.20	동백지구 호수공원	황문숙 현대무용단	양애리	채창희	
117	용인	창작극 - 매소성으로	6.18	용인시여성 회관	극단개벽	이정희	이혜영	
118	용인	2009 "Loves Big Concert "	11.19	용인 여성회관	용인시 교향악단	이정희	최은심	
119	의왕	의왕문화원 소년소녀 합창단 정기연주회	11.13	의왕문화원 3층 대강당	의왕문화원	이희경	공복순	
120	의왕	2009 순회공연 '헬로베비장'	5.27~5.29	의왕노인 복지회관	극단의왕97			③
121	의왕	의왕 국제플래카드아트 페스티벌 2009			한국미술협회 의왕지부			①
122	이천	찾아가는 청소년 교향악 음악회	7~10	문화 소외지역	이천YMCA	김병규	고준자	①
123	이천	'수험생을 위한 음악선물'	12.15	이천아트홀 소극장	이천시 레이디스앙상블	조미란	한웅	
124	이천	제6회 이천거북놀이축제	9.26~27	설성면 수산 2리	이천거북놀이보 존회	한미희	이근영	
125	이천	이천 조각가 협회전	12.5~12.14	이천아트홀	이천조각가협회	한미희	이근영	
126	파주	"코리아 목관앙상블 2009 연주회 "	11.15	파주 평화원	코리아 목관 앙상블	김옥석	김세희	
127	파주	2009 태평 12지 놀이			한국국악협회 파주지부			①
128	파주	New Wave 2010 'Beyond Image'	11.21~12.31	Gal lery MOA	Gal lery MOA	김옥석	김세희	
129	파주	소박한 거리 음악회	9.13, 19, 20	헤이리 마을 내	사단법인 헤이리	김옥석	김세희	
130	파주	신나는 영상 만들기! 찾아가는 클레이 애니메이션			사단법인 이시대의 좋은소리			①
131	파주	파주시민과 함께하는 미래 춤 한마당	11.6	통일촌 소외지역	한국무용협회 파주지부	김세희	맹인경	
132	평택	평택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박성실 무용단공연 '꿈의 궁전의 춤2'	8.29	남부문예회 관 대공연장	박성실무용단	공복순	오민정	④

133	평택	제10회 평택교원미술 "벽을 넘어서"전			평택교원 미술연구회			①
134	평택	푸코윈드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가족음악회	12.5	안중 문예회관	푸코윈드 오케스트라	김병규	고준자	
135	평택	제10회 정기회원전	5.29~6.2	남부 문예회관	평택사진동우회	오민정	문복남	
136	평택	제4회 정기공연 장애우와 함께	8.28	평택 북부 문예회관	전통타악연희단 신아리	이혜영	오민정	④
137	평택	세상속으로 하나되어	4~12	장애인회관	평택시 장애인부모회	조미란	한웅	
138	평택	신나는 마을축제 '흥겨운 단오제'	6.13	현화리 늘푸른공원	재단법인 한국방정환재단 외 1	오민정	문복남	④
139	평택	(사)한국전통민요협회 평택시지부(한소리에술단) 정기공연			(사)한국전통민 요협회 평택시지부 (한소리에술단)			①
140	평택	소외된 사람들의이야기 셋 - 뮤지컬 70古G0 전태일			평택연극패 시울			①
141	평택	소리야 소리야	12.23	북부 문예회관	(사)한국경기소 리보존회 평택지부	이혜영	공복순	
142	포천	포천시민을 위한 공연 소리 그리고 몸짓3	7.2	포천반월 아트홀	(사)한국무용협 회 포천시지부	조미란	한웅	
143	포천	나무이야기	7.7	포천반월 아트홀	극단맑은물	이해안	김흥환	
144	포천	포천문화원 문화학교 작품전시 및 공연발표	12.10	포천반월 아트홀	포천문화원	조미란	한웅	
145	포천	제5회 포천별곡 영평팔경가 공연	11.5	포천반월 아트홀	사)한국경기소 리보존회			③
146	화성	어린이책과 함께하는 놀이 한마당	10.16~17	병점 도서관	(사)어린이도서 연구회-화성동 화읽는어른	최성남	이혜영	
147	화성	문학 선생의 춤 세계 "원형이정(元亨利貞)"을 찾아서	4~10	발안 초등학교	화성문화원	조미란	한웅	
148	화성	어르신을 위한 작은 문화공연	9.26, 10.10	병점지역 경로당	화성열린문화터	고준자	김병규	
149	화성	현대화에 조형탐구전			그룹 현대화에조형			①
150	화성	뱅곳이 품앗이 축제	7.22~7.26	화성시 이화3리	민들레 놀이극 연구소	이혜영	이정희	

2. 2 우수작품창작발표활동 지원사업

	시각	연극	무용	음악	국악	계
모니터링대상사업	75	5	4	7	7	98건
사업실시완료건수	67	5	4	5	7	80건(-8출판)
연구대상사업건수	52	5	4	5	5	71건

공모지원사업의 총건수는 135건이며 그 중 모니터링대상 사업 건수는 문학 37건을 제외하여 98건, 사업기간내 (모니터링 실시 기간인 2009년 5월~12월) 교부신청서를 배부 받아 실시완료된 사업 건수는 출판사업 8건과 사업자 측 상황으로 탈락한 10건을 제외하여 80건이다. 이 80건 중 모니터 요원 평가표 미제출 (모니터 2인 중에 1인이라도 모니터링 실시 한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로 인해 9건이 제외되어 71건이 연구대상사업건수에 해당한다. 모니터링 대상사업 기준에서 누락된 27건의 누락사유는 아래 표의 비고란에 기호로 별도 표기하였다. (기호설명 - ① 사업일정변경 및 사업취소 ② 모니터링활동 이전에 진행 ③ 모니터요원 미선정 ④ 모니터요원평가표 미제출 ⑤ 출판사업 제외)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장소	대표	비평가	관련분야	비고
1	매듭장 정봉섭의 장신구전	12.16~12.22	서울 보나박물관	정봉섭	박은주	김동규	
2	화각공예 그 변화의 시작	12.4~12.8	성남시 민속공예전시관	한기덕	박은주	임옥경	
3	정재홍 금속공예원전	11.3~11.8	하남문화예술회관	정재홍	이선영	김동규	
4	"螺鈿漆器(나전칠기) updating" 전시회	8월	성남 민속공예관	배광우	박은주	민재홍	
5	이후창 유리조각전	12.16~12.22	관훈갤러리	이후창	박은주	김진원	
6	제8회 이춘택 도예전	9.2~8 10.15~25	인사아트프라자 A&S갤러리, 안성시립도서관 내 갤러리	이춘택	이선영	오혜미	④
7	Time	8.19~25	한국공예 문화진흥원	윤석철	박은주	임옥경	
8	variation-이진우 개인전	11.18~12.1	갤러리 나우	이진우	이선영	김진원	

9	theory of mind 마음읽기 - 인지과학프로젝트	11.13~12.5	구로아트벨리	추민해	정상희	임옥경	
10	김동욱 사진전	9.18~27	노암갤러리	김동욱	정상희	임옥경	
11	강홍구 개인전 <사라지다 - 은평 뉴타운에 대한 어떤 기록>	3.13~5.3	몽인아트센터	강홍구	현혜연	황인성	④
12	단편만화모음집 '82년 개띠가 살아가는 방법'			전지은			⑤
13	투잡스 '두번째 직업이 예술이 되었을 때'	9.5~11	안산커뮤니티 스페이스리트머스	이민	현지연	황우자	
14	봉이 친환경컨설턴트	10.6~12	안산커뮤니티 스페이스리트머스	유승덕	한은주	황우자	
15	금호 영아티스트 개인전			정윤석			②
16	제3회 강기원 개인전	12.11~19	채움갤러리	강기원	현혜연	홍원의	
17	이원정 개인전 HOLE	12.1~12.31	남양주 이동식 리어카 포장마차	이원정	이선영	임옥경	
18	박영숙 사진작품집 영문판 발간/"미친년프로젝트 Mad Women Project"			박영숙			⑤
19	Still Lives:Small Voices	12.7~12.20	인사미술공간	박성연	김최은영	김진원	
20	Portable Landscape	10.8~11.4	K&Gallery	이민호	현혜연	임옥경	
21	한국미술의 상황을 읽고 비평적 발향을 제시할 계간지 창간			심상용			⑤
22	[Art Encounters Deleuze and Guattari] 번역			안구			⑤
23	[조선의 황제릉', 홍릉과 유릉의 석물조각]저서 출판			김이순			⑤
24	강영민 개인전	9.5~27	영은미술관	강영민	현지연	민재홍	
25	관객참여 체험작업 "치유의 시간" - healing Project 2009	11.6~12.5	Art Studio Hyom Kang	강효명	현혜연	황우자	
26	제4회 우무길 조각 개인전	12.23~12.29	인사아트센터	우무길	이선영	임옥경	

■ 2009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기공모 지원사업_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7	박찬용 조각전-보헤미안을 꿈꾸는 기회주의자의 비행	10.21~11.2	갤러리 GRIMSON	박찬용	정상희	임옥경	
28	임승천 개인전	11.18~12.1	모로갤러리	임승천	유정아	김진원	
29	검증되지 않은 권위에 대한 도전전			한효석			②
30	14071995(조각개인전)	12.4-31	장흥 아트파크 레드스페이스	김상균	류혜진	김동규	
31	김병걸 개인전	10.7~20	UM갤러리(신사동)	김병걸	유정아	황우자	
32	박지호 개인전	11.24~12.5	청주미술창작 스튜디오	박지호	정상희	임옥경	
33	심윤용 개인전	12.23~12.29	갤러리 the K	심윤용	정상희	임옥경	
34	임선이 개인전	12.22~1.13	갤러리 차	임선이	류혜진	김진원	
35	이중근 개인전 - 신전 神殿	12.21~1.10	난지 갤러리	이중근	한은주	오혜미	④
36	안재홍 조각전 - 나를 본다	12.2~12.8	우림갤러리	안재홍	이선영	황우자	
37	이원석 개인전 "판타지"	11.27~12.3	레아갤러리	이원석	홍지석	이원호	
38	everything is fake	6.19~6.28	노암갤러리	안진우	김최은영	임옥경	
39	제 1회 개인전(조각) - 도시의 칠삭둥이			전준영			②
40	김덕영 개인전	11.13~11.27	대안공간 반디	김덕영	김덕영		①
41	Floating_B	11.16~12.15	loft h 청담	박은영	현지연	이원호	
42	개인전 (보물,사람)	11.25~12.1	갤러리 GaLA	이윤기	류혜진	이원호	
43	권기범 개인전 - 모호한 형상의 구축	11.11~11.17	미술공간 현(인사동)	권기범	한은주	황우자	
44	sceneONshow_ego	12.12~12.25	남양주 서호 미술관	박상미	김최은영	임옥경	
45	임춘희 개인전			임춘희			②
46	신화섭 개인전	7.22~7.28	인사아트센터	신희섭	류혜진	김동규	
47	박주욱 개인전	10.10~11.8	영은미술관	박주욱	김최은영	민재홍	
48	제2회 개인전 - 존재와 생성	11.4~10 11.16~20	가나아트스페이스/ 안성 시민회관 전시장	김성호	유정아	홍원의	

49	생명나무 - 제10회 박원태 개인전	10.27~11.20	안성시립 중앙도서관	박원태	박은주	홍원의	
50	정정엽 개인전	11.5~11.22	아트포럼 리	정정엽	현지연	임옥경	
51	무한생성의 연결고리	4.27~5.27	그문화갤러리	최혜영	전민정	이원호	
52	제 4회 현민우 개인전(한국화)	10.14~10.27	서울토포하우스 /안성시민회관	현민우	김최은영	홍원의	
53	진훈 개인전	11.18~11.24	관훈갤러리	진훈	정상희	이원호	
54	나형민개인전 - Built on the boarder			나형민			②
55	찰나	12.30~1.16	담갤러리	김미형	김최은영	김진원	②
56	김성남 개인전시	12.18~12.25	무이 갤러리	김성남	이선영	민재홍	
57	옛날식 행복	11.19~11.30	에비뉴엘 롯데아트갤러리	홍인숙	김최은영	김진원	
58	제 10회 박수인 개인전	9.23~29	갤러리 이즈	박수인	류혜진	임옥경	
59	허훈 개인전 - 평면의 깊이를 건너	10.30~11.6	아산병원갤러리	허훈	한은주	김동규	
60	김태헌 드로잉-봉봉(鵬鵬)			김태헌			⑤
61	12회 개인전 <공간, 송고의 경계>	11.25~12.16	갤러리 인	정보영	이선영	김진원	
62	랜드스케이프 - 여주	12.9~12.15	갤러리 이즈	김범석	박은주	김동규	
63	山, 水, 風, 景 - 그리지 않은 그림	10.7~10.13	공갤러리	김현철	박은주	임옥경	
64	뿌리프로젝트	12.7~12.19	헤이리에술마을마음등불 전시장	이인	류혜진	황우자	
65	일산, 산황동에서	12.30~1.5	경인미술관 5전시실	류장복	김최은영	오혜미	④
66	<신 능화판-전통 목판화와 모던디자인의 만남> 전	11.7~11.28	김내현 화랑	판화사랑	현지연	김동규	
67	전통매체와 새로운매체,그길항의 여정	4.11~6.14	광주 영은미술관	한국한지학회	이선영	이원호	
68	공장단지 내의 특별한 선물꾸러미	11.29~12.10	내건너창작마을	내건너창작마을	이선영	오혜미	④

■ 2009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기공모 지원사업_모니터링 결과보고서

69	드라마 방송국 3.0	8.26~9.13	아트포럼리, 송실대학교	이주연	정상희	임옥경	
70	짜장면	7월 둘째주	인천 차이나타운	짜장면 프로젝트팀	정상희	이명임	④
71	야생-도라산역에서 만나다	9.10~10.24	도라산역, 도라산평화공원	야생동물들	홍지석	김동규	
72	공가 공갈단	6.23~7.7	문화일보갤러리	김지혜	정상희	황우자	
73	非武装地帯 展(비무장지대전)	10.24~24/11.17~30	을동공원/ 한대우물창작촌	(사)민족미술인협회 성남지부	박은주	오해미	④
74	[현대미술비평서 출판기획] 예술과 제도안의 사회 - 21세기를 향한 예술의 소고			박찬응			⑤
75	2009 자라섬 바깥미술전 "씨알하나" Jara Island International Baggat Art Exhibition			김광우			②
76	경기가야금양상블 제8회 정기연주회 "경기민요와 함께하는 가야금 양상블"	9.8	성남아트센터 양상블시어터	경기가야금 양상블	장인중	최민호	
77	경기도 성주곳의 음악	5.15	서울남산국악당	경기도도당 굿보존회	이재욱	전효순	
78	문정숙의 色	8.29	성남시민회관	문정숙설장 구연구회	전지영	김동영	
79	제2회 도깨비대감 지신놀이 정기공연	6.24~25	고양어울림누리	고양돌소리 보존회	전지영	유희경	
80	박찬운 거문고연주회 및 음반제작	2010.1.28	국립국악원 우면당	박찬운			③
81	제7회 정미정 아쟁 독주회	11.27	달오름극장	정미정	전지영	최민호	
82	안현정 창작국악연주회 - 만남 4번째 시리즈 '창작 전통성악과 만남'			안현정			⑤
83	국악과 발레의 만남	10.24	하남문화예술회관	김경영	허명진	박만진	
84	3인 3색 모던발레의 향연	6.19	안산예술의전당	글로벌 컨템포러리 발레단	허명진	왕우리	
85	양평은 춤춘다! (10주년 기념행사)	4.11~5.30	양평바탕골 예술관	바탕골 예술관	박성혜	윤송이	
86	소통	11.20	화성유엔아이센터	밀레현대 무용단	허명진	이진희	

87	창단20주년 기념공연 연극 「열대야」	7.31~8.2	오정아트홀	극단 원미동 사람들	엄현희	김영란	
88	효로 지은 화성행궁	10.7~11	수원 화성행궁	인형극단 시소	염혜원	이진희	
89	“하땅세”	6.10~14	광주예술극장	극단 하땅세	염혜원	이은미	
90	가족 뮤지컬 '달맞이꽃을 찾아서' 공연	4.24~5.10	KPU아트센터	극단 기린	이진수	전효순	
91	창작극 특별공연 "푸른 개미가 꿈꾸는 곳"	4.29~4.30	복사골문화센터	극단물뫼	우미옥	임옥경	
92	이복남 작곡 발표회 "내 방 안의 레퀴엠"			이복남			②
93	경기타악기 앙상블 제6회 정기연주회 (타악기를 빛낸 위대한 작곡가)	7.26	수원청소년 문화센터	경기타악기 앙상블	이나리메	이은미	
94	창작관현악 음악회-5인의 음악이야기 '춤' La Danse	11.17	성남아트센터 콘서트 홀	수원음악 학회	류현정	김동영	
95	창작합창페스티벌	10.27	군포문화예술회관	한국합창 총연합회 경기도지회	류현정	강재선	
96	클래식 기타 독주회 '겨울의 노래'	12.18	안상문화공간 비움	김우재	장인종	왕우리	④
97	대한민국 창작관악의 세계	9.29	평촌아트홀	코윈스 예술단	이나리메	최민호	
98	제 24회 정기연주회 <땅끝까지 이르러>			안현성			②

2. 3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다원	계
모니터링대상사업	13	11	11	7	8	50건
사업실시완료건수	13	11	10	5	8	47건
모니터링실시건수	13	11	9	3	5	41건

공모지원사업의 총 건수는 50건이며 모니터링대상사업 또한 50건, 사업기간내 (모니터링 실시 기간인 2009년 5월~12월) 교부신청서를 배부 받아 실시 완료된

■ 2009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기공모 지원사업_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사업건수는 사업포기 2건과 모니터링활동 이전에 진행한 사업 1건을 제외한 47건이다. 이 47건의 사업 중 모니터 요원 평가표 미제출(모니터 2인 중에 1인이라도 모니터링 실시 한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로 인해 6건이 제외되었으며 모니터링대상사업 기준에서 누락된 9건의 누락사유는 아래 표의 비고란에 기호로 별도로 표기하였다. (기호설명 - ① 사업일정변경 및 사업취소 ② 모니터링활동 이전에 진행 ③ 모니터요원 미선정 ④ 모니터요원평가표 미제출 ⑤ 출판사업)

연번	장르	사업명	일정	장소	단체명	비평가	관련분야	비고
1	연극	연극 의자 공연	4.24-25	광명시민회관	극단 한울	손정우		②
2	연극	2009 아버지가 사라졌다	6.19~6.20	김포시 여성회관	극단 인향	이진수		③
3	연극	뮤지컬 "유랑극단"	11.24~11.28	복사골아트홀	극단주부토	김영아	김영란	
4	연극	소나무 아래 잠들다	10.9~10.10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씨어터	극단동선	우미옥	김동영	
5	연극	단풍소리	9.17~18, 26~27	고양아람누리 노루목야외극장 /용극장	창작그룹 오기	염혜원	유희경	
6	연극	안녕하세요? 엘리야저씨!	12.1~12.9	청강문화산업대학뮤지컬하우스 '숨'	창작공동체 얼굴과 얼굴	우미옥	소홍삼	
7	연극	인형음악극 '옛날옛날 금강산에'	6.30~7.8	환타지아극장	극단 로.기.나.래	김영아	김영란	
8	연극	행복한 죽음	11.6~11.22	안산문화 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명품극단	김영아	왕우리	
9	연극	가을연극 만나기 결판희극전	9.18~9.20	안산문화 예술의전당	놀이패 결판	우미옥	왕우리	
10	연극	1인극 '학수고대'	6.16~6.18	의정부 예술의전당	예술마당 살판	염혜원	소홍삼	
11	연극	심봉사의 딸	4.22~4.25	파주시민회관	극단예성	엄국천	이명임	
12	연극	달래이야기	6.26~6.27	남양주북한강 야외공연장	예술무대 산	염혜원	박만진	
13	연극	하이에나는 우유배달부	7.10~7.11	하남문화 예술회관	4관객 프로덕션	김영아	박만진	
14	무용	The Second Move	10.16~10.17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댄스컴퍼니 무이	허명진	최민호	
15	무용	세 여자의 접시 쌓기	8.8~8.9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홍선미무용 극단 NU	허명진	유희경	

16	무용	모던프로젝트	10.30~10.31	과천시민회관	서울발레 시어터	허명진	김영란	
17	무용	김혜정 & 블루댄스 시어터의 '블루지젤'	9.17	용인시여성회관	김혜정&블루댄스시어터	허명진	강재선	
18	무용	꺼지지 않는 불꽃	6.5	경기도 문화의전당	채명신무용단	박성혜	강재선	
19	무용	최상철 댄스프로젝트<섬>	9.3~9.4	성남아트센터	최상철 댄스 프로젝트	박성혜	김동영	
20	무용	제2회 미래춤 포럼 및 안무가전	10.30	용인시여성회관	한국미래춤학회	박성혜	이은미	
21	무용	novel from dance montage	12.11~12	아람누리 별모래극장	무브먼트 <당-당>	박성혜	유희경	
22	무용	The Bagk	10.23~10.24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댄스 씨어터 4P	박성혜	유희경	
23	무용	소녀와 죽음& 알려지지 않은 땅	8.28~8.29	과천시민회관	UBIN Dance	허명진	윤송이	
24	무용	발레 춘향	6.19~6.20	고양아람누리	유니버설 발레단	박성혜	유희경	
25	음악	신춘음악회 시즌2 "운명! 그 위대한 힘의 원천"	5.2	광명시민회관	광명심포니 오케스트라	이나리메	임옥경	
26	음악	구리시 교향악단 제 32회 정기연주회	3.11		구리시 교향악단	누락		②
27	음악	Celebration Concert	6.20	군포시문화 예술회관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이나리메	윤송이	
28	음악	opera "La Boheme"	12.7~12.10	경기도 문화의전당	중앙오페라단	류현정	김영란	
29	음악	의정부 오페라단 제12회 정기공연오페라 '라보엠'	6.19~20		의정부 오페라단			①
30	음악	2009 송년 음악회	12.16	파주시민회관	파주윈드 오케스트라	장인중	소홍삼	
31	음악	평택시 교향악단과 함께하는 평택사랑 창작가곡의 밤	12.18	평택남부 문예회관	평택시 교향악단	서정민갑	김동영	
32	음악	청소년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족음악회	6.10	포천반월아트홀	포천 윈드 오케스트라	류현정	김동규	
33	음악	Yozm Serenade	9.18	화성아트홀	요즘소리	장인중	이진희	
34	음악	'New Sound on the Old - 전통에 새로움을 입히다'	.20	성남아트센터	현대음악 앙상블소리	류현정	최민호	
35	음악	서울그랜드합창단 제10회 정기연주회	12.10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서울그랜드합창단	류현정	윤송이	
36	국악	창작경기소리극 '愛民의 방정식'	12.2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사)한국경기소리보존회	이나리메	최민호	

■ 2009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기공모 지원사업_모니터링 결과보고서

37	국악	거문고, 옛 여인들의 시와 만나다.	8.26	일산아람누리 새라새극장	장은선	서정민갑	유희경	
38	국악	心 深(국악의 향연)	6.4-6.5	부천시청	남사당 부천도당예술관	전지영	임옥경	
39	국악	2009 경기청소년국악단 기획창극 '재미네골 이야기'	1.11	용인시여성회관	경기청소년국악단	이나리메	임옥경	
40	국악	2009 이춘희의 신명굿, 얼썬나 얼썬!	11.19	부천시민회관 대공연장	사)한국전통민요협회	서정민갑	김영란	①
41	국악	청소년을 위한 유쾌한 가야금 이야기	8.29	성남아트센터	가야금사중주단 여울	장인중	이은미	
42	국악	금마루 정기공연 '女友夜 2009'	5.12	경기도 문화의전당	금마루	장인중		②
43	다원	"오감" 북경반점	8.7~8.8	과천시민회관	(주)화인픽처스	서정민갑	강재선	
44	다원	2009 가족마임콘서트 12월의 푸른 밤	12.4-12.6	광명시민회관	몸짓굿 STUDIO	김영아	윤송이	
45	다원	원형 Archetype	10.14~10.16	안산문화 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공연예술치료연구회	장인중	왕우리	
46	다원	FAT SHOW	4.14	계원디자인 예술학교	계원디자인 예술대학	허명진		②
47	다원	시 퍼포먼스 '늑대의 옷'	10.28/11.10	안양 석수시장/과천 별양동 쉼터	비주얼씨어터 컴퍼니 꽃	김영아	이진희	④
48	다원	멀티미디어 인터랙티브 음악극 <두번째 세계 - 잠자는 마을>	5.2-5.3	의정부 예술의전당	창작집단 "Inter Gate"	엄현희	소홍삼	
49	다원	2009 극단 몸꿀 대형 야외극 프로젝트 '다시 돌아오다'	9.22~9.27	과천한마당축제	극단 몸꿀	이진수	이진희	
50	다원	소통을 위한 매개 퍼포먼스 <투명한 고통>	4.10	경기 수변지역	임민옥	허명진		②

3. 모니터 요원 모집

지역문화예술활동 시민모니터 모집 공고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는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지원사업 시민모니터' 를 모집합니다. 시민모니터 요원은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과 지원정책 현장을 살펴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성숙한 지역문화예술 만들기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 개요】

1. 응모 자격과 조건

- 도내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시민
- 시민모니터링 활동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세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
- 지역내 문화예술활동에 대해 향유자 입장의 현장관찰과 인터뷰를 통한 객관적 평가를 수행.
- 선정된 모니터 요원은 반드시 모니터링 교육 및 워크숍에 참석
- 거주지역에서 실시되는 대상사업(지역별로 건수는 다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책임감 있게 실시하고 1주일 내에 모니터링 결과물 제출

2. 신청방법

- 가. 제출기간 : 2009년 4월 15일(수) ~ 4월 23일(목) 오후5시까지
 나. 모집인원 : 각 시군별(부천,안산,의정부,하남시 제외) 1~3인 선별, 총 40명
 다. 제출서류 : 시민모니터 지원신청서 1부(별첨1)
 문화예술(전시,공연 등) 관련사업 관람 소감문 1부
 라. 제출방법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이메일(ggag@hanmail.net) 전송
 (메일 발송시 제목에 “시민모니터 지원신청” 반드시 표기)
 마. 문의 : 우경자 팀장(031-249-4232)
 바. 선정결과 공지 : 4월 28일(화)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이메일) 통지
 사. 향후일정 : 모니터 교육 : 5월 6일(수) 14시, 경기문화재단(예정)
 모니터 워크숍 : 기간 내 2회
 모니터 활동 기간 : 2009년 5월~12월

심층 모니터링 전문가 그룹 모집 공고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서는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 심층 모니터링’에 참여할 전문가 모니터(비평가·관련분야 종사자)를 모집합니다. 경기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확인하며 전문가와 경기도내 문화예술 활동에 관심을 갖고 그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도내 문화 예술활동 및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고 개요】

1. 응모 자격과 조건

- 관련 모니터링 경험이 있으신 분
- 예술학, 미학, 미술사학, 지역연구 등의 연구 경험이 있으신 분
- 미술, 음악, 문학 등 비평매체에 기고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블로그 운영자
- 관련 기관 종사자

2. 신청방법

- 가. 제출기간 : 2009년 5월 21일(목) ~ 5월 26일(화)
- 나. 제출서류 : 전문가 그룹 지원신청서 1부(별첨1)
- 다.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라. 제출처 : ggag@hanmail.net
(이메일 발송시 제목에 “전문가 모니터 지원신청” 반드시 표기)
- 마. 문의처 : 031-249-4232 우경자팀장
- 바. 선정결과 : 개별(이메일) 통보

4. 모니터요원 간담회 및 심층 인터뷰 회의록

4. 1 시민 모니터요원 간담회

<모니터링사업 시민모니터요원 심층 인터뷰>

- 일시 : 2009년 9월 22일 (화) 오후 6시 00분~ 오후 7시
- 장소 : 수원 경기도 문화의전당
- 참석자 : 노명우(아주대학교 교수), 시민모니터요원 15명
- 내용 : 경기문화재단에서 시행중인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기공모 지원사업의 시민모니터 요원들과의 심층 인터뷰
- 세부 논의 사항 : 시민모니터요원 활동에 대한 인터뷰, 평가지표에 대한 논의, 재단의 지원사업 형태에 대한 의견, 지원사업의 홍보문제, 기타 사업과 관련된 의견

◆ 시민모니터요원 활동에 대한 인터뷰

◦ 모니터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

- 작년에 비해 평가지표가 맘에 들지 않았다. 점수를 적게 혹은 많이 주고 싶은 경우에도 평가척도에 맞춰 점수를 배정하다 보면 의도치 않은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공연이 여러 차례 진행되는 경우엔 모두 참가할 수 없다. 이럴 땐 평가결과를 어떻게 써내야 하는지도 혼란스럽다.

-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고 뿌듯할 때가 있다.

◦ 실망이라면 어떤 점에서 그러한가?

- 지역문화예술이니까 금액에 비해서 질적으로 기존 공연보다 차이가 많다. 동네 학예회 수준인데도 지원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질적 측면은 평가를 안 하지만. 언급은 한다. 늘 하면서 안타까운 게 작년에 했던 경우를 또 보면 향상 되어야 하는데 (같은 단체임에도) 별 차이가 없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전문가가 도와주었으면 한다. 지원해주면 좀 더 중앙무대처럼 세련되게 개

선되지 않을까 한다. 잘 되는 공연을 지원해서 확산시키는 쪽으로 지원해야 한다.

- 연중행사 일정 변경에 대한 연락이 잘 오지 않는다. 지원사업의 주체와 모니터요원 간에도 소통의 문제가 있다. 한 달하는 전기도 언제부터 가야 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 보니 연중행사를 몇 번 정도 가서 평가를 해야 할 지 그게 참 헷갈리다. 여기에 목 메여 있기도 그렇고. 대표하고 간사 총무 간에 서로 초면인 경우도 있고 행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 행사담당자와 대표자랑 구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서류상에 형식적으로 세워놓은 사람들이라는 거다.

◦ **모니터 활동 중 인터뷰시 대표자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

- 협력적이다. 관계자나 사업자 인터뷰를 하면 기꺼이 응해주고, 시간을 할애 해주면서 어렵다는 것을 호소한다.

◦ **사례비는 얼마나 받나?**

- 5만원을 받는다. 돈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하기에는 힘든 일이다. 서울엔 대학원생이 하는데 설문지까지 돌리면서 3만원을 준다고 한다. 우리는 많이 받는 거라고 한다.

◦ **모니터링 할 때 가장 뿌듯할 때는 언제인가?**

- 우리는 늘 향유자입장이다. 이쪽 계통(문화공연)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예전에 갔던 것과 비교가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가서 정말 뿌듯하게 느낄 때는 별 기대 없이(공연에 대해) 갔는데 정말 열심히 할 때다.

- 남한산성 놀이마당을 한다고 해서 남한산성에 갔다. 그런데 보니까 그 장소에 홍보포스터도 없고 찾아가기도 힘들었다. 그럼에도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고 다 참여하는 분위기에서 너무 감동받았다.

- 아이와 함께 참여하기도 한다. 아이도 또 다른 향유자로서 공연을 보게 되는데, 이로써 향유자를 하나 더 늘린 셈이라 좋았다. 모니터 시에는 감독이 아닌 향유자로서 하라는 것이 지침에 나와 있다. 모니터 때문에라도 가니까 모니터하면서 이런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보는 안목도 높아지고, 교육적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 개인적으로는 모니터링 규모가 더 커지고 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제 보면 모니터제도가 확대되었으면 하는데 재단에서는 예산문제로 인해 규모를 줄였다.

◆ 평가지표에 대한 논의

◦ 평가지표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이번년도엔 항목별로 나눠져서 하기 용이했다. 지표에 맞춰 점수를 주다보면 주기 싫은 경우에도 쥐야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 그냥 참고가 될 뿐, 평가지표가 별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고 의욕이 상실된 적도 있다. 그럼 모니터요원제도를 왜 시행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사실 평가와 비평가, 지표 사이 경계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

◆ 재단의 지원 사업 형태에 대한 의견

◦ 재단의 지원 사업 형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

- 지역문화활성화 질이 아주 좋으면 좋겠지만 지역문화활성화가 목적인데도 지역민이 참가하지 않는게 문제다. 참가규모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진정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온 건가 아닌가 하는 것에서도 차이가 현저히 난다. 이런 것은 재단 쪽에서 조절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자생할 능력이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신청하는 집단이 있다.
- 축제 공연 같은 경우 모인 사람들의 반응은 체크가 가능하지만 전시 같은 경우 측정이 쉽지 않다. 전시는 관람자 태도를 볼 수 없으니까. 대부분 전시에 가보면 사람들이 많지 않다. 거의 전시 오픈 때 모니터링을 가기 때문에 전시와 공연을 같은 지표로 평가하기 어렵다.

◆ 지원사업의 홍보문제

◦ 홍보문제 관련하여, 평가의 개선안에 관하여 생각해본 것이 있는가?

- 올해 최악의 경우에는 홍보가 없고 관객이 소극장에 관객이 관계자 몇 명과 모니터 요원밖에 없었다. 황당했다. 시간적으로 5시 평일이었는데 솔직히 누가 보러가나. 소극장은 인터넷상으로 홍보가 잘 되지 않는다. 소극장 앞에만 포스

터만 붙어있고. 주변 지역 시민들을 고려해서 시간대를 정하든지 해야 하는데, 본인들은 홍보하지 않고 무조건 공연을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듯하다.

- 어떤 사업은 지원금을 노련하게 벌려고 애쓰고 있는 게 훤히 보인다. 이중 지원을 받으면서 그만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 것이 뻔히 보일 때 속상하다.

- 문화의 전당도 자체 공연만 홍보하지, 대관공연에 대한 홍보지원은 없다. 미리 현장에서 리허설도 해야 하는데 리허설문제도 발생한다. 리허설시간 연장, 공연시간 연장 등, 이런 시스템상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재단에서 도와 주어야 한다고 본다. 단체가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작은 단체의 경우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장소섭외, 시설/장비 빌리기, 홍보 등을 지원해줘야 한다. 미숙한 집단 조직에게 사업자들에게 전반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 어린이들 방과 후 교실이 단체로 왔는데, 지원받은 공연 시설임에도 연령이 잘 맞지 않는 공연이었다. 이렇게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홍보가 되거나. 민망한 사태가 발생한다. 현재 방식으로는 지원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 연도(1년 단위) 평가가 좋은 점은 추후 도움이 필요한 집단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 처음 두 번째 해에는 작년 올해 똑같다 싶었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다. 문화재단 목적을 보면 좋은 공연이 제공되고 그것의 향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충족하기 어려우니까, 기준미달이지만 그래도 여러 번 봐주게 되는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내가 소시민으로서 향유하는 입장에서 그 정도로 만족한다.

◦ **일정한 장소에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와 기간이 긴 공연의 경우로 나누어 평가지표를 구분하면 어떨 것 같나?**

- 복잡해진다. 작년에는 공연전시 평가지표가 되게 어렵고 복잡했다. 거의 쓰는 것이었다. 평가지표에도 각각 이유까지 쓰도록 했는데 올해에는 쉬워졌다.

- (평가 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지속가능한 사업인가 그 사람의 의도가 중요하다고 본다.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가치가 있는 가 그쪽만 보는데 나는, 지엽적인 것은 안 본다.

4. 2 전문가 모니터 간담회

<모니터링 사업 전문가 모니터 간담회 회의록>

- 일시 : 2009년 11월 25일 (수) 오후 4시45분 ~ 오후 7시
- 장소 :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참석자 : 노명우(아주대 교수), 이주연(아주대 교수)
 비평가 - 김최은영(e-미술마을 컬럼리스트),
 박은주(자유기고 및 평론, 전시기획),
 우미옥(명지대 박사과정), 김영아(그림연극 배우),
 허명진(무용평론가), 장인중(음악평론가),
 이나리메(작곡가 및 평론가), 염혜원(공연관련 분야 자유기고가)
 관련분야 종사자 - 김동영(성남문화재단), 이은미(백석예술대 교수),
 강재선(안양문예회관), 김진원(화성시청),
 임옥경(관련분야종사자)
- 주제 : 경기문화재단에서 시행중인 문예진흥지원사업의 모니터링 제도에 관한 논의
- 세부논의사항 : 재단이 추구하는 지원사업의 목표,
 모니터링 평가지표의 편차발생 문제, 평가항목의 적절성,
 비평문의 활용현황과 환류방안,
 재단에 대한 요구(기타 사업에 대한 한계와 추가된 논의)
- 노명우 교수: 우리는 모니터링제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보완 개선될 점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에 근거하여 새로운 모니터링 사업 방향을 제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모니터링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새로운 모니터링 제도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전에는 시민모니터요원을 의견을 들었고 오늘은 전문가들을 모아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평가표의 적절성, 장르별 특성이 강한 문화예술의 특성상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 항목 간 배분은 적절한지, 평가지표를 장르별로 특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등등의 제안을 주시면 경

기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 재단이 추구하는 지원사업의 목표

◦ 이나리메(작곡가 및 평론가): 원론적이긴 하지만 이 사업의 목표를 리마인드 하여야 하지 않을까.

◦ 노명우 교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짚어 주셨다. 재단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가장 중요한 것. 지원주체인 재단은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지원의 방향성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심사표 4쪽 참고해 달라. 아마 이것은 선생님들 마다 평가기준이 다를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시면 된다. 우리들은 그 의견을 최대한 모아서 재단에 전달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이주연 교수: 재단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해보고 어떻게 모니터사업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 박은주(자유기고가): 만약 세부적으로 항목에 대한 검토를 원하신다면 메일링으로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으면 한다. 시각예술의 경우 예전보다 업그레이드되었고 많이 반영이 되었다. 평가하기 수월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딜레마가 생긴다. 가시적인 측면이 중요하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비평가로 가지만, 홍보성이나 어떤 식으로 실현되는 것이 배점으로 들어가는데, 시각의 경우 지역에서 안하고 서울에서만 한다는 것이다. 작가로서는 전시를 알리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홍보가 덜 이루어진다. 그 부분이 처음에 우려가 되었다.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는 쓰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역이 없어진 상태에서 항목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을 때 작가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본다. 홍보가 미비하게 평가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 모니터링 평가지표의 편차발생 문제

◦ 노명우 : 시민 모니터링의 경우 테스트를 했었다. 동일사업에 대해 두 모니터 요원이 참여 하는 것이 현 방식이다. 엄격하게 환류방식을 적용 했을 때 선의의 피해자와 운 좋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동일 사업에 두 명이 평가하면서 환류에 그대로 적용하면 객관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야할까. 혹시 전문가 분들도 본인과 타인의 잣대사이에 대한 격차를 느끼는지 말씀해주신다면 우리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다.

◦ 이나리메 : 다른 선생님들의 점수에 대해서 모른다. 작년 블로그를 운영했을 때는 시민 모니터링을 커닝을 하기도 했다. 굉장히 글 잘 쓰시는 분들이 있기도 한데 굉장히 냉혹하신 분들도 있고. 오히려 전문가들은 이 바닥에서 성장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경기도라고 해서 서울이랑 퀄리티가 차이난다고 해서 막 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이 대중 친화적이던, 퀄리티가 높건, 현대음악 같은 경우 특히 상위 10위안에 드는 분들도 네거티브 평가냐 포지티브 평가냐에 따라서 전문가 내부에서도 차이가 많이 날 것 같다.

◦ 강재선(안양문예회관): 우리 같은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분야에 중요점을 알고 있지 않나. 우리가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본인이 참여하면서 자기 장르 쪽이라면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정도 선이라는 선을 지니고 있으니까. 적정 수준이라는 마음의 짐이 있다. 그래서 시민모니터링이 보완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그 중간 형태로 세분화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노명우 : 지금 평가하실 때 주저하게 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자들도 평가 할 때 부메랑효과 등을 고민하게 된다.

◦ 강재선 : 높지 않게 주었다고 해도 그 점수가 적절한 것인지 고민한다.

◦ 노명우 : 두 분일 때는 그 부담이 클 것 같다. 그 문화예술을 진흥시켜야 한

다는 목적을 지니신 분들에게는 특히, 좀 더 늘어난다면 네 명이라던가. 조금 더 늘어난다면 어떻겠는가.

◦ 강재선 : 좀 부담이 줄 것 같다. 기준이라는 게 저도 하면서 사업에 대한 고려를 하게 되는데,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서도 네가 개인적으로는 최하를 평가하고 싶은데 최하선이라는 게 있어서 다시 수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 이나리메 : 엑셀로 차라리 등수로 내는 것이 좋겠다. 그 점수가 안 좋은 공연이라고 생각했음에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 공연과 점수 차가 안내는 경우가 있다. 그때그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가장 높은 것의 공연의 기준은 무엇인가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한다. 아무래도 지역특성이 있으니까 후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 박은주 : 한번 지원받는 사업자가 바로 하거나 혹은 건너뛰거나 하는 경우, 상위 5%는 그대로 되는 걸로 알고 있다. 몇 점 이하는 절대 안되고, 이정도면 또 다시 지원가능 하다는 등 무조건 사람이 많이 간다고 평가를 가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 특히 시각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틀리고 작가도 너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 이나리메 : 사실 사업계획의 충실성은 의미가 거의 없다. 일단 거기에서 더 얻는 단체도 있으나 그것으로 꾸리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 박은주 : 예를 들어 사업수정에 대한 항목, 예컨대 규모나 장소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본다.

◦ 강재선 : 모니터링 사업에 대한 저녁시간에 나와 있으면 많은 시민 모니터링 요원을 만난다. 자세히 물어보고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 정말 감투 아닌 감투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인원이 모니터링을 참여하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산이 가장 중요하다. 자체적으로 마니아층이라고 불리는 중간 계층을 만들어서 예산을 크게 잡지 않아도 되도록 추진했으면 한다. 반복적으로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남다보면 객관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중간층을 만들어 주면 가능하다. 잘 하신다는 분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지금 평가항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예술단체 쪽에서 계획안을 잡는 쪽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 계획하는 대로 되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수정계획안이 많이 발생하는 단체가 충실한 단체라고 생각한다. 갑작스럽다거나 일방적이지만 않다면 말이다. 당초 계획안 가지고 충실도를 평가한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허명진(무용평론가): 전문가들은 요구하는 바가 확실한 작품위주로 평가하게 되는데, 작품 이것저것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술적인 것에) 좀 비중을 많이 두어서 평가를 요구하면 아무래도 편차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평가항목의 적절성

◦ 노명우 : 올해 평가표가 이전 평가표보다 심플해졌다. 그 과정에서 문화재단과 협의하는데 힘들었다. 평가지표는 심플할수록 좋다는 의견은 감시차원에서 평가지표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점과 충돌했다. 비평가들은 예술성을 평가하고 관련 종사자들은 그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평가하고, 시민은 얼마나 그것에 만족했는지에 대한 자료 수집을 맡는 형태로 만약 평가표가 개선되게 된다면 어떠한가. 전문가들이 이런 평가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더하여 재단과 서로 교섭할 수 있는 범위가 생길 것 같다. 현장에서 느낀 것을 과감하게 말씀해주셨으면 한다.

◦ 김최은영(e-미술마을 컬럼리스트): 2004년부터 경기문화재단 진흥기금이 정착한 듯하다. 2003년에는 아마추어인지 전문가인지 모르게 뒤섞여있었다. 선생님 말씀대로 불필요한 항목들이 많았다. 리플렛 하나 찍거나 대관료 내면 없어지는 것 지원이었다. 그것을 냉정하게 수치자체로 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속성, 파급효과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 작가가 이전에 어떤 활동을 했고 사후가 어떤 활동을 하려하는지, 얼마나 지속성을 가지고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되는 역할을 재단이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궁금하다. 재단이 그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평가, 논의가 반영되었으면 한다.

- 이주연 : 작가분에 대한 프로파일에 대한 다 보고 가시는 건가.
- 김최은영 : 그렇다. 전 기준에 잘 알고 있는 작가들이 많은 편이다.
- 이주연 : 그럼 사전에 잘 알지 못하는 친분 없는 작가들을 평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가?
- 김최은영 :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언해줄 수 있고 발전과정을 알기 때문에 더 나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수도 있다. 때문에 더 좋을 수도 있다. 신진작가 같은 경우 ‘저 작가 제가 맡겠습니다’ 라고 요구한 적도 있다.
- 김최은영 : 데이터는 너무 약소하고 미비하다. 거기에 리뷰하나 쓰는 건데, 재단과 작가를 위해 애정을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 비평문의 활용현황과 환류방안

- 노명우 : 그 비평문에 대한 부담은 있는가? 어떤 효용가치를 느끼시는지.
- 김최은영 : 때에 따라 다르다. 좋은 공연이었으면 할 말 많겠지만.
- 박은주 : 예를 들어 작가분이 비평문을 경기문화재단에서 발췌하는 조건으로 달라고 하면 준다. 그럼 작가들이 막 쓰신다. 물론 사전에 말씀하시면 상관없다. 다만 그것이 매타평가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우리들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고 애정을 가지고 쓰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마구 쓰일 때, 단체 쪽에서 요구해서 ‘신했습니다.’ 하는 네트워크가 된 경우, 개인은 어디서 쓰이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공개되는 과정 전혀 없이 쓰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 장인중(음악평론가) : 사실 계량화된 평가가 어떤 사업들을 보면 평가지표 항목대로 했을 때는 높고, 실제 감동은 적을 때가 있다. 이것을 위해 비평문을 쓰는 것 같은데, 이 글을 정말 읽는지 궁금하다. 사업자들과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그것이 평가 자료로 들어가 간접적으로라도 아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 노명우 : 우리는 이 비평문이 사장되어 있는 게 아닌가하여 전문가들의 비평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고 본다.
- 박은주 : 명확하게 비공개라거나 비평가가 쓰는 형태가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 도록의 서문 등 이해를 돕는 성격과 함께 평가가 함께 들어가다 보니 부드럽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쓴다. 그런데 그게 전혀 그런 식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지는 않다. 선생님 말씀대로 몇 가지 조건을 들고 몇 가지 써라하는 방식이 오히려 더 쉬울 것 같다.
- 노명우 : 왜 이것을 고민하게 되었는가 하면 비평문과 점수를 비교하면 점수는 확연히 비교가 되는데 비평가를 읽으면 구분이 안 된다. 정상평가에 대한 칭찬의 수사의 빈도가 높다. 그렇다고 박한 내용의 평가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이유에서 비평문이 환류자료로 쓰이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 장인중 : 그것은 환원시키려고 하시다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다. 그 자체를 보시고 사업자나 사전평가자가 느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심포지엄을 하면서라도 심사위원이 현장에서 어떻게 되었는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공유했으면 한다.
- 노명우 : 독립된 성격으로 보고 그 비평문의 수신자가 심사자와 사업자에게 가고 결국 전문가 의견이 되는 형식을 말씀하시는 듯하다. 그 다음에 그 단체나 개인이 지원 사업을 한다면 사업에 대한 의견서가 첨부되어 이것까지 참조하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건가.
- 장인중 : 그렇다.

◦ 우미옥(명지대 박사과정): 비평문 자체는 약간 예술성이나 전체 완성도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계획의 충실성이라든가 비평문언 언급을 하지 않는다. 공연단체라는지 그건 심사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본다. 사업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될 수 있다면 이것은 비평가의 자료를 반영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수 있는 조언이 담겨있으니까 이걸 고려해서 반영되었으면 한다.

◦ 김최은영 : 1년 동안 비평문과 대상들을 모아서 문화 리뷰지를 발간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 노명우 : 부록형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리뷰를 모으는 건 어렵다.

◦ 임옥경(관련분야종사자): 블까페로 전환되면서 그 결과물이 한번만 나오고 다음부터 나오지 않았다.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봤구나 등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참고하는 것이 좋다. 결과물이 반드시 나와야하는 이유는 심사하시는 분들이 바뀌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바뀌기 쉽지 않나. 바뀌었을 경우 거기서 잘된 것을 추려서 반드시 관계된 분들이 나눠서 보도록 해서 반영시켜야하기 때문이다.

◆ 재단에 대한 요구(기타 사업에 지니는 한계와 추가된 논의)

◦ 노명우 : 현재 재단의 비평가와 관련분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 임옥경 : 한참 모자란다. 처음에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워크숍 등 관련 책도 나눠주고 했는데.

◦ 이나리메 : 대한민국 전체가 비평가는 없지 않나.

◦ 노명우 : 재단과 어떤 식으로 연락이 되나.

- 임옥경 : 재단에서 연락이 온다.
- 이나리메 : 요즘은 푸른경기21로 넘어가고는 재단과 접촉이 없다.
- 박은주 : 푸른경기21로 오기 전에는 적절하게 비평가 이력을 보고,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신 걸로 기억한다. 푸른경기21로 넘어가면서 시민과 전문가 컨택 유형이 다른데 그래서 처음에 갈등이 있었다. 현재 조정하는 식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먼 지역, 덜 알려진 경우에는 솔직히 힘들다. 그리고 나는 글이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은 충격이다.
- 이은미(백석예술대 교수): 우리의 점수는 무슨 의미고 그 점수는 왜 내야하나.
- 노명우 :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피드백으로 된 적은 없고 참고사항이 되었다. 재단에서도 앞으로 다음 사업에 근거가 되도록 활용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 어떤 것을 보완하고 프로세스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에 대한 작업을 우리가 맡은 것이다. 현재 만족하시고 자부심을 느끼실 경우를 들어봄으로써, 지금 어떤 절차를 만들어야하는가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나리메 : 지원금의 인센티브 말고 명예를 더해 격려하는 방법도 있다. 비평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죽이고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가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게 피드백이 없으면 공연문화가 살지 못한다. ‘대한민국에는 비평가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음악 같은 경우 원고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신문이랑 객석밖에 없다. 비평가 활성화를 위해 경기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실시한 것도 있는데, 사실 평가라는 것 자체가 당락에 5:1 정도의 경쟁률이 있지만 전수평가를 해도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고는 제외하곤 B나 E를 맞아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 오히려 잘한 사람들을 칭찬하는 방향으로 비평역할을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한다.
- 노명우 : 비평문화에 대한 활성화목적과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목적 두 가지가 경기문화재단의 목적이다. 그런데 비평측면의 목적이 약화되어 발생한 문제

로 보인다. 비평문화를 활성화 시키는 목적과 예술적으로 평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한 가지 프로세스로 가능한지, 아니면 독립된 절차로 가는 것이 오히려 각각의 목적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떠한가?

◦ 김최은영 : 시각에 국한하여 말씀드리겠다. 글(비평문)을 주면 차라리 이걸 전시 서문으로 썼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하시더라(사업자측). 시각예술은 작품이 나와야 전시하니까. 작가 목소리로 대체하기 전에 시각은 사전심사해서 비평문도 미리 작성해서 서문으로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젊은 작가는 촉망받는 작가의 비평을 써주었기 때문에 인지도나 그런 활동에 촉매가 될 수도 있고, 주체가 경기문화재단이라면 주체도 역시 좋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상호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 노명우 : 사전심사에 참가해보신분은 있으신가?

◦ 이주연 :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심사를 하고 또 평가를 하신 건데, 같은 연도에 둘 다하신 게 맞나. 어땠나?

◦ 이나리메 : 그렇다. 그런데 어떤 해는 시민활동 한번은 무대제작 우수창작이었는데. 들어가는 게 도움은 된다. 왜냐하면 지표에 대한 지식, 정보가 늘어나고 도움이 되긴 된다. 그런데 그게 참,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다. 시민을 할 때는 시민모니터링 위원 각자 선생님의 기준이 있고 그 가운데 설정된 합의가 있지 않은가.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팬찮은데 현장을 가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어느 정도 히스토리를 알면 점수를 주는데 정보를 알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당락을 보니까 여러 단체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다. 그런데 결국은 많이 알아서 나뉘는 건 없지만 비평가가 절대 권력자가 아니기에 그 둘 간의 밸런스를 맞춰야 할 것 같다.

◦ 노명우 : 본선을 심사하시는 분들이신 만큼 경험적으로 이런 어떻게 이걸 예선을 통과했을까하는 경우도 있나? 애초의 심사에 대한 의구심이 경험적으로 들었던 적은 있는가?

- 이나리메 : 경기문화재단은 많지는 않다.(다른 데와 비교하여)투명한 편이다. 대신 전체 서울 수도권지역에 비해서 공연의 수준은 솔직히 조금 기대치는 못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심사자체가 힘든 경우는 없다.
- 강재선 : 고르게 분포한 느낌이다. 각 장르분야별로 서로 리드하고 따라가는 등 정보교류가 잘 되는 듯하다.
- 노명우 : 사전심사에 대한 믿음은 갖고 출발하시는 건가?
- 이나리메 : 그렇다.
- 강재선 : 만약 사전심사와 같이 간다고 하면 애초에 모니터링 설립취지가 안 맞는 것 같다.
- 이나리메 : 저희가 원하는 건 정보지 권력이 아니지 않은가.
- 강재선 : 기본적으로 보여 질 것이라 생각했다.(비평가들의 평가가)묻혀버렸 다니 화가 난다.
- 김동영(성남문화재단): 공연을 봤는데, 전 모니터링 처음이라 생소하긴 한데, 처음 공연하는 단체는 없었고 어느 정도 수준은 됐었는데, 처음 공연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기본이 안 되어있는 경우가 있을까. 그런 의견을 평가에 넣었는데, 이게 피드백이 돼서 내년 반영이 되어야하는데 안 된다는 것이 황당하다. 그러면서 단체도 발전되는 것 아닌가. 조금이라도 프로세스를 아는 사람이 의견을 주고 피드백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 이나리메 : 같은 작가가 연결 돼서 몇 년씩 계속하는 경우는 비평가들도 각각 맡아서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현재 비평가들이 매번 다르게 참관하기 때문이다.
- 노명우 : 경기문화재단이 이 제도를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욕구는 있으나, 재

단 안에서 예산이나 우리나라의 모니터링 제도가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관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궁리를 해야 할 것이 머리를 짜내어 도움이 될 만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단 또한 발전시킬 제도를 만들고 싶은 의지가 있다는 점이다. 단지 리소스 부족으로 힘든 상황이다. 앞으로도 좋은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지속시켜나갈 수 있을까 고민 중이다.

◦ 강재선 : 지금 모니터링 제도가 대체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세부적 추진 안까지 시행되지 못한 게 문제이다. 그러나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 자체가 큰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 박은주 : 서울문화재단을 보면 경기문화재단을 모델로 삼아서 부러워하고 있다. 경기문화재단 쪽은 인력이 담당분야가 나뉘어 있어서 평가가 나뉘어 졌는데, 푸른경기21은 행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좋다고 생각한다. 의견이 나오면 여기서 취합이 되어서 가는 루트밖에 없어 보인다. 이나리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인력 없고 예산 없고의 문제인 것 같다. 작가도 만나면 이런 말씀을 하신다. 그러나 내놓고 물어보지 못한다. 좋은 평가가 나오면 작가와 전시는 ‘모아서’ 한다던가하는 장기적 발전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를 통해 나오는 작가는 왜 없느냐 에 대한 의문제기하시는 분이 있다. 시각에서도 모든 작가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막판에 작업을 해서 하는 수도 있고 여유가 있어서 글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때, 사전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옵션을 선택하게 하는 등 재단 측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좋을 것 같다. 푸른경기21에는 이것을 요구할 수 없다.

◦ 김최은영 : 교집합이 있음에도 업무를 따로따로 구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똑같은 경기문화예술 파트를 왜 굳이 나누어 실시하는지 의문이다. 교집합을 찾아 묶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 박은주 : 집으로 경기문화재단 잡지가 오더라. 분명 재단에 지원한 사업이 실려 있었다. 지원사업에 대한 리뷰가 아직 실려 있지 않으므로 그 매체도 활용해주었으면 한다.

◦ 이나리메 : 지방의 경우 공연도 공연이지만 모든 것이 허물어졌다는 느낌이 들었다. 초창기라 그렇겠지만. 그나마 경기문화재단은 괜찮다. 또 뽑아서 경쟁을 시켜야하니까. 비슷한 장르 안에서 경쟁을 하고. 그러면 돈이 갈리게 되지 않나. 창작부문 두 개 이상 내라고 하니까 오페라단이 오페라를 안 하고 가곡을 내는 거다. 성악가들 하는 일이 노래다. 이렇게 학예회처럼 그런 편법을 쓰게 되는 등 다양한 양상이 나타난다.

◦ 노명우 : 어설픈 지원이 이상한 방식으로 문화를 죽이는 현상이다.

◦ 이나리메: 그게 장, 단점이 있더라.

◦ 노명우 : 저희가 얘기했던 것이 장르에 따라 경우에 따라 인력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것이(장소)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지원을 돈으로만 말고, 장비나 공간 지원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전문가 : 맞다. 감시하는 형태의 모니터링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연보다도 홍보측면의 허술함이 더 심각해 당황했던 적 있다. 만약 지원을 할 경우 홍보나 함께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다.

◦ 노명우 : 지원을 받을 때 금액이나 시설지원을 받을 것이냐를 고르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 전문가 : 좋다.

◦ 노명우 : 시설이나 인력 지원은 어떠한가.

◦ 강재선 : 예산이 부족하다. 결국 재단 직원의 업무과다로 이어진다. 서울에 재단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다. 각 지역으로 평가를 하러 갔는데 정말 너무 열악하다. 기금사업은 지방으로 더 내려가야 한다고 본다.

◦ 이주연 : 1년에 몇 건의 사업을 평가하게 되는가?

◦ 이나리메 :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보통 5~7개 정도 하게 된다. 그런데, 사실 서울에서 하는 사업들(서울문화재단)의 경우 평가를 한다고 할 때 예술의 전당 같은 곳에서 이미 자기 시설에서 할 공연을 선별하고 나서 비평가들이 가서 모니터 하는데, 그래서 ‘감시자’ 라고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다. 경기문화재단에서는 비평가 모니터에게 다른 ‘역할’ 을 만들어 주고, 모니터링 제도 자체를 새로운 어떤 다른 모델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 이주연 교수와 김영아 비평가의 대담

◦ 리뷰 활용도가 낮으면 리뷰제도 철폐하자. 무대제작은 선 50% 후 50%지원인데 선지급 100%로 변경하자 (현실상 다 받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 만드는 사람의 어려움을 봐서 점수 50점은 주게 된다. 아마 50점이 안 되는 팀은 없을 것이다. 공연 개런티를 지급하는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다. 우수제작은 주로 시각 쪽이라 공연 쪽은 지원은 줄은 듯하다. 서울은 단체를 키우는 것이 맞는데 경기도는 관객 수 때문에 입장료도 안 받는 것이 현실이다. 심사할 때 지역 단체들에 인센티브를 주어야한다. 지원공모 할 때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서울 작가들에게 지원이 된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 예술가들이 피해의식이 있다.

◦ 지원금 규모가 공연의 규모에 맞춰져 있지 않다. 3일 공연이나 하루 공연이나 지원금 규모가 같다.

◦ 1년 사업을 마치고 사업 총평이 있어야 한다. 자리나 보고서 형식으로 모두의 총평이 취합되어야 한다. 어차피 사장되는 개별 작품에 대한 리뷰보다 1년 총평 리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전체적인 작품평과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해야 전년도와 비교 가능하다. 그래서 발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모니터링 담당을 시민단체보다는 예술 분야 인력이 맡는 것이 더 전문적이지

않나.

- 모니터링 요원 한 사람이 한 두 작품을 평가하는 것은 전체 평가가 되지 않는다. 네 다섯 작품 정도는 평가해야 비교 가능하고 흐름을 살필 수 있다.
- 내가 점수 낸 평가표가 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이 불가하다. 상호간에 소통이 없다. 평가자는 모니터링에 대한 동기가 떨어진다. 각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자기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 예산 문제로 매년 사업이 늦게 시작한다. 사업 시작을 1~12월로 하지 말고 7월~6월로 하면 전수조사 상에서 손실을 막을 수 있다.
- 현장 평가 받지 않은 팀은 어떻게 평가 했는지 얘기가 없다. 의견을 개진해도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의사소통구조가 막혀있다.
- 지역예술단체가 모니터링 평가 사업을 맡으면 이해관계 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단체가 평가 사업을 진행하면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편을 들게 되며 문제가 될 수 있다.
- 그러나 푸른경기21이라는 시민단체의 성격이 모니터링 사업과의 연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 모니터링 사업을 광역 단위에서 지역으로 내리는 흐름. 이 과정 중에 지역 네트워크에 따라 비리가 생길 수 있다. 서로 너무 잘 아니까.

2009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정기공모 지원사업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발행처 : 경기문화재단 /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발행인 : 경기문화재단 대표 이사 권영빈

발행일 : 2010년 2월

평가연구 :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모니터링 운영 : 푸른경기21

[442-83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번지

Tel. 031-231-7200 | Fax. 031-236-3708 | <http://www.ggcf.or.kr>